재판관 래플스

Mr. Justice Raffles

E.W. 호넝 (E. W. Hornung) (1866–1921)

1909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W. 호넝 (E. W. Hornung), "Mr. Justice Raffles" (Smith, Elder & Co. 1909)

저자

E.W. 호넝 (E. W. Hornung) (1866–1921)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9806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GB10 로컬) · 검수 Claude Opus 4.8 (검수·교정)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19세기말 영국 신사 도둑 이야기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E. W. 호넝 저

1909

목차

장

I. 개막 만찬

II. "가장 친한 친구"

III. 작전 회의

IV. "우리의 샤일록 씨"

V. 허공 속으로

VI. 카밀라 벨사이즈

VII. 득점에 실패하다

VIII. 사건의 개요

IX. 삼중 동맹

X. "옳든 그르든, 나의 래플스"

XI. 어둠 속의 질주

XII. 한여름 밤의 꿈

XIII. KO(Knock Out)

XIV. 범죄의 증거

XV. 래플스의 재판

XVI. 감시와 경계

XVII. 비밀 요원

XVIII. 죄인의 죽음

XIX. 변명

제1장

취임 만찬

래플스는 마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저녁 7시 31분, 채링 크로스 역에서 만나자는 전보를 받기 전까지는 나조차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날은 대학 대항전이 열리기 전 화요일이었고, 그가 신비롭게 자취를 감춘 지는 벌써 보름이나 지난 뒤였다. 전보가 날아온 곳은 카를스바트였다. 래플스 같은 인물이 가기에 그보다 더 형편없는 곳이 또 있을까! 그토록 건장하고 활기찬 사내가 그런 해로운 곳까지 발걸음을 했을 만한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수요일 저녁, 기차에서 내린 그의 모습을 본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나러 온 그 당당한 사내가 아니라, 마치 시체처럼 창백하고 초라하게 변해버린 가짜 같았다.

“영국산 소고기를 한 점 입에 넣기 전까지는 입도 뻥긋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버니!” 래플스가 휑한 뺨만큼이나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지금 당장 짐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 소중하고 착한 친구 버니, 내일 네가 나 대신 좀 해줄 수 있지?”

"당신이 원하는 시간이라면 언제든 좋아요." 나는 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런데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요? 켈너스? 네아폴로스? 아니면 칼튼이나 클럽으로 갈까요?"

하지만 래플스는 그 모든 제안에 고개를 저었다.

"저녁은 먹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다.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는 역에서부터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다. 트라팔가 광장 너머로 지는 노을을 감상하느라 한 번 멈춰 섰고, 따스하게 데워진 나무 보도에서 풍겨 나오는 타르 향을 맡으려 다시 한 번 멈춰 섰다. 그에게는 광장의 소란스러운 교통 소음이 음악처럼 감미로웠듯, 그 나무 향기 또한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수와도 같았다. 우리는 이윽고 일반적인 클럽 목록에 포함되곤 하는, 정치인들의 궁전 같은 건물 중 하나에 도착했다.

놀랍게도 래플스는 마치 그 대리석 홀이 제 집이라도 되는 양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는 흰 요리사 모자를 쓴 요리사들이 은색 그릴 위에서 음식을 지글지글 익히고 있는 식당을 향해 거침없이 직진했다.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 내게 의견을 묻는 법도 없었다. 그는 이미 기차 안에서 메뉴를 다 결정해 둔 상태였다. 그는 직접 안심 스테이크를 골랐고, 콩팥 요리도 꼭 확인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게다가 뒤이어 나올 감자튀김과 웨일스식 레어빗에 대해서도 한마디 거들었다.

식탁에서 까다로운 구석이라곤 전혀 없던 평소의 래플스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내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뱉고는, 식탁보 위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는 모습 또한 평소의 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이곳의 회원인 줄은 몰랐군요.”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내심 꽤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최근에 행했던 그 수상쩍은 행적들에 대해 묻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화제를 꺼내는 편이 훨씬 안전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버니, 자네가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아주 많아." 래플스가 지친 기색으로 말했다. "예를 들어, 내가 카를스바트에 다녀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나?"

"당연히 몰랐죠."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겠지?"

"그 말은 우리가 사보이 호텔에서 저녁을 먹었던 그날 밤을 말하는 거야?"

"겨우 3주 전일 뿐이야, 버니."

"내게는 몇 달은 지난 것 같군."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래플스가 외쳤다. “그래도 분명히 기억할 거 아냐?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던 그 미개 부족 출신 사내 말이야. 마을의 펌프를 닮은 코를 가진 그 사람과, 에메랄드 목걸이를 걸고 있던 그의 아내 말이야.”

“분명 그랬을 거야.” 내가 말했다. “그 대단한 댄 레비 말이지? 아니면 샤일록 씨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 A. J. 자네가 나한테 그 사람 이야기를 전부 다 해줬잖아.”

“내가 그랬나? 그럼 아마 이런 일은 기억할지도 모르겠군. 바로 다음 날 샤일록 부부가 카를스바트로 떠났다는 사실 말이야. 노인네가 매년 받는 요양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흥청망청 즐기던 참이었거든. 온 방 안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떠들썩했지. 아, 버니, 이제야 그 불쌍한 짐승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걸!”

"대체 무슨 일로 거기까지 간 거야, 친구?"

"그걸 말이라고 묻나? 그들이 떠난 뒤 테이블 밑에 에메랄드가 놓여 있는 걸 네가 봤던 걸 벌써 잊은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광경에 정신이 팔려서, 레이디 멜로즈 시절 이후로 만져본 목걸이 중 단연 최고인 그 물건을 들고 그들을 뒤쫓아갔던 것도 잊었냐고!"

나는 그의 질문에 답하듯, 혹은 여전히 기억 한구석을 찌르는 그 고약한 심술에 화가 나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한 심술이 닥쳐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자네 말이 맞았어." 당시 나에게 쏟아부었던 비난을 떠올리며 래플스가 말을 이었다. "정말 형편없는 짓이었지. 게다가 눈치도 없는 멍청이 같은 행동이었어. 그런 묵직한 목걸이가 주인도 모르게 저절로 떨어질 리 없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설마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말인가요?" 나는 흥미가 확 솟구쳐 외쳤다. 그가 남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지, 그 뒷이야기가 갑자기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이다.

"그렇고말고요." 래플스가 말했다. "그 가여운 노부인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다른 물건을 집으려고 몸을 숙이는 척하면서 말이죠. 물건을 도둑맞게 해서 카를스바트행 여정을 늦추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거기 가면 그 보잘것없는 남편놈이 부인에게 억지로 요양을 시키려 들 테니까요."

나는 그 에메랄드 사건에 관해, 우리가 분명히 마땅히 누렸어야 할 운명을 놓쳐버린 것 같다는 기분이 늘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래플스가 자기 자신을 등지고 내 편에 서 주는 모습에는 묘한 감동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끌어올리는 순간 바로 봤어." 그가 말했다. "그 돼지 같은 놈이 아내한테 목걸이를 떨어뜨렸다고 욕하는 소리도 들었지. 심지어

아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몰아세우더군. 그놈 말이 딱 맞긴 했어. 하지만 그건 가여운 여자의 실수였을 뿐이야. 그 광경을 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비열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똑똑히 깨달았어, 버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자네의 질책조차 필요 없었네. 그 목걸이는 도덕적으로 자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자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그 부당한 주인들의 뒤를 쫓아 카를스바드로 떠난 거야."

"정말 대단해!" 래플스의 겉모습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 내가 외쳤다. "하지만 A. J., 나를 데려가지 않은 건 정말 너무하잖아.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라고."

"사랑하는 버니, 자네라면 견디지 못했을 거야." 래플스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 치료법은 자네를 죽게 만들었을 거라고. 나를 보게, 내가 어떻게 됐는지."

"설마 정말로 저질렀다는 건 아니겠지!" 나는 그를 다그치며 물었다.

"당연히 그랬지, 버니. 기도서처럼 아주 경건하게 경기를 치렀다고."

"대체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자네는 카를스바트가 어떤 곳인지 몰라. 모른다면 이런 질문도 안 했겠지. 그곳은 스파이와 사기꾼들이 들끓는 곳이라네. 만약 내가 그 사기꾼들이 정해 놓은 규칙 중 하나라도 어겼다간, 스파이 놈들에게 순

식간에 덜미를 잡혔을 거야. 그럼 난 스파이와 사기꾼을 한데 버무려 놓은 꼴이 되어 파멸했겠지. 아, 버니. 만약 단테가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나는 그에게 그곳을 추천했을 거라네. 다른 이들의 악행을 그려내기 위한, 더 지독하고 새로운 지옥을 건설하기에 딱 좋은 건강한 구렁텅이라고 말이야!"

스테이크가 김을 모락모락 내뿜으며 도착했다. 고기마다 콩팥이 하나씩 곁들여졌고, 튀긴 감자도 듬뿍 올라가 있었다. 신이 내린 휴식 시간이라도 된 듯, 래플스는 웨이터에게 몇 마디 건네는 것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연이어 비터 맥주를 주문하며, 맥주를 못 마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라며 덧붙였다. 사실 나는 도저히 맥주를 마실 수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오로지 래플스에게 동조하고 싶은 마음뿐이라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야 말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보상을 받았다. 래플스가 겪은 그 지독하고도 악랄한 결핍의 기록을 듣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처절해서, 차마 내 식대로 옮길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아니야, 버니. 넌 반주일도 못 버텼을걸? 내내 그런 표정만 짓고 있었겠지!" 래플스가 말했다. 내 인내심을 비웃는 그의 말에 내 얼굴은 (평소에도 워낙 쉽게) 금세 어두워지고 말았다. 내가 애써 표정을 관리하자 그는 말을 이었다. "기운 내게, 친구. 이제 좀 낫군. 하지만 그곳 생활은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었네. 첫 일주일이 지나면 아무도 웃지 못해. 유머 감각이야말로 그 치료법이 가장 먼저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내가 묵던 호텔에 사냥꾼 한 명이 있었는데, 특별한 혈통의 경주마를 타려고 체중을 줄이는 중이었지. 분명 고향에서는 아주 쾌활한 친구였

을 텐데, 불쌍하게도 그곳에선 즐거울 틈이 전혀 없었어. 아침 식사 전부터 그 가여운 발로 수 마일을 걸어야 했고, 오전 내내 진흙 찜질을 받아야 했거든. 게다가 기스휄러(Gieshübler)라고 불리는 탄산 섞인 오물 같은 것 말고는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었지. 그나마 식사하고 한 시간쯤 지나서, 혀를 길게 내밀고 헐떡거릴 때가 되어야 그 액체를 들이켤 수 있었어. 우리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같은 체중계 앞에 섰는데, 의자에 앉아 잠든 모습을 우연히 봤을 때는 꽤 성격 좋아 보이기도 했지만, 체중이 한두 파운드는 줄어야 할 판에 오히려 한두 온스라도 늘어난 날에는 체중 기록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모습도 봤다네. 처음에는 같이 산책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 친구의 대화는 온통 자기 몸 상태에만 지나치게 몰두해 있어서, 내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어."

"하지만 자네 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잖아." 내가 래플스에게 상기시켰다. 그러자 그는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아닐지도 모르지. 하지만 치료를 받다 보면 금방 그렇게 될 거야! 버니, 난 마치 아코디언처럼 몸이 꽉 오므라들었다니까. 다시 활짝 펼 수 있을 수 있을지 걱정일 정도야. 알다시피, 그 빌어먹을 곳은 도착하자마자 의사에게 전화를 거는 게 관례거든. 그래서 사냥꾼에게 물어봤더니, 당연하다는 듯 자기 단골 의사를 추천하더군. 자기가 고문할 환자를 확실히 확보하려는 속셈이었겠지. 그 노련한 사기꾼은 10분도 안 되어 달려들더니,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내 상태가 아주 가관이라고 뻔뻔하게 보고하더라고. 심지어 나한테 간 질환이 있다고 말했어! 카를스바트에 가기 전에는 분명 간이 멀쩡했는데 말이

야. 하지만 거기서 간 하나를 덤으로 챙겨왔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맥주잔을 들이켜더니, 마침 막 나온 웨일스 레어빗을 먹기 시작했다.

"금빛이 눈부시군, 아주 황홀할 정도로 말이야." 불쌍한 늙은 래플스가 말했다. "그 교활한 의사 놈이 내가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놈은 나더러 내 건강 상태를 직접 적어 내라고 뻔뻔하게 굴었지. 그런데 내가 쓴 글이 내 사냥꾼 친구가 쓴 것과 너무나 비슷해서, 그놈의 가라앉아 있던 우울함이 그날 저녁 내내 싹 가셨다니까. 우리는 늘 똑같이 지독하게 역한 그 독일 광천수 샘에서 하루치 물 마시기 일과를 시작했고, 배부른 악단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며 똑같은 회랑을 거닐곤 했지.

버니, 이건 농담이 아니야. 농담할 거리도 안 된다고. 진흙 찜질에 퍽퍽한 식사,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드는 금주 약물들까지 전부 내 몫이 될 뻔했단 말이지. 너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실룩거리며 비웃겠지, 안 그래? 내가 말했잖아, 너는 절대 견디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에메랄드 스테이크 경기에 나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래야 내내 의심을 피할 수 있으니까.

사실 나는 그 부분이 너나 내 사냥꾼 친구만큼 괴롭지는 않았어. 그 친구는 어느 날 의사 집에서 정신을 차리려고 브랜디 한 모금만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하다가 기절까지 했거든. 하지만 그 친구가 받은 건 싸구려 마르살라 와인 한 잔뿐이었지."

"그래서, 결국 그 판돈을 다 따낸 거야?"

"당연히 그랬지, 버니." 래플스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중에 떠올려 보니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웨이터들이 듣고 있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는지는 이미 알고 있겠지?"

"치료는 다 끝난 게 아니었나?"

"아니, 다 못 끝냈지. 꼬박 사흘이나 남겨두고 왔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서둘러 떠나야 했는지 설명하느라, 그 잘난 '허풍쟁이 경'과 한바탕 맞붙었지. 그런데 사실, 테디 갈랜드가 막판에 블루를 따내지 못했더라면 난 아직도 카를스바트에 있었을 거야."

E. M. 갈랜드(이튼 출신, 트리니티 칼리지 재학)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위켓키퍼였으며, 래플스에게 큰 도움을 받은 수많은 젊은 크리켓 선수 중 한 명이었다. 두 사람은 어느 시골 저택에서 열린 주간 모임에서 친분을 쌓았고, 그 후 런던 시내에서도 자주 만났다. 갈랜드의 아버지는 런던에 저택을 두고 있었는데, 래플스는 그곳의 단골 손님이었다. 사실 나는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은퇴한 양조업자인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올버니에서 한두 번 마주쳤던 아들에게도 말이다.

그럼에도 래플스와 이 훨씬 어린 청년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갈랜드는 그저 어린 소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갈랜드는 그의 학교 출신들 중 많은 이들이 그렇듯, 나이에 비해 세

상 물정에 밝은 듯 보였다. 그러면서도 지식이나 경험 따위가 결코 더럽힐 수 없는, 천성적인 상냥함과 매력을 샘솟듯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예리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저 청년이 한때 방황하며 거칠게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다. 그리고 래플스가 그 방황의 현장에 끼어들어, 길을 잃은 청년을 붙잡아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를 진정한 블루스(Blues)의 자질을 갖춘 인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적어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래플스만큼 건실한 친구이자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만큼은 확신했다.

내 생각에 아마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내 말에 동의할 것이다. 다만 그들은 내가 아는 만큼의 래플스를 알지 못할 뿐이다. 만약 그들이 래플스를 그토록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전하고 싶다. 결국 그들도 진실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진실이 래플스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깎아내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여운 테디를 로즈 경기장에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 래플스가 설명했다. "게다가 내가 옆에서 부추겨주지도 않으면 안 되잖아! 있잖아, 버니. 지난 8월에 우리가 같이 했던 그 작은 경기들에서 내가 테디한테 한두 가지는 가르쳐줬거든. 난 아이에게 부성애에 가까운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겠군." 내가 넌지시 말했다. "모든 면에서 말이야."

래플스는 계산서에서 눈을 떼고 나를 올려다보며, 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내 말에 그가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글쎄, 내 생각엔 자네가 그 친구를 아주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준 것 같은데."

"버니, 내가 너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래플스가 말했다. 나는 래플스가 웨이터에게 팁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속셈도, 뒤섞인 의도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그 친구에 대해서는 자네가 나한테 꽤나 많이 들려줬잖아."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며 내가 말했다. "예를 들어, 그 친구가 빚이 아주 많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나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걱정했지." 래플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나 해외로 떠나기 전에 그 친구에게 자금을 대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었어. 하지만 테디는 단칼에 거절하더군. 그 혈기 왕성한 젊은 피가 끓어오르는 모양이었지. 말하는 태도 자체는 아주 훌륭했지만 말이야. 그러니 버니,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 그냥 올버니로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모자를 챙겨 입고 코트까지 갖춰 입은 뒤, 현관에서 술리번 담배에 불을 붙이고 밖으로 나섰다. 마치 내가 래플스와 함께 그 집의 공동 주인이라도 된 양 당당한 걸음걸이였다.

"그건 분명 유럽에서 제일가는 그릴이야."

나는 화제를 완전히 돌리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당시 나는 세상 모든 이들과 마음이 통하는 듯한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길 간 거야, 버니."

“하지만 웨이터에게 팁을 주고 모자 보관증까지 받아야 하는 곳의 회원이라니, 자네가 그런 곳의 회원이라는 데 꽤나 놀랐다는 말은 해둬야겠군!”

하지만 래플스가 자기 집을 제 입으로 변호하는 것을 듣고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군." 그가 말을 이었다. "로즈 경기장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구성원이 자기 배지를 직접 보여주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분명히 문지기는 회원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지 않나?”

"천만에! 회원이 수천 명도 넘는걸."

"난 당연히 문지기가 알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난 그가 모른다는 걸 알지."

"자네도 회원인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A. J."

“반대라네, 친애하는 버니. 난 회원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 오히려 잘 알고 있는 셈이지!”

제2장

가장 친밀한 벗

화이트홀로 접어들 때 우리는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른다! 래플스에 대해 내가 가졌던 의구심이 결국 틀렸다는 확신이 들자, 웃음은 더욱 커졌다. 그는 분명 예전의 그 유쾌한 악동 그대로였다. 플랫폼에서 그토록 초췌해 보였던 건, 아마도 그의 엄청난 의지력이 발휘된 기묘한 현상이었으리라. 래플스가 그토록 사랑하던 런던의 가로등 불빛 아래, 마치 연극 무대처럼 푸르스름한 별밤을 배경으로 선 그는 이미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만약 고작 쓴 맥주 몇 잔과 안심 스테이크 몇 조각으로 이토록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평생 양조업자의 친구이자 채식주의자의 적으로 살아가야 할 판이었다.

그럼에도 동행한 친구의 기색에서 진지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특히 그가 테디 갈랜드를 다시 언급하며, 카를스바트에서 떠나기 전 그에게도 전보를 보냈다고 말할 때는 더욱 그랬다. 나는 한편으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만큼 묘한 통증을 느끼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정직한 청년과의 교류가, 나 스스로는 수없이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그 '죄책감'을 래플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최근 우리가 보여준 경박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번만큼은 법을 어기는 삶 속에서도 적어도 나쁜 일은 없을 거라 믿으며 차분한 마음으로 올버니에 도착했다. 안뜰에 들어서자 우리의 좋은 친구인 문지기 배러클러프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래플스 님, 위층에서 손님 한 분이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가 래플스에게 말했다. “갈랜드 씨라고 하시기에 위층으로 모셨습니다.”

"테디!" 래플스가 외치며 계단을 두 칸씩 뛰어 올라갔다.

나는 뒤를 따라갔다. 발걸음이 다소 무거웠다. 질투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밀함이 못마땅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오늘 저녁을 망쳤다는 기분에 휩싸였다. 그리고 신이시여,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 익숙한 방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 광경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마치 잡지 화보에 실려 사람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드는 수수께끼 그림처럼, 아니,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 그림처럼 말이다.

래플스는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는 소년 같은 장난기가 가득 담긴 몸짓이었다. 글을 쓰던 젊은 갈랜드는 등 뒤에서 자신의 이름이 갑작스럽게 울려 퍼지자, 책상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보여준 자연스러운 반응 중 마지막이었다.

그는 래플스의 손을 맞잡으려 다가오지도 않았고, 반가운 미소를 지어 보이지도 않았다. 한때 구이도의 그림 <새벽> 속 포이보스처럼 건강한 분홍빛과 구릿빛 피부, 그리고 맑은 호박색을 띤 헤이즐넛 빛 눈동자를 지녔던 그 싱그러운 얼굴은 이제 온데간데없었다. 생기 넘치던 분홍빛은 우리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고, 구릿빛 피부는 병적인 황색으로 변해 있었다. 테디 갈랜드는 마치 책상에 몸이 붙어버린 듯, 뒤

에 있는 책상 모서리를 온 힘을 다해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햇볕에 탄 손등 위로 상아처럼 하얗게 질린 그의 손가락 마디가 눈에 선하다.

"대체 뭐야?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래플스가 다그치듯 물었다. 처음 인사를 건넬 때만 해도 그에게선 소년을 향한 애정이 묻어났다.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에는 여전히 농담 섞인 다정함이 남아 있었으나,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하자 그 온기는 금세 사그라들었다. 나는 그동안 문턱에 서서 막연한 공포를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래플스는 나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더니 불을 더 밝게 켰다. 환한 불빛이 죄책감과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눈부신 빛 속에서도 꿋꿋하게 맞서고 있었다. 래플스는 우리 뒤로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더니, 성큼성큼 책상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내뱉은 첫 마디를 굳이 일일이 옮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가랜드라는 젊은이가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 알면 충분하리라. 그는 갈색 가죽 표지에 'A. J. 래플스'라는 이름이 금색 대문자로 새겨진 통장에서 훔쳐낸 옛 수표를 보고, 래플스의 수표책에 옮겨 적느라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래플스가 은행 계좌를 만든 건 바로 그해였다. 그는 수표책을 늘 아무 데나 내버려 두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함으로써, 수표책에 적힌 주의 사항들을 철저히 무시하겠다고 내게 말하곤 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버니는 친구의 모습만 보고도 그가 범죄를 꾸미고 있음을 확신했다. 메모지 한 장이 연습 삼아 휘갈겨 쓴 서명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래플스는 여전히 반항적인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그 불쌍한 청년을 향해, 무한한 연민이 담긴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가엾은 친구 같으니!" 그가 내뱉은 말은 그게 전부였다.

그 순간, 상심에 빠진 소년의 입에서는 쉰 목소리를 내는 노인의 떨리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냥 나를 넘겨주고 끝내면 안 되겠나?" 그가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굳이 직접 나를 고문해야겠단 말인가?"

한마디 거들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정말 애를 먹었다. 그 친구에게 질문 따위는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하지만 래플스는 그저 그가 이 일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았는지 물었을 뿐이었다.

"맹세코 아니야, A. J.! 정말이야, 네게 편지를 쓰러 올라온 것뿐이라고!" 가랜드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다.

"굳이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네." 래플스가 정말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네 말이라면 나에겐 충분하니까."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그렇게 말해주다니,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상대방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하며 내뱉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어." 래플스가 안심시키듯 말했다.

"정말 그랬나요? 확실합니까? 지난달에 당신이 내게 수표를 건넸고, 내가 그걸 거절했던 건 분명히 기억하고 있겠지요?"

"그럼, 당연히 하고 있지!" 래플스가 외쳤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진심 어린 활기로 가득했는지, 식사 자리에서 내게 그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그가 왜 저토록 눈에 띄게 안도하는지, 그리고 내 눈에는 오히려 죄를 더 무겁게 만드는 상황이 왜 그에게는 참작될 만한 사정이 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때 거절했던 게 내내 후회됐어요." 젊은 가랜드가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땐 실수였지만, 하필 이번 주가 되니 비극이 되어버렸군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곧 말씀드릴게요. 어젯밤 당신의 전보를 받았을 때, 마치 비참한 내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은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엔 다른 사람을 찾아가려 했지만, 대신 당신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인데, 한 달 전 당신의 그 큰 제안을 거절하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오늘 밤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때 당신은 여기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기차는 제시간에 잘 도착했고, 내일 아침 전까지는 다른 기차도 없다고 하더군요. 내일 아침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로 경기 날이고요."

가랜드는 래플스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채고는 말을 멈췄다. "하지 마세요, 래플스. 난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는 새삼스러운 괴로움에 젖어 덧붙였다.

하지만 래플스는 이미 탄탈로스(술병 보관함)의 자물쇠를 연 뒤였다. 그는 구석 찬장에서 사이펀을 찾아냈고, 죄책감에 젖은 청년에게 아주 노란빛이 감도는 술 한 잔을 건넸다.

"좀 마셔둬." 그가 말했다. "안 그러면 네 말은 한마디도 더 안 들을 테니까."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난 파멸하고 말 거야. 정말이라니까!" 래플스가 고개를 저어 보이자, 불쌍한 친구는 나를 돌아보며 간곡히 호소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테고, 그리고, 그리고……."

그가 절망에 빠져 말을 멈추었을 때, 나는 그가 더 끔찍한 이야기를 꺼내려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이 안으로 침잠한 것인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우리 두 사람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래플스가 제때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혹시 몰라 흔적을 남기러 온 것뿐이라네." 그가 내게 말했다. "저 책상에 자리를 잡아준 건 바로 포터 본인이었어. 내가 그전까지 몇 번이나 찾아왔었는지 그에게 물어보면 알 걸세. 그러다 바로 코앞에 있는 칸에서 자네 수표책을 발견했지, 래플스. 낡은 수표들이 잔뜩 끼어 있는 자네 통장도 함께 말이야."

"내가 돌아와서 직접 써줄 여유가 없었으니, 당신이 대신 써준 셈이군." 래플스가 말했다. "그거 참 잘한 일이야!"

“비웃지 마세요!” 소년이 외쳤다. 잃었던 혈색이 얼굴로 확 돌아왔다. 소년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내 엄숙한 표정이 친구의 경쾌한 동정보다 소년에게는 훨씬 덜 아프게 느껴지는 듯했다.

"웃는 게 아니야, 테디." 래플스가 다정하게 대답했다. "내 평생 이보다 진지했던 적은 없었어. 네가 그런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찾아와 준 건 친구로서 당연한 일이었지. 하지만 내가 제때 나타나지 못해서 네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대신, 차라리 내 뒤에서 몰래 돈을 빌려 간 건 정말 진정한 친구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 아무리 고개를 가로저어도 소용없어. 난 그 어떤 찬사보다도 네 행동이 더 고맙거든."

노련한 논객인 래플스는 특유의 화술을 발휘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솜씨가 워낙 기가 막혀서, 조금만 덜 불행한 죄인이었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그리 명예롭지 못한 일은 아니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젊은 가랜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지도, 그렇다고 변명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만큼 결백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토록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강한 어조로 고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그의 후회에는 어딘가 진실하고 순수한 구석이 있었다. 래플스와 내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바로 그 순수함 말이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가랜드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그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범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을지언정, 확실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긴 했다. 그것은 자애로운 아버지를 둔 탕아의

전형적인 이야기였다. 내 짐작대로, 래플스의 영향력 덕분에 이미 어느 정도 잠재워진 젊은 날의 방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래플스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무모한 낭비도 많았다. 난봉꾼이란 으레 자신이 악당이라는 사실은 쉽게 털어놔도 바보라는 사실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법이라, 래플스가 잘 몰랐던 것도 당연했다. 요컨대, 가랜드는 아버지의 너그러움에 기대어 살아가려 했으나, 정작 아버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셈이었다.

"뭐라고!" 래플스가 외쳤다. "그자가 그런 집을 떠맡고 있단 말인가?"

"당신이 놀랄 줄 알았어요." 테디 가랜드가 말했다. "나조차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가 자세한 사정까지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 뒤로는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털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수표를 써주셨지만, 그게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눈에 선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께 단 한 푼도 손 벌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럴 겁니다!"

소년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들이켰다. 목소리가 떨렸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잠시 멈춰 서서 담배에 다시 불을 붙였다. 방금 피우던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꺼져버린 탓이었다.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술은 초조하게 달싹였다. 금발의 젊은 얼굴에 서린 그 예민하면서도 절박한 기색에, 나는 래플스가 성냥불을 불어 끄고 고개를 돌릴 때까지 차마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라면 더 나쁜 짓도 저질렀을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랬고요! 그것도 천 배는 더 심하게요!" 테디가 말했다. "유대인들에게 손을 댔어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죠. 갚아야 할 명예 채무가 계속 늘어났고, 그걸 메우려고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200~300파운드 정도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시겠지만,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그 악마 같은 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아주 작은 액수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결국 300파운드를 빌리면서 456파운드짜리 약속 어음을 썼습니다."

"고작 50퍼센트라니!" 래플스가 말했다. "그게 연이율이라면 당신은 아주 싸게 먹힌 거야."

"잠깐만! 그건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인 방식이었어. 456파운드를 매달 20파운드씩 나누어 갚기로 했거든. 난 여섯 번째 할부금이 돌아올 때까지 아주 성실하게 돈을 냈단 말이야. 그게 마침 크리스마스 직후였는데, 원래 연말에는 다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하루 이틀 정도 늦었을 뿐이야. 딱 그 정도였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내 수표가 거절당하더니, 그놈의 남은 잔액 전부를 당장 즉시 갚으라는 거야!"

래플스는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에게는 타고난 재능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무기인, 무서운 집중력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들려오는 말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법대 위에서 엄숙하게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처럼 지독할 정도로 진지했다. 만약 그의

성품에 깃든 그 기묘한 뒤틀림만 아니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미래의 모습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약속어음 금액은 456파운드였지.” 그가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청구된 금액은, 자네가 이미 지불한 100파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달라는 것이었나?”

"바로 그거야."

"대체 뭘 한 거야?" 내가 물었다. 사건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래플스만큼은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할부금만큼만 가져가라고 했어. 나머지는 그냥 엿이나 먹으라고 말이야!"

"그들은요?"

"이번 주가 되기 전까지는 이 일에 손도 안 대고 완전히 손을 떼놓고 있다가, 막상 이번 주가 되자마자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

"거의 천 파운드에 육박하겠군." 잠시 생각에 잠겼던 래플스가 말했다.

“말도 안 돼!” 내가 외쳤다. 가랜드 역시 깜짝 놀란 기색이었다.

“래플스는 그 일에 대해 전부 알고 있네.” 그가 말했다. “실제 금액은 700파운드였어. 돈을 마련한 날 이후로 그 건달들과는 거리를 두어

왔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직접 가서 따지고 왔네. 게다가 700파운드 중 절반은 1월 초부터 오늘까지 밀린 연체 이자라네. 이거 참, 어이가 없지 않은가!"

"그 제안에 동의하셨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지만, 약속어음에는 아주 명백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래 약속한 이자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주 1실링당 반페니를 추가로 더하기로 말입니다."

"당신의 약속어음에 인쇄된 겁니까, 아니면 직접 쓰신 겁니까?"

"인쇄되어 있었어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아주 작은 글씨였죠. 하지만 그 빌어먹을 채권에 서명할 때 읽을 수 있을 만큼은 됐습니다. 사실 읽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반 페니라니! 그게 그렇게 불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불어났어요. 사실인 거죠. 요점은 이겁니다. 내일 정오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를 불러서 대신 갚아 주실 건지, 아니면 당신 코앞에서 제가 파산하는 꼴을 보실 건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오라니, 하필 경기가 시작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놈들도 당연히 그걸 알고 저를 압박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최후통첩까지 날아왔더군요. 이게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

"어차피 오려고 했네. 차라리 그전에 내 손으로 목숨을 끊는 게 나았을 텐데!"

"이보게 친구,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였다고. 테디,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지만 젊은 가랜드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는 다시금 자신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비통하게 털어놓던 그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마음속 응어리를 쏟아내며 잠시 생기를 띠었던 얼굴도, 이야기를 꾸며내던 소년 특유의 거침없는 말투도 어느덧 사라져 버렸다. 그의 입술에서도 활기는 죽어 있었다. 그는 다시 절망과 타락의 고통 속에 빠진 영혼이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태도와 몸짓에서 비굴함이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는 그 깊은 수렁에 완전히 침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런 회복의 순간, 그는 가련해 보였으나 결코 경멸스럽지는 않았으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를 통해 래플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자질들을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비열한 몰락으로도 결코 파괴되지 않을 타고난 고결함, 그리고 일시적인 불명예 따위로는 결코 흐려지지 않을 본연의 찬란한 정직함이 그에게 있었다. 그를 지켜보던 나머지 두 사람의 눈에도 그 자질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 가랜드에게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지켜주겠노라 다짐하고 있었다.

나 역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 어쩌면 평소와 달리 읽기 쉬워진 그의 얼굴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옆모습이 그토록 날카로웠던 적도, 내가 아는 한 표정이 그토록 온화했던 적도 없었기에, 그 선명한 얼굴을 보며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지?" 래플스가 마침내 물었다.

"정말이지 딱 하나뿐이야."

"그의 이름을 맞혀보라는 건가요?"

“아니요, 말씀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댄 레비라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지!" 래플스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다. "위대한 샤일록께서 드디어 위용을 드러내셨군!"

테디가 두 손으로 가리고 있던 얼굴을 홱 떼어냈다.

"그 사람을 아는 사이인가요?"

“그를 아주 속속들이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사실 그를 처음 만난 건 해외에서였어.”

테디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그를 충분히 잘 아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를 만나보죠. 하지만 그동안 납부하신 각 분할 납부금의 영수증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내용이 담긴 그 편지도 함께 말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가랜드가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물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짓은 안 할 거지, 테디! 그 노인네 같은 악당 때문에 네 눈이 다치는 꼴은 절대 못 봐. 밤을 꼬박 새우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말이야. 자, 친구, 지금 어디 머물고 있어?"

"아직 어디에도 없어요. 장비는 클럽에 두고 왔거든요.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바로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장한 친구로군! 자네는 여기 남게."

"이보게, 그건 도저히 안 될 말이야." 테디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네. 일단 여기 머물게나. 게다가 당장 방으로 들어가서 쉬어야겠어.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해 줄 테니 걱정 말게. 자네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바라클로가 짐을 다 옮겨다 줄 걸세.”

"하지만 래플스, 자네 침대는 없는 건가?"

“내 것을 가져가게. 난 거의 잠자리에 들지도 않으니까. 안 그래, 버니?”

"거기서 당신을 본 적은 거의 없군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어젯밤 내내 이동 중이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까지도 줄곧 이동했지. 난 기차에서는 늘 잠만 자거든." 래플스가 말했다. "하루 종일 눈 한번 거의 안 떴거든. 오늘 밤에 자려고 누워도 눈이 안 감길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잠자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래플스가 외쳤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밝혔다.

"정말 미안하게 됐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말이야." 젊은 가랜드가 내게 몸을 돌리며 속삭였다. 마치 우리가 이제는 아주 오래된 친구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네." 내가 마음을 담아 말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잘 아니까."

가랜드는 여전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래플스가 작은 병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래플스는 병을 기울여 작고 검은 알갱이들을 왼쪽 손바닥 위로 털어 넣고 있었다.

"테디, 깨끗한 침구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그가 말했다. "자, 이 약을 두 알 먹고 위스키도 한 잔 더 들이켜게. 그럼 10분 안에 잠들 거야."

"그게 대체 뭡니까?"

"솜놀(Somnol)이라네. 요즘 가장 유행하는 건데, 성능도 아주 끝내주지."

"하지만 그놈들이 내 머리를 아주 박살 내놓으면 어쩌지?"

"전혀 그렇지 않아. 자고 일어나서 10분만 지나면 몸이 아주 가뿐해질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 11시 전까지는 여기서 나갈 필요도 없어. 자네도 네트에서 연습 한 번 칠 생각은 없을 테니까, 안 그래?"

"나도 한 번 연습해 둬야 하는데." 테디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래플스는 코웃음을 치며 그를 비웃었다.

"이보게, 자네는 점수나 올리라고 뛰는 선수가 아니야. 그러니 저 손에 자네의 운명을 걸 만큼 위험한 도박은 하지 말게나. 내일 자네 손이 잡아내야 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또 흘려보내선 안 될 '바이(byes)'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보란 말일세!"

래플스는 환자가 채 알아차리기도 전에 아편 성분이 든 약을 먹였다. 그러고는 곧바로 나와 악수를 나누더니, 바로 다음 순간 등불을 끄러 방 안으로 들어갔다. 래플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옆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리지 않도록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밤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맑았다. 올버니 안뜰 위로 펼쳐진 별이 박힌 하늘은, 두 시간 전 래플스와 내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보다 푸른 빛이 아주 조금 덜할 뿐이었다. 피카딜리의 소음은 마치 서리가 내린 겨울밤처럼 선명하게 귓가에 들려왔다. 와인과 샴페인이 절로 생각나는

밤이었다. 로즈 경기장에서 보낼 낮 시간은 분명 신들의 음료인 넥타처럼 달콤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과연 E. M. 갈랜드처럼 무거운 마음을 짊어진 채 강제로 잠에 들러 가는 이가, 대학 대항전 경기에 출전한 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토록 고뇌에 찬 영혼이 래플스와 나처럼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두 명의 고해 신부를 동시에 만난 적이 과연 있었을까?

제3장

전시 회의

환상적인 밤의 여운을 뒤로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래플스는 무언가 흥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알아채기에는 너무나도 고상한 곡조였다. 접이식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옆에 놓인 괘종시계는 자정 직전임을 알리고 있었다. 래플스는 나를 위해 노래를 멈춰주지는 않았지만, 사이펀과 디캔터를 가리키며 술을 더 따르라는 몸짓을 보냈다. 나는 잔을 채웠다. 평소와 달리 그의 곁에도 잔이 하나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지는 않았다. 래플스는 도무지 가만히 있질 못했다.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열정적으로 바꿔 놓은 그림 두 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홀리어 씨가 그린 와츠와 번 존스의 멋진 그림들이었는데, 전에는 래플스가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자신이 걸어둔 자리에 그림이 걸려 있어야 한다는 듯이 굴었고, 이번만큼은 그림들이 똑바로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들도 누군가의 선의 덕분에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책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는 기록물과 신비로운 물

건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검토하느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접이식 문 앞에서 잠시 기다리던 그가 안쪽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을 때도,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콧노래가 맴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와 문을 소리 나게 닫으며 들어왔을 때, 비로소 콧노래가 멈췄다. 그의 얼굴은 밤새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엄숙하고 굳어 있었다.

"그 친구,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구덩이에 빠져 있어.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를 끌어올려야 해. 이건 우리에게 분명한 기회야, 버니!"

"생각했던 것보다 구멍이 더 큰가요?" 내가 물었다. 사실 나는 애써 엿듣지 않으려 했던 그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야, 버니. 하지만 그 영감님까지 같은 곤경에 처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건 나도 정말 이해가 안 돼. 켄싱턴 한복판의 번듯한 저택에 단둘이 살고 있잖아. 어쨌든 테디한테 그 돈 문제로 영감님을 찾아가진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해봤자 입만 아프지."

분명 접이식 문 너머에서 나누던 대화 내용이 그것이었으리라. 다만 래플스가 그 말을 어찌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그 모습이 내 눈에는 조금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럼 다른 데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굳힌 건가?"

"저 안에 있는 녀석이 눈을 뜨기 전에 말이야."

"벌써 잠든 건가?"

“죽은 사람 같군.” 래플스가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그러고는 술을 한 모금 들이켰다. “우리가 깨우기 전까지는 계속 저 상태겠지. 버니, 꽤 까다로운 실험이 되겠지만, 그래도 첫 한 시간 동안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게 밤을 꼬박 새우는 것보다는 나아. 나도 둘 다 겪어봤으니 잘 알지. 내일 그가 오히려 평소 실력 이상으로 잘 해낼지도 모르겠어.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흔히 그러곤 하니까. 그럴 땐 지나치게 의욕이 앞서서 일을 그르치는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거든. 과한 의욕이 제 발등을 찍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런데 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니, A. J.?"

"내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다고 그에게 믿게 한 것보다 그리 나쁘진 않아."

"하지만 정말 깜짝 놀라셨겠군요?"

"우리 중 가장 선한 이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악행에 대해서는 이제 놀랍지도 않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 부유한 자가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정직한 자가 악당 노릇을 하기도 하니까. 우리 모두는 그 어떤 망할 짓거리라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들이야. 하지만 운 좋게도, 그리고 테디 덕분에 우리가 제때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자고."

"왜 하필 그 순간이었습니까?"

래플스는 채 다 쓰지 못한 수표를 꺼내더니, 그것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고는 수표를 내 쪽으로 휙 던졌다.

“세상에, 저렇게 유치한 수작이 또 있을까? 경찰을 부르는 동안 은행에 그를 붙들어 두었어야지. 버니, 자네가 이 게임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내가 옆에서 좀 가르쳐줘야겠어.”

"하지만 이건 당신이 즐기던 게임이 아니었잖아, A. J.!"

“한두 번은 우연히 그랬지만, 딱히 흥미가 생기지는 않더군.” 래플스가 말했다. 그는 피어오르는 연기를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더 이상 기울어진 탑처럼 보이지 않는 황금 계단 위의 소녀들에게 왕관처럼 씌워 주었다. “아니, 버니. 위조범으로서 내 화려한 경력이라 해봤자 학창 시절에 가끔 학교를 빼먹은 정도뿐이야. 물론 그게 불길한 징조였다는 건 인정하지만 말이야. 지금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내가 일부러 수표책을 아무 데나 던져두었던 게 기억나나? 신문을 통해 내가 죄를 짓는 대신 오히려 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평생 정직한 사람으로 대접받았을 텐데 말이야. 하느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불쌍한 노인 바라클로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더군. 그런데 감히 ‘내 영혼을 의탁했던 친구’라니! 내가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지만 말이야, 버니. 내가 이 친구를 아무리 아낀다 해도 말이지.”

방금 전의 말은 꽤나 긴박한 어조였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는 예전의 래플스였다. 내가 여전히 가장 잘 아는, 날카롭고 냉소적인 그 옛날의 래플스 말이다. 무례할 정도로 거침없는 인용구를 내뱉고 경쾌한 재치를 부리던 바로 그 래플스였다. 이 시절의 래플스는 말의 절반만

진심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대개 행동으로 옮기곤 했다! 나는 그가 혹시라도 그날 밤 어디론가 침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싶어, 그가 즐겨 보는 『휘태커(Whitaker's)』를 인용해 해가 3시 51분에 뜬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그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덕분에 나는 래플스를 미소 짓게 만드는 영광을 누렸다.

"나도 생각은 해봤어, 버니."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이 정도 거금을 털려면 품위 있게 털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뿐인데, 우리 샤일록 씨의 저택은 카이사르가 행차 중에 마주쳤다 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법한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 그곳은 '테스투도' 같은 방어 진형을 짜고 덤벼야 할 만큼 삼엄한 곳이야. 버니, 나도 거기 가봤다는 걸 잊지 마. 고대 유적에서 '고대와 현대'로 건너뛰는 격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가 머무는 '이동식 천막'만큼은 직접 가봤다고. 내가 느꼈던 것처럼 그곳이 그렇게 난공불락이었다면, 그의 본거지는 그야말로 철옹성이나 다름없을 거야!"

"래플스, 그 이야기는 꼭 해줘야겠어."

그의 변화무쌍한 비유에 슬슬 지쳐버린 내가 말했다. 위험한 일이 없을 때라면 그가 아무리 비유를 늘어놓든 상관없었다. 그럴 때면 나는 밤이 깊든 새벽이 오든 그를 기쁘게 경청해 주는 행운의 청중이 되어주곤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범죄를 다룰 때만큼은 화려한 불꽃놀이보다는 그의 명석한 두뇌가 비추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등불이 필요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순간에 그는 늘 화려한 불꽃놀이를 선보이곤 했다.

“아, 다 말해주고말고.”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몇 주간의 일보다 앞으로 맞이할 몇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 물론 돈을 빌리는 데는 샤일록 같은 사람이 제격이겠지만, 우리 동족들의 생리를 잘 아는 내가 보기엔, 일단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처럼 정직하게 빌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럼 다시 갚아야 할 빚이 생기는 셈이군."

"그 구두쇠가 만약 돈이라도 좀 가지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 '햇빛 한 줌 안 드는 구두쇠의 금고'를 털어버릴 결정적인 순간이야. 그게 가능한지는 그때 가서 확인해 보자고."

“하지만 그가 밤새도록 사무실을 열어두지는 않잖아요.” 내가 반박했다.

“하지만 거긴 아침 9시에 문을 열어.” 래플스가 말했다. “망치질당하느니 차라리 피를 뽑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른 시간의 주식 중개인들을 상대하려거든 말이야.”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들의 샤일록 부인이지."

"그녀와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겠군요?"

"비밀을 캐내려는 마음보다는, 차라리 동정심 때문이었지."

“하지만 당신은 비밀이 숨겨진 곳까지 직접 들어갔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녀는 그것들을 통째로 넘겨주고 말았어."

“그녀라면 당신에게 그러고 싶어 할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곧 벌어질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내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

"샤일록 대 사실(Fact)?"

"그래. 알다시피 그 재판은 휴정기 전에 열릴 예정이거든."

"신문에서 봤거든요."

"하지만 버니, 자네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고 있지?"

"아니, 안 그래."

"또 다른 노련한 악당이 나타났군. 하티푸르의 마하라자라는데, 그가 진 빚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할 정도라네. 우리 '샤일록' 선생의 손아귀에 수년째 붙잡혀 있는 모양인데, 살점을 떼어가는 대신 빚의 액수만 계속 불리고 있다더군. 물론 고리대금업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지만, 이제는 그 액수가 여섯 자릿수(수십만 파운드)를 훌쩍 넘었다고 하네. 그 이교도 노인네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듣기로는 세포 항쟁 전에는 나나와 절친한 사이였다는데, 항쟁 중에는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서야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하니까. 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자면 둘 다 똑같은 부류긴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흑인 마하라자의 채권을 사들여 적당한 이자를 챙기려는 투자 연합이 실제로 결성되었다는 건 사실이라네. 다만 항상 그 더러운 백인들이 연합보다 한발 앞서 이득을 가로채곤 하지. 이번에는 연합이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늙은 레비가 그 흑인을 꼬드겨 또 다른 동양식 사치에 빠뜨리고 말았어. '팩트'지가 이 모든 내막을 폭로하면서 협박 편지들을 실어버렸는데, 샤일록은 그게 위조된 것이라고 잡아떼고 있네. 한마디로 그게 양쪽 사건의 전말인 셈이지! 거기다 그 거머리 같은 자들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유대인에게 올해는 반드시 카를스바트 요양을 다녀와야 한다고 부추겼다더군. 요양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테니, 그가 돌아오자마자 채무자들을 독촉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계산이지."

"그렇다면 그가 왜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난 새로운 고객이야, 버니. 그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든다고. 그때 우린 거기서 아주 좋은 친구였잖아."

“하지만 당신과 샤일록 부인은 훨씬 더 좋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버니! 내가 팔을 빌려주며 곁을 지켜줄 때면 그녀는 자기 고민을 털어놓곤 했다고. 나는 아주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정성껏 연기해 줬지. 하지만 내 사냥 친구는 헤비급 선수니 도축장 얘기니 하며 아주 거친 비유를 늘어놓더군."

"그런데 그 불쌍한 영혼의 목걸이를 당신이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까?"

래플스는 팔꿈치 옆 탁자에 놓인 다 타가는 담배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극적인 선언이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씩 빨아들일 때마다 일렁이는 성냥불 사이로 말을 이어 나갔다.

“아니야, 버니. 난 정말 안 그랬어!”

"하지만 에메랄드 스테이크스에서 우승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그랬지, 버니. 하지만 다시 돌려주었어."

"그녀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었듯, 당신도 그녀에게 정체를 들킨 건가요?"

“바보 같은 소리 마, 버니.” 래플스가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말했다. “지금 당장 전부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핵심만은 알려주지. 그놈들은 카를스바트에 있는 사보이 호텔에 머물고 있어. 나는 펍스 호텔에 묵지. 거기서 만나면 그놈들은 나를 빤히 쳐다볼 거야. 그러면 나는 지난번 다른 사보이 호텔 사건 때 보여준 그 겸손한 영웅의 모습으로 돌아가, 영국 신사다운 껍데기를 푹 쓰고 나타나는 거지. 나는 내가 묵는 호텔을 깎아내리고, 그놈들은 자기네 호텔이 최고라며 장담할 거야. 그러다 나는 그놈들의 객실을 구경하러 가겠지. 그러고는 바로 위층인 2층에, 그놈들과 똑같은 구조의 방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거기라면 그 늙은 돼지 같은 영감이 진흙 찜질팩을 뒤집어쓴 채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릴 정도니까! 두 객실

모두 발코니가 있는데, 마치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단 말이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

"당신이 의심받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의아할 정도군요."

“버니, 자네의 그 놀라워하는 능력은 정말 끝이 없군. 일부러 낡고 보잘것없는 옷가지 몇 벌을 챙겨서 멀쩡한 정장 안에 정성껏 싸 두었지. 게다가 운 좋게도 숲속에서 어떤 농부가 내버린 지저분한 독일식 모자까지 하나 주웠다네. 그저 명함처럼 슬쩍 남겨둘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뭐, 다음 날 아침 그 동네에서 제일가는 이발사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준비도 안 된 연출이 한바탕 몰아친 셈이지. 그래서 내가 다시 그 노회한 샤일록을 상대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는 거야. 버니, 난 그를 강철 같은 적수라고 생각하며 높게 평가해. 그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판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겨뤄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내 몸을 던지기 전에, 우선 그 경기장의 상태가 어떤지부터 파악해야겠어.”

"그들과 차도 마시고, 그런 식의 시간을 보냈겠군요?"

"기슈블러!" 래플스가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분명 차를 마시는 동안만큼은 버텨줬단 말이야. 떠나기 전에는 그 작은 초록색 램프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구석에 칠을 입힌 서류함이 하나 있었거든. '저게 바로 에메랄드 아일랜드구나'라고 생각했지. 곧 바다에서 건져 올릴 수 있을 거라 믿었어. 런던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노인이 그

보석들을 그 노부인에게 맡겨둘 리가 없잖아. 보석이 어딘가에 있다는 건 굳이 말 안 해도 알았어. 그 비극적인 희극 같았던 카를스바트 호텔 저녁 식사 때조차 노인은 부인에게 그 보석을 착용하게 했으니까."

래플스는 이제 말을 아끼는 법을 잊은 듯했다. 그는 옆방에 있는 소년의 존재도,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도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오직 나를 위해 다시 재현하고 있는 그 숨 가쁜 사투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어두운 밤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거실 발코니에서 아래층 발코니로 어떻게 미끄러지듯 내려갔는지 들려주었다. 결국 내 에메랄드들은 칠을 한 상자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래플스가 그 사실을 확신한 바로 그 순간, 접이식 문이 "마치 이럴 것처럼" 스르르 열리더니, 댄 레비가 "으스대는 실크 잠옷 차림"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를 보며 문득 경외심마저 들더군." 래플스가 말을 이었다. "그가 즐기는 게 진흙 목욕뿐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 얼굴은 여느 때처럼 험악했지만,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고 나는 아니었어. 그런데도 그는 마치 내가 총을 쏠 기회조차 없다는 듯, 아니 내가 쏠지 말지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나를 소매치기 취급하며 몰아세우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권총을 그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공이치기를 끝까지 당겼어. 세상에, 버니, 내가 너무 세게 당겼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 그래도 그 덕분에 그가 눈을 좀 깜빡이더군. 그제야 안심하고 총을 내렸지. 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알아듣기 힘든 낮은 독일어로 '에메랄드를 내놔'라고 말했어. 당연히 내 모습은 얼굴을 검게 칠한 비열한 악당 그 자체라 전혀 못 알아봤을 거야. 그랬더니 그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알 바 아니야'라고 대꾸하더군. '목걸이를 내놓

으란 말이다’라고 독일어로 다시 말했더니, 그는 ‘지옥에나 가라’고 쏘아붙였어. 나는 스스로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고개를 저었고,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고개를 끄덕였지. 그는 내 면전에서 비웃더군. 정말이지 팽팽한 대치 상태였어. 그래서 나는 시계를 가리키며 손가락 하나를 치켜세웠지. 그때 문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이 자식이 총을 쏠 배짱이 있다면, 나한테 남은 시간은 딱 1분뿐이야. 하지만 그놈은 그럴 배짱이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왜 다른 길로 나가서 집안 식구들을 깨우지 않는 거야?’ 버니, 그 말이 결정적이었어. 그 노인만큼이나 용감한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내 왼손에 목걸이를 덥석 쥐여주었거든. 거절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용기가 안 나더군. 그러자 그 노인네는 할머니를 쥐새끼처럼 흔들어댔어. 나는 다시 그에게 총을 겨누며, 만약 앞으로 2분 안에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면 ‘ein toter Englander’가 될 거라고 독일어로 욕설을 퍼부었지. 이건 미리 연습해 둔 대사였어. ‘죽은 영국인’이라는 뜻이지. 결국 나는, 그가 할머니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고귀한 할머니가 그에게 매달리게 만들어 놓은 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네!”

나는 폐부 깊숙이 숨을 내뱉으며 잔을 비웠다. 래플스도 한 모금 들이켰다.

“하지만 그 밧줄은 A. J., 당신의 발코니에 묶여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선 줄의 다른 한쪽 끝을 그들 쪽 줄에 단단히 묶어 두었습니다. 안전하게 위로 올라가자마자 제 쪽 줄을 풀어 바닥으로 멀리 떨어뜨려 버렸죠. 그들이 함께 밖으로 달려 나왔을 때는 줄이 공중에 대

롱대롱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밤을 고르는 일에서는 제대로 된 공을 골라냈죠.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공은 아주 바싹 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호텔 사람들 틈에 섞여 자갈밭에 남았을지도 모를 불가능한 발자국을 찾으려 애쓰는 척했습니다.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를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발로 짓밟는 연기도 잊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장담컨대 아무도 없었죠. 제 이야기를 듣다가 지루해서 견디지 못한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훔친 물건을 다시 돌려놓는 거야? 래플스, 네가 자주 쓰는 수법이라는 건 알지만, 이번 건은 달라. 상대가 그런 돼지 같은 놈이라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

“버니, 자네는 그 불쌍한 노부인을 잊었군. 그분은 예전에 개 같은 삶을 사셨어. 그가 준 콩 따위는 개에게 주기도 아까운 수준이었지. 나는 그에게 맞서던 노부인의 용기가 정말 좋았네. 나에게 맞서던 그의 허세보다 훨씬 값진 용기였지. 그분에게 돌아갈 보상은 단 하나뿐이었고,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었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낸 거야?"

"대중 앞에 나서서 하는 방식은 아니야, 버니. 그렇다고 그 노부인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토끼 굴'로 유인하는 방식도 아니고 말이야!"

"익명으로 목걸이를 돌려준 모양이군?"

“천박한 독일인 좀도둑이라면 분명 그렇게 했겠지! 아니야, 버니. 난 그 물건을 누군가 반드시 발견할 만한 숲속에 일부러 갖다 놓았어. 그러고 나서 나쁜 놈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봐야만 했지. 다행히 샤일록 씨가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둔 덕분에 결국 모든 게 제대로 풀렸어. 그는 자기 주치의를 지옥에나 가라며 내쫓아 버렸고, 물건을 되찾은 날 밤에는 축하의 의미로 고기와 술을 잔뜩 내놓았지. 사냥꾼 양반도 나랑 같이 축하 만찬에 초대받았지만, 난 식단을 고집하며 입도 대지 않았어. 그 양반도 내가 안 먹으니 민망했는지 결국 따라 하지 않더군. 그 일로 우리 사이가 좀 서먹해졌어.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말하던 그 거창한 만찬은 영 못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살아있는 무덤에서 돌아온 걸 축하하며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 정체 모를 여우 사냥꾼에게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댄 레비는 상대하기 아주 까다로운 놈이야." 마침내 내가 입을 뗐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야, 버니. 바로 그 점 때문에 내가 그를 상대하기를 그토록 고대했던 거기도 하고. 아마 이런 갈등이야말로 저 싸구려 신문들이 말하는 '호메로스적 대결'이라 부를 만한 종류가 되겠지."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건가, 아니면 빚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닥칠 때를 걱정하는 건가?"

“훌륭해, 버니!” 래플스가 외쳤다. 마치 내가 그의 배트를 휘둘러 멋진 안타라도 친 것처럼 말이다. “이 새벽녘이 우리를 얼마나 생기 있게 만드는지!” 그는 커튼을 젖혔다. 창문은 마치 아이들이 줄을 그어놓은 석판처럼 보였다. “우리가 밤새 떠든 바람에 별들이 지쳐서 하늘에서 다 사라져 버린 게 보이지? 감미로운 문체로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도 밤을 새우는 타입은 아니었나 봐. 만약 그랬다면 우리 방식대로 해를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자랑하지는 못했을 테니까. 그 노인네들도 이런 즐거움을 놓치고 말았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질문에 답을 안 하셨잖아요." 나는 체념한 듯 말했다. "게다가 애초에 그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지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요."

"버니, 만약 자네가 설리번을 한 대 더 피우고 싶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약하게 한 잔 더 섞어 마시고 싶다면, 지금 미리 말해두겠네." 래플스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내게 말해 주었다.

제4장

"우리들의 샤일록 씨"

래플스가 우리가 결국 실행에 옮긴 그 계획을 대화의 어느 순간, 혹은 어느 단계에서 떠올렸는지 나는 종종 궁금해하곤 했다. 그가 밤 8시쯤 도착한 뒤로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실제로 행한 일

은, 새벽 2시와 3시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과 일치했다. 딱 하나,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했던 부분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 일에 대해서는 때가 되기 전까지 말을 아끼는 편이 나을 것이다.

래플스의 선견지명과 상상력은 분명 그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보다 한발 앞서 나간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그의 아이디어는 듣는 이가 확연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어 갔다. 희미한 생각으로 시작된 문장은 마치 렌즈를 통해 상이 맺히듯, 점점 선명해지며 결국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갖춘 확고한 계획으로 완성되곤 했다.

올버니에서 긴 밤을 보낸 뒤, 내 집에서 목욕을 하고 차 한 잔을 마시고 나니 피카딜리에 래플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멀리 저민 스트리트의 입구를 향해 내려갔다. 그곳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나는 언덕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잊은 듯 발길을 돌려, 래플스의 뒤를 따라 쉰 야드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저민 스트리트로 들어섰다. 래플스를 따라잡으려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운 좋게도 나는 그의 뒤를 바짝 따르던 덕분에, 당시에는 그리 대수롭지 않아 보였던 첫 번째 소동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것은 댄 레비의 초기 손님 중 한 명이 래플스의 품 안으로 거칠게 돌진하며 부딪힌 사건이었다. 격앙된 사과가 오갔고, 래플스는 정중하고 침착하게 이를 받아들였다. 뒤이어 흥분 섞인 하소연이 쏟아졌지만,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내용을 다 들을 수는 없었다.

말을 쏟아낸 이는 남색 머리카락이 후광처럼 둘러싸인 작은 체구의 사내였다. 그는 래플스가 듣고 있는 동안 거대한 솜브레로를 거칠게 털어내며 말을 이어갔다. 두 사람의 태도를 보니 방금 일어난 충돌 자체가 대화의 주제는 아닌 듯했다. 나는 모자 가게 밖에서 귀를 기울였으나 단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래플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그 새로운 지인은 이글거리는 눈빛을 한 채 서툰 영어로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내 곁을 지나쳐 갔다.

'또 한 명의 샤일록 희생자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살점을 한 파운드나 떼여 내장이 다 터져 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모자 가게 창밖을 서성이다가, 결국 모자를 하나 고르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런 좁은 가게는 조명이 워낙 형편없었다. 색깔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모자를 몇 개씩 들고 문턱 너머 밝은 대낮으로 나가야만 했다. 덕분에 길거리 풍경을 훑어보는 일도 겸할 수 있었다. 점원은 내 두상을 정확히 재기 위해 타자기처럼 생긴 정교한 기구를 머리에 씌워주었다. 앞으로는 다른 데서 모자를 맞출 생각이 없다고 미리 말해두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에 족히 20분은 걸린 듯했다. 샤일록 씨네 가게 근처까지 갔을 때쯤, 문득 모자 가게 주인만이 부르는 이름인 '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다시 돌아가 방금 고른 모자에 더해 보터도 하나 주문했다. 다음 항로가 부표를 향하듯, 나의 다음 발걸음은—

비록 새 중절모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이었지만—다시 한번 래플스와 마주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악수를 나누었다. 우리가 마주친 곳은 고리대금업자의 창문 바로 아래였다. 그 열띤 환대가 너무나 영국답지 않게 격렬했던 탓에, 서로 등을 두드리고 손을 맞잡는 와중에 래플스는 내 가슴 포켓에 두툼한 꾸러미를 능숙하게 밀어 넣었다. 아무리 눈썰미 좋은 행인이라 해도 그 동작을 알아채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거리에는 아르고스의 눈만큼이나 많은 눈이 달려 있고, 그중 몇 쌍은 언제나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 법이다.

"그걸 가져오려고 은행에 연락까지 해야 했어." 래플스가 속삭였다. "그들 손을 거의 거치지도 않고 바로 넘어온 셈이지. 하지만 샤일록이 자기 봉투를 직접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잠시 후 그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전혀 다른 말을 내뱉더니, 곧이어 나를 밀치듯 이끌고 샤일록의 문턱을 넘어 들어갔다. "내가 직접 데려가서 소개해 주겠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 거야, 친구. 이 양반이야말로 유럽에서 유일하게 정직한 사람이라네. 레비 씨, 지금 시간 좀 괜찮으신가?"

왜소한 체격의 한 젊은 신사가 말을 했다. 그는 마치 입술이 갈라졌거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발음이 뭉개졌지만, 사실 둘 중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일단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표시등을 '통과(Through)'에서 '개인(Private)'으로 돌린 뒤 전화기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곧바로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일

어났다. 그때 마침 한 청년이 급히 들어왔는데, 그 역시 앞선 신사와 체격이 비슷했고 말투는 훨씬 더 기묘했다. 그는 위층으로 손님들을 안내하는 동안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마호가니 칸막이 너머에는 다른 사무원들도 더 있었다. 우리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새로 들어온 청년이 그들에게 쉰 목소리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래플스가 내 이야기를 제멋대로 꾸며내기 전의 이름대로 부르자면, 댄 레비는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아주 건장한 사내였다. 하지만 한 달 전 사보이 레스토랑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만큼이나 코끼리처럼 거대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동안 겪은 고초 때문인지 육안으로 보기에도 체구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젊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신사의 복장을 갖추고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의 잘 재단된 코트와 정갈하게 맨 넥타이를 보니, 예전에 실크 잠옷이 래플스에게 불러일으켰던 그 근거 없는 존경심이 다시금 피어올랐다.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그의 커다란 얼굴은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영리하면서도 다소 경멸 섞인 친근함을 띤 그 얼굴은, 전형적인 고리대금업자 특유의 비열한 잔머리보다는 권투 선수 같은 솔직한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큼직한 이목구비와 굴곡진 윤곽이 그러했다. 특히 코는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지만, 그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위압감이 느껴졌다.

이 위압적인 얼굴을 마주하다가 래플스의 얼굴로 시선을 돌리니 마음이 놓였다. 래플스는 특유의 평온하고 태연한 자신감을 띠며 들어오

더니, 어떤 사회 계층에서든 그를 빛나게 만드는 특유의 경쾌하면서도 권위 있는 태도로 우리를 소개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 별고 없으시지요?" 레비 씨가 말했다. 그는 앞 단어의 'h' 발음은 툭 떨어뜨리면서도, 뒷 단어의 발음은 아주 정성스럽게 챙겨 넣었다. "자, 여기 앉으시지요, 선생님."

다리는 금방이라도 후들거릴 것 같았지만, 나는 꿋꿋이 버티며 서 있었다. 그러고는 가슴 포켓에 손을 집어넣어 래플스가 건네준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다. 올버니에서 밤새도록 연습했던 말투를 떠올리며,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어 나갔다.

"그 행복이 정말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제 말은,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레비 씨. 에드워드 갈랜드 씨의 소개로 왔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줄 알았는데!" 래플스가 몹시 분개하며 말을 가로챘다. 고리대금업자는 번뜩이는 눈빛으로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는 래플스에게 쏘아붙였다. 그의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 너머로, 마치 깊은 우물 바닥에 진실이 가라앉아 있듯, 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대체 저 꼬맹이가 누구길래 이리 사납게 구는 거야?" 고리대금업자가 아주 능청스럽고 무례하게 그에게 물었다.

“내 오래된 친구라네.” 래플스가 상처받았다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 말투는 두 사람의 오랜 우정이 이미 끝났음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그 친구가 형편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지 않았다면 자네에게 소개하러 데려오지도 않았을 거야.”

“날 소개해 달라고 한 적 없네, 래플스.” 나는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했다. “그저 들어가는 길에 나오는 자네를 마주쳤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자네는 지나치게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같더군!”

래플스는 나를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앵글로색슨식의 거친 위협을 내뱉고는, 우리끼리 대화하라는 듯 문을 쾅 열고 나갔다. 연습한 대로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그때 댄 레비가 래플스를 다시 불러세웠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바라던 대로였다.

"신사 여러분, 신사 여러분!" 그 유대인이 외쳤다. "제발 제 사무실을 투기장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신사 여러분. 그리고 래플스 씨, 제발 부탁이니 저를 그 위험천만한 친구분의 손에 맡겨두고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원한다면 둘이 덤벼도 좋아.” 나는 용기 있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난 상관없으니까.”

나는 대본에 적힌 지시대로, 그리고 마음껏 발산하고 싶었던 사실적인 감정의 흐름에 따라 가슴을 들썩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자, 어서 말해봐요." 레비가 말했다. "갈랜드 씨가 대체 무슨 일로 연락을 해온 겁니까?"

"그가 당신에게 빚진 게 얼마인지,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다.

"무례하게 굴지 말게." 레비가 말했다. "그 빚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말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진작에 끝냈어야 할 일이지."

“몇 달 전이라고요?” 내가 되물었다. “그가 당신에게 300파운드를 빌려 간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와서 700파운드나 받아내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레비가 대답했다. 그는 단호한 태도로 입을 열었으나, 그 입술은 다음 순간 흔적도 없이 다시 다물어졌다.

"그는 기껏해야 1년 정도 쓸 돈으로 300파운드를 빌리겠지. 그러고 나면 1년 뒤에 자네가 그를 협박해서 800파운드를 뜯어낼 테고 말이야."

"방금 '일곱'이라고 했잖아." 래플스가 말을 가로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겁에 질린 사람 특유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방금 '공갈'이라고도 하셨지 않습니까." 댄 레비가 엄숙하게 덧붙였다. "계단 아래로 처박히고 싶어서 환장한 겁니까?"

"그 수치들을 부정하는 건 당신입니까?" 내가 맞받아쳤다.

"아니, 부정하진 않네. 혹시 그가 쓴 상환 카드들을 가지고 있나?"

“그래요, 여기 제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은 절대 제 손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나는 래플스를 향해 엄하게 덧붙였다. “이 젊은 친구는 이미 할부로 100파운드를 갚았어요. 그래서 총 800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어리석게도 이 친구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고리대금업자는 우리 둘 중 누구의 예상보다도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다. 그 모습은 마치 위협을 가하는 기둥 같았고, 입에서는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고작 그게 다냐?" 그가 천둥 같은 소리로 호통을 쳤다. "할 말이 그것뿐이라면, 이 건방진 녀석, 당장 나가!"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래플스가 테디 갈랜드에게서 받아낸 영수증 카드에 붙어 있던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래플스의 봉투를 뒤져 내용물을 털어내려던 중, 나는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이 서류만을 안주머니에서 뽑아내는 데 성공했다.

“자, 여기 봐.” 내가 말을 이었다. “어제 네가 갈랜드 씨에게 쓴 편지야. 아주 무례한 말들이 가득 적혀 있더군. ‘이것으로 끝입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은 거래 액수에 비해 열 배는 더 많은 번거로움을 끼쳤으니, 이제는 당신 같은 손님은 치워버리는 게 상책이겠군요. 그러니 내일 낮 열두 시 전까지는 반드시 돈을 입금하십시오. 위에서 말한 협박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실행될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즉시 조치를 취할 테니까요. 이번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이 문제로 편지를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그렇군요." 레비가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다. "래플스 씨, 이건 아주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동감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쭙지요. 혹시 갈랜드 씨에게 대금을 전부 '지불하게' 함으로써, 그를 '처리'할 생각인가요?"

"오늘 열두 시 전까지다." 댄 레비가 권투 선수 특유의 강인한 턱을 딱딱거리며 말했다.

"일 년 전에 빌려 간 300파운드 때문에, 다 합쳐서 800파운드라고요?"

"바로 그거야."

"그건 그 친구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요?" 내가 말했다. 나는 서서히 타협안을 찾아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나중에 래플스는 이 태도를 두고 내게 여러 차례 찬사를 보냈지만, 당시 그는 이렇게 대꾸했을 뿐이다. "내 생각엔 그 친구 잘못이지."

"물론 그렇고말고요, 래플스 씨." 고리대금업자가 한층 누그러진 말투로 외쳤다. "그건 내 돈이었으니까요. 내 황금 소버린 300개였다고요. 그리고 당신 물건은 당신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 래플스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돈도 다른 물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빌릴 수도, 벌 수도 없다면 결국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야 하는 법이니까요. 나는 내 돈을 파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값을 받을 수만 있다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매길 권리도 내게 있습니다. 내 가격을 보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바보일지는 몰라도, 그건 그 사람이 당장 돈이 얼마나 급하냐에 달린 문제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그 혈기 왕성한 젊은 친구 말입니다, 채무를 이행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요. 하지만 돈을 떼먹은 놈은 코가 깨지도록 대가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친구를 이 함정에 빠뜨린 건 내가 아닙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건 그 친구 자신이지요. 가랜드 씨는 내가 얼마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만약 나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인다면 내가 얼마나 더 가혹하게 값을 매길지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계약 조건에 명시된 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사업입니다, 래플스 씨. 강도질이 아니라요. 뭐, 따지고 보면 모든 사업이 강도

질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내 사업은 아주 정당하고, 계약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죠."

"아주 훌륭한 설명이군요." 래플스가 무게감 있게 말했다.

"래플스 씨,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재치 있게 말을 덧붙였다. "가랜드 씨는 제 친구도 아니었을뿐더러 멍청이였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그와 달리 현명한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군." 내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그에게 남은 돈을 전부 다 받아내겠다는 뜻인가?"

"정오까지요. 이제 막 열 시가 지났을 뿐이오."

"700파운드 전부 다 말인가?"

"현금만 받습니다." 레비 씨가 말했다. "수표는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완전히 패배했다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이제 내가 지시한 대로 할 수밖에 없겠군. 지금 당장 현찰로 지불하겠네!"

나는 레비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지폐 뭉치를 본 그가 숨을 헉 하고 들이켜는 소리는 들렸다. 몸을 굽혀 그의 책상 위에 돈을 세기 시작하자, 불길한 한숨이 내 이마에 닿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항의하며 말을 걸어오기 전까지 나는 어느 정도 돈을 세어 놓은 상태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

었다. 마치 그를 상대로 게임이라도 즐기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 내가 돈을 처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주면 될 것을,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내가 그의 말에도 아랑곳없이 계속 돈을 세어 나가자, 그는 갑자기 욕설을 내뱉으며 물었다. 나는 그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 이제 레비 씨," 나는 말을 맺었다. "가랜드 씨가 쓴 약속 어음을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래, 물어봐라! 원하는 대로 받게 될 테니까!”

그가 으르렁거리며 금고를 거칠게 열어젖히는 바람에 열쇠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래플스는 쪽지를 찾는 동안, 떨어진 열쇠들을 아주 능숙하고 재빠르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마침내 그 사악한 서류를 손에 넣었다. 레비가 통로 아래로 고함을 지르자, 발음이 어딘가 어설픈 그 젊은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저 젊은 놈을 당장 끌어내!" 레비가 소리쳤다. "길바닥으로 내팽개쳐 버려! 모세를 불러서 거들게 해!"

하지만 첫 번째 살인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래플스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마침내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물어뜯을 놈'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물었다.

"바로 저놈이야!" 고리대금업자가 나를 향해 살벌하게 주먹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다. "래플스 씨는 내 친구라고!"

"하지만 그분은 제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젊은이가 혀 짧은 소리로 웅얼거렸다. "시미언 마크스가 길 건너편에서 저한테 직접 말해줬단 말이에요. 피카딜리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가는 걸 봤는데, 우리 집 밖에서 서로 악수까지 하는 걸 봤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러 들어온 거라고요……."

말주변이 부족한 그 청년은 설명을 채 마치지도 못했다. 누군가 그의 뒷덜미를 움켜쥐더니, 방 밖으로 발길질하며 흔들어 내던졌고, 그의 깃도 함께 휙 던져졌다. 레비가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는 동안, 계단 너머로 그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래플스가 책상 뒤 회전의자에 슬그머니 앉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고리대금업자와 내가 동시에 뒤를 돌아보고 나서야, 그가 이미 그곳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장 나가!" 레비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래플스는 의자 스프링을 이용해 등받이를 뒤로 젖히더니, 그의 얼굴을 마주 보며 부드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아는 한은 절대 안 될걸요." 그가 말했다. "앞으로 1분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당장 이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라니, 응?" 레비가 불길한 기운을 띠며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말했다. "그건 나한테 맡기는 게 좋을 거야, 이 잘난 사기꾼 놈들아!"

“그나저나,” 래플스가 말을 이었다. “당연히 이 서랍 중 하나에는 인신공격용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었겠지. 아, 여기 있군. 당신 손에 있는 것보다 내 손에 있는 게 훨씬 낫겠어!”

그는 오른쪽 서랍을 열고 커다란 불독 리볼버를 꺼냈다. 순식간에 다섯 발의 탄환을 모두 비워낸 그는, 총구를 잡은 채 주인에게 권총을 건넸다.

"빌어먹을!"

그가 이를 갈며 내뱉더니, 물건을 벽난로 가드 쪽으로 내던졌다. 물건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이대로 넘어갈 줄 아시오, 이 고결하신 신사분들! 이건 단순히 수법이 교묘한 게 아니야. 명백한 범죄이자 사기라고!"

“입증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 래플스가 말했다. “그동안, 그 흙탕물 찜질팩처럼 창백한 얼굴로 있지 말고 저 문 좀 열어주겠나?”

고리대금업자의 머리칼은 이미 백발이었지만, 안색만큼은 그 머리칼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마치 염색이라도 한 듯 검고 짙은 눈썹은 잉크를 뭉쳐 놓은 것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하지만 래플스가 특유의 불행한 재주를 발휘해 던진 비유는 신중함보다는 화려함에 치우쳐 있었다. 나는 그 비유가 '샤일록 씨'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다행히 그날의 악재는 그가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으나, 그는 순순히 물러나기는커녕 잠긴 문을 등지고 버티고 서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노라며 짓궂은 욕설을 내뱉었다.

"아, 알겠습니다!" 래플스가 대답하며 지체 없이 수화기를 귀에 갖다 대었다. "거기 교환국입니까? 9223번 제라드 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사기예요." 레비가 거듭 강조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자네도 잘 알잖아." 래플스가 중얼거렸다. 그는 전화기에 온 정신을 빼앗긴 사람처럼 보였다.

"돈을 빌려준 건 당신이잖아요." 내가 덧붙였다. "그건 당신 사정이죠. 그가 그 돈을 어떻게 쓰든 당신이 상관할 바는 아니라고요."

"그놈은 저주받을 사기꾼이야." 레비가 낮게 쉿쉿거리며 내뱉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놈의 빌어먹을 미끼고!"

책상 너머로 래플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며, 나는 전혀 아쉽지 않았다.

"하우슨, 앤스트러, 마틴 법률 사무소인가요? 아, 레비 씨, 그들은 제 변호사들일 뿐입니다. 마틴 씨 좀 연결해 주시겠어요? ……찰리, 자네인가? ……저먼 스트리트로 택시를 타고 오게. 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데, 대부업을 하는 댄 레비네. 고맙네, 친구! ……잠깐만 기다려, 찰리. 순경이 오고 있어……."

하지만 댄 레비는 이미 문을 열어젖힌 뒤였다.

"거기 서라, 이 악당 놈들! 하지만 조만간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이 멋쟁이 건달 놈들아!"

래플스는 전화기를 노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말이 끊겼군." 그가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게! 레비 씨, 자네를 찾는 소리가 분명히 들린 것 같네!"

그들은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은 채 자리를 바꿨다. 래플스와 내가 계단에 올라설 때까지도 말이다.

"아니, 전화 연결도 안 됐잖아!" 고리대금업자가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레비 씨, 바로 ‘우리’라고요!” 래플스가 외쳤다. 그러고는 우리는 곧장 거리로 뛰어 내려갔다.

제5장

허공 속으로

래플스가 지나가는 한섬 마차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그는 나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테디의 크리켓 가방을 챙기러 클럽까지 차를 몰고 다녀오게.” 그가 말했다. “시간을 아끼게 테디한테는 바로 플란넬 경기복으로 갈아입으

라고 해두고. 정확히 30분 뒤에 세 명분의 아침 식사를 주문해 두게나. 자네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테디에게 전부 설명해 줄 테니까."

내가 마차를 몰아 떠날 때, 그의 눈은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며 반짝이고 있었다. 그 청년이 제 분수에 넘치는 행운을 거머쥐게 된 현장에서 얼른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어젯밤 래플스와 내가 그를 붙잡았던 그 사건이 여전히 못마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래플스는 아무리 가볍게 넘기려 해도, 나는 도저히 그를 따라 너그럽게 봐줄 수가 없었다.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린 점이 못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물론 내 감정이 조금 편향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방금 내가 거둔 승리의 쾌감을 누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의 파렴치하면서도 법망을 교묘히 피한 수작에 걸려든 그 악명 높은 갈취범을 떠올리니, 내 마음은 마치 마차 종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당화될 수 있는 일종의 기만술을 써서, 분명히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은 셈이니까.

그렇게 나는 우리가 대신 싸워 이겨준 그 청년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어느새 그 청년의 아침 식사를 주문하고 있었고, 그의 크리켓 가방을 내 마차에 싣게 하고 있었다.

래플스는 올버니의 안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하늘 상태가 이렇지는 않았다. 문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내가 튀어나오자 그가 소리쳤다. "그자를 본 적 없나?"

"누구를 말하는 건가, 래플스?"

"당연히 테디지!"

"테디 가랜드 말인가? 벌써 나갔나?"

“들어가기 전에 말이야.” 래플스가 엄숙하게 말했다. “도대체 그 자식이 어디 처박혀 있는 건지 모르겠군!”

그는 직접 마부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가방을 직접 내려놓았다. 나는 그를 따라 그의 방까지 올라갔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뜻이야, 래플스?”

"내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신문을 사러 나간 걸까?"

"내가 가기 전부터 그것들은 이미 여기 있었어. 그의 침대 위에 그대로 두었단 말이야."

"아니면 면도라도 하려고?"

"그게 더 가능성 있는 이야기군. 하지만 그가 나간 지 벌써 한 시간 가까이 됐어."

"하지만 래플스, 자네도 떠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거 아냐. 게다가 그 친구는 아주 깊이 잠든 상태였다고 들었는데?"

"그게 제일 문제야, 버니. 분명히 꾀병을 부린 게 틀림없어. 배러클로가 말하길, 내가 나간 지 10분 뒤에 그가 나가는 걸 봤대."

"가실 때 그를 방해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래플스가 고개를 저었다.

"내 평생 그렇게 조심스럽게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 버니, 돌아올 때는 일부러 소란을 피웠단 말이야. 그를 깨우려고 말이지. 그런데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나조차 깜짝 놀랐어! 그가 지나온 길의 문들을 전부 닫아버린 거야. 다시 문을 열 용기가 나기까지 1, 2초는 걸렸을걸. 정말 끔찍한 일이라도 벌어진 줄 알았다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래플스가 침울하게 말했다. "모든 게 내 예상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댄 레비에게 정체를 들켰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해. 게다가 우리 목숨을 노릴 적을 바로 옆 골목에 불러들인 셈이지. 상황이 아주 긴박해졌어, 버니. 당분간은 놈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하기 힘들 거야. 하지만 테디가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차라리 이 상황을 즐겼을 텐데 말이야."

래플스가 이토록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가 가진 두 가지 고민 모두에 동의할 수 없었으나, 일단은 그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듯한 문제에 대해서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내기할까? 구즈베리 한 알에 1기니를 걸지." 내가 말했다. "자네가 찾는 그놈, 로즈 경기장에서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데에 말이야."

"10분 전에 전화해 봤어." 래플스가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왔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 눈치더라고. 게다가 여기 그의 크리켓 가방도 있잖아."

"내가 그걸 가져올 때 그가 클럽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딱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요."

"했어, 버니. 자네가 떠나자마자 그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네."

"그럼 그의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야." 래플스가 말했다. "전화기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마침 네가 왔으니 차를 몰고 나가서 테디가 거기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 해. 어젯밤 그 친구 상태가 어땠는지 너도 잘 알잖아. 원래 일어났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건이 터졌을 때보다 상황

이 훨씬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법이지. 테디가 모든 사실을 가랜드 노인에게 곧장 털어놓았기를 바랄 뿐이야. 만약 그랬다면, 자기 짐을 챙기러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그런데 세상에, 버니,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

우리는 뒤로 문을 열어둔 채, 우리 층을 향해 꽤나 다급하게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젊은 사람의 발소리는 아니었고, 래플스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찰나의 정적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길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방을 나갔고, 복도에서 가랜드 씨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테디는 데려오지 않은 건가?" 래플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여기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찌나 상냥한 목소리인지, 그러면서도 어찌나 절망에 빠진 듯한 어조인지. 덕분에 나는 가랜드 씨를 직접 마주하기도 전에 이미 그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끼고 있었다.

"방금 나갔습니다." 래플스가 말했다. "금방 돌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가랜드 씨? 들어오셔서 잠시 앉아 계시지요."

그 유쾌한 목소리가 섣부른 안도의 탄성을 내뱉었다. 두 사람이 들어왔고, 나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의심했을 법한 인물을 소개받았다. 그는 은퇴한 양조업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아들의 말처럼 은퇴 후 돈을 탕진하며 지내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그가

무모할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전형적인 인물이거나, 진짜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을 한 겉멋 든 군인 스타일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난 이는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다. 그는 온화하고 연로한 노신사였다. 고뇌의 흔적이 서린 주름 사이로 인자한 눈빛이 용기 있게 빛나고 있었고, 약간은 수줍은 듯하면서도 진심 어린 그의 태도는 단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랑자를 맞이하는 데 한시도 지체하지 않는군!" 그가 말했다. "자네도 내 아들놈만큼이나 성미가 급하구먼. 그 녀석은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 일찍이라도 꼭 래플스를 만나겠다고 아주 기를 쓰고 난리였거든. 필요하다면 런던에서 하룻밤 묵고 가겠다고 하더니, 보아하니 정말 그러기로 한 모양이야."

아버지의 태도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래플스가 지난밤 그 청년이 (말과 행동은 빼고) 어디를 다녔는지 그 행적만큼은 숨김없이 사실대로 들려주자 아버지의 눈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는 인자한 빛을 띠며 반짝였다.

"그의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가랜드 씨가 물었다. "자네도 놀랐나, 래플스?"

래플스는 다소 지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의자에 몸을 바로 세우고 앉았다. 대체 어떤 대단한 소식이길래 저러는 걸까?

"내 아들이 방금 약혼을 했답니다." 가랜드 씨가 나를 배려해 설명을 덧붙였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들의 약혼 때문이지요. 제가 아들을 감시하려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벨사이즈 양이 전보를 보내왔는데, 로즈 경기장에서 만나기로 했던 계획 대신 경기를 보러 가는 길에 미리 합류하겠다고 하더군요. 테디를 만나지 못하면 아이가 무척 실망할 것 같아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나로서는 래플스가 왜 벨사이즈 양이나 이 약혼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지 의아할 뿐이었다. 내가 이곳 열린 창가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옆방에 있던 래플스는 밤늦게 이 소식을 직접 들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새벽녘이 지나도록 그는 젊은 가랜드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변호해 줄 만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상황을 설명해 줄 말이나 눈빛을 보내오는 쪽은 래플스가 아니었다. 다만 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을 뿐이다.

"실례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가 외치듯 물었다. "가랜드 씨, 그 전보가 테디에게 온 겁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온 겁니까?"

"테디 앞으로 온 전보였지만, 당연히 그가 없을 때 내가 먼저 열어보았네."

"그가 초대했거나 혹은 제안을 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었을까?"

"아주 간단해요. 어제 두 사람이 함께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러니 카밀라가 레이디 로라에게 조언을 구해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럼 모든 게 다 설명되잖아!" 래플스가 외쳤다. "자네가 시내로 향하는 길이었다면, 테디는 집으로 가던 중이었겠군!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온 건가?"

"브루엄 마차를 타고 왔어요."

"공원을 가로질러서요?"

"네."

"나이츠브리지나 켄싱턴 고어에서 한섬 마차를 타고 있었을 거야! 바로 그 점 때문에 놓친 거라고." 래플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지금 곧장 돌아가면 그를 로즈 경기장까지 데려갈 시간은 충분할 거야."

가랜드 씨는 우리 둘에게 함께 차를 타고 돌아가자고 간곡히 권했다. 우리는 그러기로 마음먹었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세 사람 모두 길을 나섰다. 켄싱턴을 가로질러 처음 보는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다. 그 집은 이후 밀려드는 아파트 단지들에 밀려 사라지고 말았지만, 10년도 더 된 그해 여름 아침의 풍경처럼 집을 구성하던 돌 하나, 슬레이트 한 장까지도 내 눈에는 여전히 선명하다.

저택은 대로변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있었는데, 주변의 번잡한 도시 환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넓은 부지를 품고 있었다. 정원은 옆 골목에서 다른 골목까지 이어졌고, 우리 시야가 닿지 않는 곳까지 깊숙이 펼쳐져 있었다. 격자창과 작은 탑이 달린 저택 건물 자체보다도, 생기 넘치는 잔디밭과 높이 솟은 나무들, 화려한 화단과 투명한 유리 온실이

보는 이의 마음을 더 강렬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사로잡았다. 하지만 정작 우리 세 사람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게 된 그 집 계단 바로 몇 야드 밖에서는, 합승마차들이 두 줄기로 끊임없이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에드워드 씨의 모습이나 소식은 그 집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벨사이즈 양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서재로 들어오게."

가랜드 씨가 말했다. 우리가 서재로 들어가 책들 사이에 서자, 유리 장식장 안에 아름답게 제본된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랜드 씨는 래플스를 돌아보며 쉰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모든 일에 대해 내가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군. 도대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네."

"하지만 당신도 나만큼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래플스가 항변했다. "테디를 재워두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녀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고요."

"그게 몇 시였지?"

"나갔을 때는 9시에서 9시 반 사이였어. 거의 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지."

"그 이른 아침부터 그를 잠든 채로 내버려 두는 이유가 대체 뭐지?"

"그에게 단 1분이라도 더 시간을 주고 싶었네. 우리는 꽤 늦게까지 깨어 있었거든."

"대체 왜 그랬어, 래플스? 몸도 피곤할 텐데 밤새도록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야? 게다가 오늘은 테디가 기운을 차려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잖아. 그 애가 네가 돌아오자마자 굳이 너를 만나려 한 이유가 대체 뭐라고 생각해? 매력적인 여자애랑 갑자기 약혼하게 된 젊은이가 테디뿐이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래플스?"

"그의 약혼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는 바로는 없네."

"그럼 그 친구, 지금 곤경에 처한 건가요?"

"그랬었지요, 가랜드 씨." 래플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가랜드 씨가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다.

"돈 문제 때문이었나, 래플스? 물론, 내 아들이 자네를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면, 아비로서 함부로 참견할 권리는 없네만——"

"그건 아닐 겁니다, 선생님." 래플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를 폭로할 권리가 없는 건 오히려 저니까요. 하지만 가랜드 씨, 이쯤에서 이야기를 끝내주신다면, 테디가 왜 그렇게 저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한마디

만 덧붙여도 괜찮겠지요. 그건 아마도 아주 사소하고 일시적인 곤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럼 당신이 그를 도왔단 말입니까?" 불쌍한 사내는 고마움과 굴욕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울먹이듯 외쳤다.

"제 주머니에서 나간 건 아닙니다." 래플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테디가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금 손을 보면 될 정도였으니까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래플스!"

가랜드 씨가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자세한 사정은 묻지 않겠네. 내 불쌍한 아들이 사람을 제대로 찾아갔군. 나에게 오지 않은 건 아들이 현명했기 때문이야. 부전자전이라더니, 정말 그렇구먼!"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만지작거리던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그러고는 접은 팔 위로 고개를 떨구었다.

테디가 사라진 일이 불러올 불미스러운 파장 따위는 잊은 모양이었다. 그 원인이 된 기묘한 굴욕감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래플스는 회중시계를 꺼내더니 내가 볼 수 있게 다이얼을 들어 보였다. 벌써 30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바로 그때 하인이 서신을 들고 들어왔고, 덕분에 주인은 겨우 평정심을 되찾았다.

“테디가 보낸 거겠지!” 그는 안경을 더듬거리며 찾으며 외쳤다. “아니, 이건 그를 위한 거야. 특별 전령을 통해 보낸 모양이군. 내가 직접 열어보는 게 좋겠어. 설마 또 벨사이즈 양이 보낸 건 아니겠지.”

"벨사이즈 양이 응접실에 계십니다, 주인님." 남자가 말했다. "주인님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녀에게는 금방 돌아오겠다고 전해주게.”

가랜드 씨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전과는 다른 근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문이 닫히기도 전에 말을 이었다.

“이것 좀 보게. 이것 좀 보라고.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토스에서 졌다. 제때 나타나지 않으면 휘팸이 경기를 치른다. — J. S.’”

"잭 스터들리야." 래플스가 말했다. "케임브리지 팀 주장이지."

"알고 있어! 다 안다고! 휘팸이 후보 선수잖아, 안 그래?"

“게다가 그자도 포수라니, 운도 없군!” 래플스가 외쳤다. “만약 새로 나온 포수가 공 하나라도 제대로 잡아낸다면, 테디가 한 오버(over) 정도 늦게 들어온다 해도 이미 늦은 셈이야.”

"그렇다면 이미 너무 늦었군요." 가랜드 씨가 신음하며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말했다.

"하지만 스터들리가 보낸 쪽지가 전달되는 데 30분 정도 걸렸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래플스. 이건 평범한 쪽지가 아니라고. 로즈 경기장에서 전화로 직접 보낸 메시지야. 아마 불과 몇 분 사이에, 이 문에서 채 백 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전령 사무실로 바로 전송된 거라고!”

가랜드 씨는 비참한 표정으로 카펫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당혹감과 초조함이 몰려오는지 그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래플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받아들인 듯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유리문 너머로 이어진 온실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당혹감에 사로잡힌 동상 같았다. 서재에는 별도의 창문이 없었지만, 이 문은 커다란 통유리 한 장으로 되어 있었다. 자칫하면 사람이 그대로 부딪혀 넘어질 법한 형태였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야자수와 나무고사리 잎들이 비치는 유리문 앞에 래플스의 전신 실루엣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내 눈앞에서 그 실루엣이 다시 꼿꼿하게 일어서고, 문이 열리더니, 래플스가 고개를 번쩍 들고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까지 생생하다. 나 역시 그때 들었던 소리를 기억한다. 요정이 내뱉는 듯한 쉿 하는 소리, 마치 요정들이 일제히 쏘아대는 탄환 같은 소리, 그리고 이윽고 래플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방 안으로 돌아오던 그 순간을 말이다.

"비가 오네요!" 그가 머리 위로 손을 휘저으며 외쳤다. "가랜드 씨, 혹시 기압계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램프 거치대 아래에 있는 건 기압계로군."

"지시계는 얼마나 자주 맞추십니까?"

"매일 밤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페어와 체인지 사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무척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고맙게 느껴질지도 모르겠군. 오늘 아침엔 바늘이 체인지와 레인 사이를 가리키는군. 그리고 비도 내리기 시작했어. 비가 내린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니까!"

순식간에 래플스는 특유의 거침없는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았다. 하지만 나이 든 이는 그만큼 빠르게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하지만 반드시 끔찍한 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그게 뭔지 알기만 한다면, 래플스—제발 그게 뭔지만 알 수 있다면!”

래플스는 창백하게 질려 경련을 일으키는 그 얼굴을 곁눈질하며 걱정스러운 듯 살폈다. 정작 래플스 본인은 언제나 나에게 확신을 주는 그 특유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온실 지붕을 두드리는 소음은 매 순간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꼭 알아내고 말 겁니다." 그가 말했다. "비가 계속 내리더라도, 비가 그칠 때쯤이면 테디가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

"래플스, 자네가 어디를 가든 난 기꺼이 함께 가겠네."

"가랜드 씨, 저를 도우시려면 지금 계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말인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해." 래플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야."

“그게 대체 무엇인가, 래플스?”

“우선은 테디의 체면을 살려줘야 하니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당신의 브룸을 타고 로즈 경기장까지 곧장 가겠습니다. 스터들리와는 꽤 잘 아는 사이니, 그가 테디의 자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비워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자리에 없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내가 물었다.

"어떻게든 다 설명할 수 있어." 래플스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은 그 사람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을 거야. 적어도 로즈 경기장에서만큼은 말이지."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유일하게 중요한 곳 아닙니까.” 내가 말했다.

“아니야, 버니. 벨사이즈 양이 여기 머무는 동안 이 집은 훨씬 더 중요해져. 두 사람이 약혼한 사이라는 걸 잊었나 본데, 지금 그녀는 바로 옆방에 있다고.”

"세상에!" 가랜드 씨가 나직이 속삭였다. "나조차도 깜빡 잊고 있었군."

"이 일에 대해 가장 마지막에 알아야 할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래플스가 말했다. 내 생각에 그는 지나치게 권위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분께 숨겨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선생님."

"제가 말입니까?"

"벨사이즈 양은 오늘 아침 로즈 경기장에 가면 안 됩니다. 괜히 나가서 옷이나 망가뜨릴 뿐이에요. 그리고 제 말을 전해 주세요. 지금 당장 비가 그친다 해도, 앞으로 한 시간 동안은 경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요. 물론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동안은 테디도 다른 사람들처럼 파빌리온에 갇혀서 날씨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게 두세요. 하지만 제 연락이 다시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녀를 집에 붙들어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직접 곁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쯤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래플스가 손을 내밀자 가랜드 씨가 물었다.

"어디 보자. 20분 안에 로즈 경기장에 도착할 거야. 거기서 5분이나 10분 정도만 더 쓰면 스터들리도 다 처리할 수 있겠지. 그러고 나면 공중전화 박스 안에 틀어박혀서 이 동네 병원들을 죄다 전화해 볼 생각이야! 내 생각엔 사고일 수도 있거든. 물론 사고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말이야. 정말 사고인 게 아니라면 이 문제로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쪽 상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는 데 동의한다면, 소식을 전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다는 점도 이해하겠지?"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래플스. 하지만 나한테는 정말이지 너무나 힘든 일이 될 거야!"

"정말 그럴 겁니다, 가랜드 씨. 하지만 소식이 없다는 건 언제나 좋은 소식인 법이지요. 어떤 소식이라도 들리는 즉시 곧장 당신에게 달려가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주인은 내색할 정도로 내키지 않아 하더니, 내가 작별 인사를 하려 하자 이내 이해하기 힘든 당혹감에 휩싸였다.

"세상에!" 그가 외쳤다. "그 가여운 아가씨를 속이고 내 불안함까지 숨기느라, 나 혼자 이 모든 걸 다 떠맡아야 한단 말인가?"

"버니, 자네가 굳이 따라올 필요는 없어." 래플스가 나에게 말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혼자서 해치워야 하는 일이라면, 그건 내 몫이니까."

주인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너무나 깊은 아쉬움이 서려 있어서, 나는 그가 원한다면 곁에 머물겠다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거실 문이 닫히고 주인과 그의 아들이 약혼한 여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우산꽂이에서 우산을 하나 집

어 들었다. 그리고 마침 하늘에서 쏟아지는 반가운 빗줄기를 뚫고, 래플스를 마차까지 바래다주었다.

"미안하네, 버니."

현관의 집사와 마차 운전석의 마부 사이에서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런 일은 내 적성에도, 자네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야. 하지만 솔직하고 깔끔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길에서 벗어난 대가라고 생각하세. 차라리 그 700파운드를 노리고 금고를 털었어야 했어."

"하지만 이 기이한 실종 사건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놈이 아직 살아만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미친놈을 내 앞에 끌어다 놓겠소."

"그렇다면 그의 이번 약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시 물었다. "그 약혼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래플스가 다소 날카롭게 물었다. 그는 내 우산 아래에서 벗어나 마차 안으로 쑥 몸을 밀어 넣었다.

"그가 당신에게 말했을 때, 당신은 내게 한마디도 안 해줬잖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 여자가 그 사람보다 신분이 낮은가요?"

래플스는 맑고 푸른 눈으로 속을 알 수 없게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야." 그가 말했다. "마부에게 로즈 경기장까지 서둘러 가라고 해. 그리고 이 비가 제발 그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제6장

카밀라 벨사이즈

비 오는 날, 래플스가 "켄싱턴의 전원주택"이라 묘사한 이 기묘한 은신처보다 더 나은 안식처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넓고 반듯한 현관에는 잡지와 담배 같은 클럽의 편안함이 가득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벽난로의 불꽃이 온기를 더해주었다. 현관을 중심으로 평소 쓰던 방들이 이어져 있었는데, 서재뿐만 아니라 거실에서도 온실로 통하는 문이 나 있었다. 내가 야자수와 나무고사리 사이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을 때, 거실 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래플스가 어젯밤 이름조차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치부했던 그 여인의 마음을 돌리느라, 불쌍한 가랜드 씨가 꽤나 애를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 역시 그 까다로운 수고를 떠맡고 싶지는 않았다. 나에게는 그저 별일 아닌 일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 테니까. 그렇다 해도 나는 이미 이 사람들의 일에 충분히 휘말려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이름은 내게 그저 이름일 뿐이었다. 어제만 해도 우리는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기에, 클럽에서 테디 가랜드를 만났더라도 가볍게 목례나 할까 망설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래플스를 도와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숨기고 있으며, 동시에 그 아버지가 겪게 될지도 모를 더 끔찍한 일을 장차 며

느리가 될 여인에게 숨기는 일까지 도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와중에, 래플스와 나에 관한 가장 최악의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비밀로 남겨져 있었다!

그사이 나는 온실에서부터 길게 이어진 온실과 포도 온실들을 둘러보았다. 마치 사슬처럼 이어진 이 공간들은 저마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며 각기 다른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때마침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로 인해 유리창마다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나는 양치식물이 가득한 온실 한구석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작은 분수가 있어, 쏟아지는 빗소리 사이로 경쾌한 물방울 소리를 보태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내 곁에서 갑자기 거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벨사이즈 양을 소개받았다.

내 얼빠진 표정이 우스웠던 모양인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하루 동안 그녀가 다시는 그런 미소를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그 짧은 미소 덕분에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팬이 되어버렸다. 잠시나마 그녀를 즐겁게 해준 덕분에, 그녀도 나에게 꽤 호감을 가졌던 것 같다.

시작은 꽤 좋았다. 불행한 가랜드 씨가 냉소적일 만큼 재빨리 자리를 떠난 것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시작만큼 상황이 계속 좋았던 것은 아니다. 벨사이즈 양의 기분이 나빴다고까지 말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그녀는 매우 불쾌해 보였다. 나 역시 그녀의 불쾌함에 깊이 공감하는 편이었다. 그녀는 튀지 않는 캄브리지 블루 색상을 곁들여 아주 간결하면서도 우아하게 차려입었고, 머리에 쓴 그

림 같은 모자는 그야말로 예술 작품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로즈 경기장에서 인류를 위해 빛나야 했을 그 아름다운 차림을, 습기 찬 암석원 구석에서 생판 모르는 이방인을 위해 낭비하고 있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지금쯤이면 로즈 경기장의 습도가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는 말뿐이었다.

"그러니까 셸터 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지루함을 견디는 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벨사이즈 양." 벨사이즈 양은 자신이 지루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라면 피할 곳이 아주 많아요." 그녀가 말했다.

"드레스는 다 젖어 엉망이고 신발은 진흙탕을 밟아 질척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할걸! 그 파빌리온에 입장 허가를 받기도 전에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경기장이 물에 잠겨 있다면, 오늘 경기를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장담컨대 그럴 리 없습니다, 벨사이즈 양. 제가 내기를 걸어도 좋아요."

경솔한 발언이었다.

"그렇다면 테디는 왜 돌아오지 않는 거지?"

“글쎄요, 아시다시피,” 나는 말을 흐리며 대답했다. “세상일이 늘 확실할 수는 없잖아요. 날이 개올지도 모르고요. 오후까지는 일단 경기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선수들도 스텀프를 거두기 전까지는 자리를 뜰 수 없으니까요.”

"테디가 점심이라도 먹으러 집에 들렀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벨사이즈 양이 말했다. "설령 점심을 먹고 다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가 정말로 나타난다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지.” 나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A. J. 래플스도 함께 말이야.”

"래플스 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벨사이즈 양. 그분이야말로 진짜 'A. J.'라고 할 수 있죠!"

카밀라 벨사이즈가 몸을 살짝 돌렸다. 그녀는 아끼는 섬세한 드레스를 바구니 의자에 맡겨둔 채였다. 그 순간, 우리는 거의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이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응시한 적은 분명 없었다. 그때 그녀는 바위틈 연못에서 멍하니 떠다니는 금붕어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대담한 옆모습과 기품 있는 머리칼에서 풍기는 까다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로즈 경기장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돌려보려 애쓰던 중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앞서 말했듯 우리의 시선이 맞닿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눈이 부실 정도였다. 부드러우면서도 찬란했고, 다정하면서도 냉소적이었다. 차분하면서도 무모했고, 대담하면서도 감상적이었다. 지

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눈빛은 그 모든 것을 품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당시의 나는 그저 그 눈부심에 압도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당신과 래플스 씨는 아주 절친한 사이라는 말씀이죠?" 벨사이즈 양이 물었다. 우리를 소개할 때 가랜드 씨가 했던 말을 다시 꺼내며 그녀가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대답했다.

"당신도 테디만큼 그와 각별한 사이인가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지만, 나는 그저 더 오래 사귄 친구라고만 말했다. 그러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덧붙였다. "래플스와 나는 학교를 같이 다녔네."

"정말인가요? 그분은 당신이 오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그저 저보다 선배일 뿐입니다. 마침 제가 그분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래플스 씨는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벨사이즈 양이 물었다. 결코 숭배하는 듯한 어조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헌신은 이미 테디를 향한 것이었고, 래플스에 대한 약간의 질투심이 섞여 있을 법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 학교를 거쳐 간 인물 중 단연 최고의 ‘어드미러블 크라이튼’이었어.” 내가 말했다. “크리켓 팀의 주장인 데다 15인제 경기에서는 발이 가장 빨랐고, 체육 대회 우승자이자 6학년의 자랑이었으니까.”

"그를 아주 숭배하다시피 했겠군요, 그렇죠?"

"물론이지."

동행하던 여인은 금붕어에게 다시 관심을 쏟는 듯하더니, 이내 냉소적인 눈빛을 가득 담은 채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그에게 아주 크게 실망했겠군요!"

“실망이라니요! 대체 왜요?” 나는 겉으로는 아주 즐거운 듯이 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슬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벨사이즈 양이 마치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래플스 씨를 크리켓 선수 말고 달리 아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그렇습니다." 나는 경솔할 정도로 쾌활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벨사이즈 양이 말했다. "그 사람이 그 외에 또 무엇이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제일가는 멋진 친구지."

"하지만 그 외에 또 무엇이 있단 말인가요?"

"테디한테 물어봐!" 나는 운 나쁘게도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았다.

"알고 있어요." 벨사이즈 양이 대답했다. "하지만 테디는 몰라요. 테디는 래플스 씨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일 크리켓 경기에 매달릴 수 있는지 늘 궁금해하거든요."

"허, 그가 정말 그런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하죠."

"사람들은 그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벨사이즈 양은 잠시 망설이며 나를 살피더니, 금붕어 쪽을 훨씬 더 오래 지켜보았다. 대답이 돌아오기 전,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분수 소리는 마치 다시 물을 틀어놓은 듯 커졌다.

"분명 기도보다 더 자주 그를 입에 올렸겠지!"

"설마," 나는 숨이 막힐 듯 물었다. "래플스가 생계를 꾸리는 방식에 대해 말하는 건가?"

"네."

"벨사이즈 양, 그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하지만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라면요?”

"있을지 없을지는 곧 알려주지."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면요?" 벨사이즈 양이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그만큼 그 일에 마음이 쓰이니,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맨더스 씨.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아요."

"설마 믿는 건 아니겠지—"

"래플스 씨는 기지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크리켓 실력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에 대해 하는 말이 고작 그게 다인가요?" 내가 외쳤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벨사이즈 양이 물었다. 내 태도에 놀란 듯 그녀 역시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아, 이제 됐어, 정말 충분하다고!” 내가 말했다. “그건 그저 세상에 떠도는 소문 중 가장 파렴치하게 불공평하고, 완전히 터무니없는 거짓말일 뿐이야. 그게 전부라고!”

물론 이런 지독한 반어법은, 안도감에 휩싸여 터져 나온 나의 첫 반응 역시 그만큼이나 냉소적이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카밀라 벨사이즈는 결코 쉽게 속을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가 단호한 입술을 열기도 전, 그 당당한 눈빛만으로도 나는 그 사실을 불쾌할 정도로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도 당신은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눈치였잖아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나는 내가 저지른 경솔한 실수의 벽에 등을 기댄 채 물었다. “A. J. 래플스 같은 사람이 돈을 받고 일하는 아마추어가 되느니, 차라리 세상 그 어떤 미천한 존재가 되는 편을 택하겠지!”

“하지만 맨더스 씨,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벨사이즈 양, 도대체 왜 그렇게 A. J.에게 관심을 갖는지 아직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모처럼 한 방 먹인 나는, 그 기세를 몰아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맞받아쳤다.

하지만 벨사이즈 양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보다 한 수 위였다. 내가 잠시 우위를 점했던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그 상황 자체와 내 모습 모두를 무안하게 만들며 나를 얼굴이 붉어지게 했다. 그녀는 내게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 친구 래플스 씨에게 꽤 관심이 있지만, 겉으

로는 차마 말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이다. 그저 테디가 그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자신도 그러할 뿐이라며, 그게 그녀가 내게 꼬치꼬치 캐묻고 비난 섞인 말을 내뱉는 유일한 이유라고 변명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가 무례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나는 알 수 있었다. 래플스 씨는 테디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였다. 가끔 그녀는 그가 정말로 좋은 친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바로 그 지점이 상황의 핵심이었다.

정말 그랬다! 나는 그 실체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 쓴맛을 너무나 자주 맛보았기에 결코 착각할 일도 없었다. 질투, 그것이 바로 그 실체의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벨사이즈 양이 래플스를 향해 아무리 질투를 쏟아내든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질투가 의심으로 번지지만 않으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 점에 있어서 완전히 놓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화제를 다소 갑작스럽게 접고 말았다. 그 후 암석원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난초 온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탐험하며 지나간 포도원들을 거닐며 나눈 대화는 아주 상쾌할 정도로 평범했다. 하지만 온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끊임없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이리저리 둘러보던 그 산만한 산책길에서, 내 머릿속에는 카밀라 어머니의 모습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레이디 로라 벨사이즈였다. 겉보기에는 재산이 없어 강가 근처의 한적한 곳으로 밀려나 살게 된 과부였고, 그녀의 이웃들은 교외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내 동행인은 그들의 매너와 관습을 아주 활기차고도 냉소적인 태도로 흉내 냈다.

카밀라는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워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내게 말하며, 나야말로 누구 못지않게 그런 일에 눈살을 찌푸렸을 사람이라며 공연히 단정 짓기까지 했다. 대화가 가장 깊숙한 포도원에 이르렀을 무렵, 잠시 후 포도 덩굴 아래에서는 설리번 담배 두 개비가 한창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벨사이즈 양이 그 유명한 담배 브랜드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심지어 그 담배를 그녀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래플스라는 사실까지 짐작하게 되었다. 카밀라는 래플스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고, 테디 갈랜드의 "꽤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었는데 말이다!

그 대립하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어찌나 궁금하던지. 하지만 래플스가 다시 나타난 것은 한참 뒤인 오후 중반이 되어서였다. 가랜드 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미 그날 오전 전령을 통해 래플스로부터 낙관적인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고 했다. 낯선 집에서 이방인 노릇을 하며 이미 꽤 깊숙이 사건에 발을 들인 처지였기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도 래플스가 호스트인 가랜드 씨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덕분에, 점심 식사 자리는 이전보다 훨씬 매끄럽게 흘러갔으니 다행이었다. 가랜드 씨는 식사 내내 우리 곁을 지켰다. 그러다 집사가 방문객의 명함을 들고 나타나면서, 그는 온실에 있던 나를 뒤로하고 갑작스럽게 자리를 떠났다.

그때부터 내 고난이 다시 시작되었다. 마침내 비가 그쳤다. 벨사이즈 양의 뜻대로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즉시 로즈 경기장으로 떠났을 것

이다. 나는 그녀를 정원으로 데려가 잔디밭의 상태를 보여주었다. 잔디는 고인 물 때문에 차갑게 번뜩였고, 그 가장자리는 마치 인공 운하처럼 길게 파여 있었다. 로즈 경기장도 이와 비슷하겠지만, 아마 상태는 쉰 배는 더 나쁠 터였다. 그런 늪지 같은 곳에서 오늘 경기를 강행했을 리는 만무했다. 하지만 벨사이즈 양의 생각은 달랐다. 직접 차를 몰고 가서 확인해 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면 테디를 놓칠 게 뻔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한섬 마차를 타면 왕복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맞받아쳤다. 나는 그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느라 시간을 좀 벌었지만, 결국 만약 간다면 가랜드 씨도 분명히 같이 가고 싶어 할 것이며, 본인의 브룸(Brougham) 마차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흙탕이 된 오솔길 위에서 이런 실랑이가 이어졌다. 벨사이즈 양이 대체 몇 번이나 말을 바꿀 셈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진흙에 젖어 말랑해진 자갈밭 속으로 푹푹 빠져드는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구두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벨사이즈 양은 내 조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비록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물에 잠긴 뒤꿈치를 홱 돌려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루 종일 궁금해하던 광경을 목격했다. 래플스가 오솔길을 따라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벨사이즈 양이 그와 악수를 하기 전, 잠시 주춤하며 몸을 뻣뻣하게 굳히는 것을 보았다.

"결국 다들 포기했더라고." 그가 말했다. "방금 로즈 경기장에서 오는 길인데, 테디도 곧 도착할 거야."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나요?" 벨사이즈 양이 핵심을 찌르며 물었다.

"글쎄, 최악의 상황을 곧장 알려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네." 래플스가 평소답지 않게 다소 어색한 말투로 말했다. "게다가 대학 대항전 경기에 뛰는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거 알잖아. 그래도 더는 자네를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말이야."

말실수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벨사이즈 양은 그 말을 꽤나 불쾌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크리켓 경기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며 얼굴을 붉혔다. 경기가 끝났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가랜드 씨에게 작별 인사만 하겠다고 했다.

그 갑작스러운 결정은 그녀 자신만큼이나 나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벨사이즈 양은 아무리 성급한 결정이었을지언정, 이미 뜻을 밝힌 이상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그녀는 온실을 지나 서재 문 쪽으로 향했고, 래플스와 나는 반대편 홀로 걸어 나갔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군.” 그가 내게 말했다. “하지만 차라리 잘됐어. 로즈 경기장에 테디가 나타날 기미가 전혀 없으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네도 알 테니까.”

"하루 종일 거기 있었던 거야?" 내가 그에게 나직이 물었다.

"그 신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을 때만 빼고 말이야." 래플스가 대꾸하며 저녁 신문을 휘둘렀다. 그 신문은 래플스가 붙인 '삼류 신문'이라는 멸칭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멀쩡한 신문이었다. "여기 테디에 대해 뭐라고 써 있는지 좀 봐."

래플스가 속보란에 실린 엄청난 기사를 보여주는 동안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내용은 이러했다. 이튼 출신이자 트리니티 대학 소속인 E. M. 가랜드가 "부친의 중병" 때문에 결국 케임브리지 팀의 위켓 키퍼로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 말인가!" 내가 외쳤다. "아니,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저 문 뒤에서, 그의 아버지는 분명 누군가와 단둘이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게 분명해!"

"알아, 버니. 그 사람을 직접 봤어."

"세상에, 제대로 된 신문에 실릴 만한 내용이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날조가 실릴 수 있단 말인가! 자네가 그 일로 사무실까지 찾아간 것도 무리는 아니군."

"그 신문사에 내 옛 친구가 하나 있다고 말하면, 아마 더더욱 이상할 게 없을걸세."

"당연히 그에게 그걸 곧장 빼버리게 시킨 거겠지?"

"아니, 오히려 반대야, 버니. 내가 그에게 그걸 집어넣으라고 설득했거든!"

래플스는 내 면전에서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가 이보다 훨씬 더 악랄하지만, 이번 일보다는 덜 난해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도 늘 그렇게 웃곤 했었다.

“버니, 오늘 아침 서재에 있던 그 불쌍한 영감이 얼마나 초췌해 보였는지 못 봤어? 그걸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소설도 결국 사실에 바탕을 두는 법이니까. 자네는 왜 내 의도를 못 알아채는지 모르겠군. 사실 의도는 두 가지야. 오늘 아침 내가 맡은 일도 두 가지였거든. 하나는 테디를 찾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로즈 경기장에서 테디의 체면을 살려주는 일이지. 뭐, 아직 테디를 실제로 찾아낸 건 아니야. 하지만 그가 살아만 있다면 이 글을 읽게 될 테고, 글을 읽는 순간 자네조차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짐작할 수 있을걸! 그동안 로즈 경기장에서는 모두가 테디를 안타까워하며 동정하고 있어. 스터들리는 더없이 친절한 사람이었으니까. 내일 마지막 순간까지 테디를 위한 자리를 비워둘 거래. 버니,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일석이조를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해봐. 만약 이 방법이 틀렸다면, 다시는 이런 묘수를 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하지만 래플스, 늙은 가랜드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나?"

“이미 말했어, 버니. 점심 먹기 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쪽지로 미리 알려줬거든. 방금 도착하자마자 그가 마중 나와서 내가 뭘 했는지 묻더군. 내가 테디를 찾아내서, 세상 사람들 앞은 물론이고 특히 벨사이즈 양 앞에서 그의 체면을 세워주기만 한다면 그는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아. 조심해, 버니. 저기 온다!”

그의 속삭임에 담긴 흥분은 평소 래플스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카밀라 벨사이즈의 변화였다. 그녀는 우리가 먼저 지나온 거실을 거쳐 홀로 들어섰다. 순간 나는 그녀가 엿듣

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얼굴에서 개인적인 불쾌함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타인을 향한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2, 3분 전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이미 다 용서했다는 듯, 래플스와 내게 다가왔다.

"결국 서재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녀가 서재 문 쪽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가랜드 씨가 누군가와 꽤나 힘겨운 면담을 나누는 모양이라서요. 망설이는 사이에 그 남자의 얼굴을 아주 잠깐 보았는데, 왠지 아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구였습니까?" 내가 물었다. 온실에서 가랜드 씨가 그토록 갑작스럽게 우리를 두고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 같은 이 시간에 대체 누구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 나 역시 궁금했기 때문이다.

“강가 근처에서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고약한 사람이에요.” 벨사이즈 양이 말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재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고약한 남자가 나타났다. 유럽 전역에 악명이 자자한 고리대금업자 댄 레비였다. 그는 오늘 아침 우리가 희생시킨 대상이자, 앞으로 평생을 두고 싸워야 할 확실한 적이었다.

제7장

득점에 실패한 경기

레비 씨는 프록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반짝이는 모자를 손에 든 채 들어왔다. 그는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래플스 역시

이번만큼은 우리가 레비 씨의 등장을 예상이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내 상태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한바탕 엄청난 소동이 벌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당당했고, 적수라고 할 만한 레비 씨 또한 그에 못지않게 품위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가볍게 목례를 나누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만 한쪽에는 밑바닥에 깔린 적개심이, 다른 한쪽에는 즐거운 듯한 반항심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우리 세 사람 사이의 진짜 상황을 들킬 만한 말이나 어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두 주인공의 기색을 살피며 눈치를 빠르게 챈 덕분에, 이 기묘한 삼자 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사이 가랜드 씨는 눈에 띄게 당혹스러워 보였고 안색도 무척 나빠 보였는데, 감정을 숨기는 데 결코 우리 중 제일 서툰 편은 아니었다. 그는 우리 셋이 서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묘하다며 씁쓸한 만족감을 내비치더니, 벨사이즈 양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마치 레비 씨가 평범한 손님이라도 되는 양 곧바로 그를 소개했다.

"이 아가씨 말고는 더 나은 예외를 찾아보셔야 할 겁니다!" 그 신사다운 분이 아주 태연하게 외쳤다. "벨사이즈 양, 당신은 구면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어머니인 레이디 로라 부인도 잘 알고 있지요."

"정말인가요?" 벨사이즈 양이 되물었다. 굳이 답례의 칭찬을 돌려줄 생각은 없어 보였다.

"거래라니!" 래플스가 교활한 조소를 띠며 내게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레비에게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으나, 어찌 된 일인지

그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하지만 레비는 능수능란한 세련미를 발휘하며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넘겼다.

"업계 용어를 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설명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흥정은 제 전공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래플스 씨, 저는 흥정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설령 손해를 본다 해도, 상대방은 대개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며 살게 되니까요."

그 말은 벨사이즈 양을 배려해 웃으며 던진 농담이었지만, 우리를 향한 눈빛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다. 래플스는 그 농담에 훨씬 더 호탕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못 본 체했다. 벨사이즈 양이 두 사람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이윽고 차 쟁반이 들어오면서 멈췄다. 가랜드 씨는 그녀에게 차를 따르는 일을 맡아달라며 정중히 청했다. 가랜드 씨는 우리 모두를 번갈아 가며 불안한 눈초리로 살피는 듯했다. 그는 래플스를 바라볼 때면, 마치 당장이라도 그를 따로 불러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애틋한 기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러지 않았고, 대신 고리대금업자에게는 엄격할 정도로 예의를 갖추며 대했다. 그 모습은 가랜드 씨의 걱정이 비단 아들의 행방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벽난로 불빛 아래 우리가 그녀를 둘러싸고 앉아 있을 때, 벨사이즈 양이 말을 건넸다. "레비 씨, 지난번에는 아주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신 것 같더군요?"

"벨사이즈 양, 방금 그게 어디였죠?"

"유럽 대륙 어딘가였죠, 그렇지 않나요? 신문에 실렸던 건 기억나는데,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렸네요."

"제 아내와 제가 카를스바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하루 종일 그러지 않았을 만큼, 이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반면 래플스는 마치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찻잔을 바라보며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다.

"카를스바트였어요!" 벨사이즈 양이 마치 그게 대수라도 된다는 듯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이제 기억나네요."

"그걸 두고 승부를 겨뤘다고 할 수는 없지." 고리대금업자가 말했다. "무기도 없이 겁에 질린 아내를 곁에 둔 사내가, 장전된 리볼버를 든 악랄한 범죄자를 상대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정말 그 정도로 심각했나요?" 카밀라 벨사이즈가 속삭이듯 물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의도로 이 불운한 화제를 억지로 꺼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사건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레비 씨가 기꺼이 털어놓으려 하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녀는 더 알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이야기 소재로는 아주 그만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범인을 잡고 나서야 제대로 들려드리고 싶군요. 벨사이즈 양, 더 알고 싶으시다면 래플스 씨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양반

이 우리 호텔에 묵고 있었거든요. 그 소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겪었지요. 하지만 저와 제 아내에게는 조금 지나치게 소란스러운 일이었답니다."

"래플스가 카를스바트에 있다고?" 가랜드 씨가 외쳤다.

벨사이즈 양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맞습니다." 래플스가 대답했다. "그곳에서 레비 씨를 만나는 즐거움을 누렸지요."

"그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고리대금업자가 우리 집주인에게 물었다. 가랜드 씨가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 대답하자, 고리대금업자는 래플스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하지만 선생님, 오늘 아침에 잠시 뵈었던 것 말고는 저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래플스가 말했다. "게다가 저는 어젯밤에야 막 돌아왔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래플스, 자네가 카를스바트에 다녀왔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잖아!"

"그게 참 아픈 구석이라서 말입니다." 래플스가 한숨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안 그렇습니까, 레비 씨?"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군요." 고리대금업자가 대답했다.

벽난로의 묵직한 선반에 각자 어깨를 기댄 채, 두 사람은 불빛 아래 마주 보고 서 있었다. 찻쟁반 뒤에 앉은 카밀라 벨사이즈는 여전히 그들 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나는 홀 반대편에서 그 세 사람을 번갈아 가며 지켜보았다.

“하지만 래플스, 자네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몸 튼튼한 사람 아닌가.” 늙은 갈랜드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기민하게 말을 이었다. “대체 카를스바트 같은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건가?”

“치료뿐이지요.” 래플스가 말했다. “거기선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레비 씨?”

레비는 래플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아내의 보석을 훔쳐 가놓고는, 겁에 질려 거의 돌려주다시피 하는 그런 '상류층 도둑놈'을 상대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그 강조된 표현은 바로 오늘 아침, 댄 레비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래플스와 나를 가리켜 썼던 바로 그 말이었다.

"그가 그것들을 다시 돌려주었나요?" 카밀라 벨사이즈가 참지 못하고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래플스는 즉시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보석은 숲속에 파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사람들은 도둑이 그저 보석을 그곳에 숨겨두었다고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레비 씨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레비 씨는 벽난로 불빛 아래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 나도 벨사이즈 양이 했던 것처럼 뒤늦게나마 한마디를 거들었다.

“오스트리아의 오지에도 그런 상류층 도둑놈들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내가 말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리대금업자가 선뜻 인정했다. "하지만 진짜배기 범죄자라면 유럽 대륙 구석구석을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만큼이나 훤히 꿰고 있는 법이죠. 본거지는 런던일지 몰라도, 훔칠 만한 물건만 있다면 한 시간 만에 연락을 받고 일주일 거리의 여행을 떠나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레비 부인의 목걸이는 실제로 카를스바트에서 훔쳐 갔지만, 아마 런던의 어느 극장이나 식당에서 미리 눈독을 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래플스 씨?"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군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래플스가 아주 유쾌하게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자가 영국인이었고, 당신 또한 영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저속한 언어로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을까요?"

"그가 안 그랬다고 누가 그래요?" 레비가 외쳤다. 그의 입가에 갑자기 번진 미소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었

다. 사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지난 몇 분 동안 이미 내 눈에 뻔히 보였다. 하지만 저렇게 대놓고 드러내는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그 일에 대해 나한테 말해준 사람이 당신이랑 레비 부인 말고 또 누가 있나?” 래플스가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조금씩 어긋나긴 해도, 그놈이 권총을 들이댄 건 물론이고 독일어로 협박까지 했다는 점만큼은 일치하더군.”

"우리는 그게 독일어인 줄 알았죠." 레비가 능숙하게 말을 받았다. "내가 알기론 힌두스타니어나 중국 말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리볼버만큼은 틀림없었습니다. 그 총구가 나를 겨누고 있었고, 그놈이 총신 너머로 내 눈을 꿰뚫어 보듯 조준하던 모습이 지금 래플스 씨를 바라보는 제 눈만큼이나 똑똑히 보였다니까요."

래플스가 웃음을 터뜨렸다.

“레비 씨,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괜찮은 모습이었으면 좋겠군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다른 그 친구는 아주 흉악한 살인마처럼 보였다면서요?”

"정말 그랬습니다." 레비가 말했다. "그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유난을 떨더군요. 얼굴은 검게 칠하고 변장까지 했지만, 치아만큼은 당신의 치아처럼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까?"

"나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 그 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래플스가 두 손을 내밀었다.

"내 것도 제대로 한번 봐 두는 게 좋을 거야."

"그의 손은 얼굴만큼이나 검었더군. 하지만 자네 손이라고 해서 딱히 더 매끄럽거나 깨끗한 건 아니지 않은가."

“레비 씨, 조만간 그놈들에게 수갑을 채우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래플스 씨, 약속하죠. 당신 소원대로 될 겁니다."

"설마 범인을 찾아냈다는 건 아니겠지?" A. J. 래플스가 가볍게 외쳤다.

"그놈을 눈여겨보고 있겠어!" 댄 레비가 대답했다. 그는 래플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보았다.

"대체 그가 누구인지 우리에게도 말해주지 않겠나?"

래플스가 물었다. 그는 그 살기 어린 눈빛을 미소 띤 흥미로 받아넘겼다. 하지만 대답하는 목소리만큼은 방금 전의 눈빛만큼이나 서늘했다. 다니엘 레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담을 던지듯 가벼운 어조를 끝까지 유지했다.

레비의 마지막 말만이 상황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만약 유럽에서 가장 예리한 눈과 귀를 가진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그 대화 전체를 그저 가벼운 농담 정도로 치부했을 것이라 단언한다.

두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나누는 대화 이면에, 얼마나 치열한 결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미소 뒤에 숨은 미묘한 눈빛과 몸짓의 교차, 그리고 은밀하게 흐르는 기싸움의 파동을 읽어낼 수 있는 이도 나뿐이었다.

나는 레비가 속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무례한 도전을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즉시 래플스를 폭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망설였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교활하고 거친 그 얼굴에는 그의 심중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불길한 빛으로 번뜩였을 때, 나는 직감했다. 이것이 단순히 무모한 폭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훨씬 더 악의적인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말이다.

“맞아!” 거의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대체 누구였는지 우리한테 말해줄 순 없어?”

"아직은 아닙니다." 레비가 래플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그놈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벨사이즈 양을 바라보았다. 말을 꺼낸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창백한 얼굴은 굳어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오전 내내 래플스에 대해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지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문득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불빛이 일렁이는 이 홀에서 벌어진 일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목격자가, 결국 나뿐인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어쨌든 가랜드 씨는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인자한 얼굴에는 아주 잠깐, 우리와 눈이 마주치는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모호한 분노와 괴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러다 그의 눈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다. 그는 마치 다시 젊어진 사람처럼, 혹은 신비로운 기운을 얻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 현관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다음 순간 땡땡이를 치고 놀던 테디가 우리 사이에 나타났다.

가랜드 씨는 손을 내밀어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놀란 기색도, 질문 한 마디도 없었다. 환호성을 지른 건 테디였다. 테디는 마치 홀 전체를 혼자 차지하기라도 한 듯,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질문을 쏟아냈다.

"저녁 신문에 나온 건 다 뭐예요? 누가 그런 기사를 쓴 거예요? 정말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테디." 가랜드 씨가 약간은 쓰라린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내 평생 이보다 건강했던 적은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아들이 야생마 같은 단순함으로 외쳤다. "분명 지독한 장난일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장난을 친 놈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놓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가 유일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인 듯했다. 고통에 빠진 그가 차마 다른 누구의 얼굴도 마주하지 못한 채, 오직 아버지 앞에서만 마음을 터놓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젊은 갈랜드가 방금 막 커다란 풍파를 겪은 사람처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전보다 훨씬 더 매끈하고 혈색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격정적인 분노를 내뿜는 순간만큼은, 예전에 보았던 그 굴욕적이고 초라한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당당한 사내의 기개가 느껴졌다.

래플스가 벽난로가에서 몸을 일으켜 앞으로 걸어 나왔다.

"결국 로즈 경기장에서 자네를 데려온 저 거지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게나." 그가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처럼 그 거지를 너그럽게 봐줄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자네를 직접 보았거나, 경기장에서 자네가 무엇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찰나, 나는 테디 갈랜드가 이 냉정한 거짓말을 거부하고 자신이 진짜 어디에 있었는지 전부 털어놓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실을 말하는 건 불가능했다. 그렇게 했다간 래플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터였고, 무엇보다 테디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믿었던 실종 사건을 카밀라만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중적인 상황은 테디에게 너무나 버거웠다. 그는 굳이 사과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당황한 기색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소년이 오로지 아버지의 안부 소식만을 머릿속에 가득 담은 채 우리 사이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아챌 수 있었다. 벨사이즈 양은 그런 테디의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든 듯 보였다. 아니면 평소 보기 드문, 그리고 그에게 그리 어울리지도 않는 흥분한 모습이 흥미로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테디의 분홍빛 얼굴은 불꽃처럼 달아올랐다. 눈

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마침내 테디의 시선이 내 눈과 마주쳤고, 그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러나 그 다정한 눈빛은 배경에 서 있는 그의 천적을 발견하자마자 순식간에 분노의 불길로 타올랐다.

"결국 협박을 실행에 옮기셨군요, 레비 씨!" 젊은 가랜드가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차분하게 말했다.

"보통은 그러하죠." 고리대금업자가 악의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의 협박 말이야!" 가랜드 씨가 날카롭게 외쳤다. "테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말해 주겠소.” 청년이 입을 열었다. “당신도 들으시오!” 카밀라 벨 사이즈가 막 자리를 뜨려는 듯 몸을 일으키자, 그는 거의 쏘아붙이듯 덧붙였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좋을 거요. 나는 빚을 졌소. 그리고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렸단 말이오.”

"그에게 돈을 빌렸다고?"

말하는 이가 가랜드 씨라는 사실을 알아채기란 쉽지 않았다. 목소리는 낯설게 변해 있었고, 그 안에 담긴 강조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는 말을 내뱉으며 레비에게 새로운 혐오와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다.

"맞아요." 테디가 말했다. "케임브리지에서의 첫해 내내 그자가 그 끔찍한 전단지를 매주 보내며 저를 괴롭혔거든요. 심지어 본인이 직접

쓴 편지까지 보냈을 정도예요. 마치 제 속사정을 다 알고는 저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 같았죠. 결국 그 계획대로 저를 꽉 붙잡았고, 제가 자초한 일인 만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제 돈을 뜯어갔어요. 제 입장에서는 딱히 불만은 없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이번만큼은 다시 아버지께 손을 벌리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며칠 전 그자에게 그렇게 말해버린 게 제 실수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자가 직접 아버지께 찾아가겠다고 협박했거든요. 그런데 설마 오늘 당장 들이닥칠 만큼 무식한 인간일 줄은 몰랐어요!"

"아니면 그만큼 바보인 걸까?" 래플스가 테디의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여주며 슬쩍 말을 건넸다.

그것은 그가 직접 작성한 약속어음이었다. 바로 그날 아침, 우리가 댄 레비에게서 되찾아온 바로 그 어음이었다. 테디는 어음을 힐끗 보더니 래플스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마치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리대금업자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럼 이제 우리 사이에 빚은 없는 거지?"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은 당신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댄 레비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당신에게 빚진 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는 영수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나한테 빚진 돈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이야."

“그래도 결국 우리 아버지께 오셔야 할 겁니다. 돈도 챙기면서 동시에 복수까지 하겠다니, 양쪽 다 손에 넣으시겠다는 심산이군요!”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쇼." 레비가 거대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사실은 아니지만,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겠소?"

“아니,” 테디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제시간에 돌아왔으니,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무엇을 제때에 맞추겠다는 거지?"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 버리겠어!"

덩치 큰 남자는 체격 좋은 젊은 상대방을 훑어보더니,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웃음소리를 내며 팔짱을 꼈다.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세상에, 레비 씨! 정 그렇게 나오시겠다면야! 여기 모자 받으시고, 문은 저쪽입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일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고리대금업자는 반짝이는 실크햇을 받아 들더니 소매로 정성스럽게 닦았다. 그러고는 시키는 대로 현관 문턱까지 걸어갔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처진 코 아래로 비어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는 기색을,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는 교활한 빛을. 그러니 그자가 뒤돌아서며 비아냥거리는 한마디를 던졌을 때,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

다. 다만 그 독설이 생각보다 무해했다는 사실에 조금 당황했을 뿐이다.

“실례지만, 이 집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가 물었다. 지나치게 신중하게 내뱉는 숨소리가 섞인, 그 말 자체만으로도 유독 눈에 띄는 말투였다.

"내 건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난 이 집 아들이니까, 당장 나가!" 테디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어서 나가라고!"

“그곳이 정말로 당신 부친의 저택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레비가 물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보여줄 수 있는, 소름 끼칠 정도로 부드럽고 능청스러운 말투였다. 가랜드 씨가 신음 섞인 소리를 내뱉자, 레비의 질문에 담긴 의구심이 사실인 듯 확인되었다.

"이곳 전체가 다 그 사람 거예요." 아들이 신경질적인 경멸을 담아 선언했다. "대지 소유권을 포함해서 전부 다 말이죠."

“이곳은 전부 내 소유야. 등기까지 완벽하게 마친 내 땅이라고!” 레비가 얼음처럼 차가운 독설을 한 음절씩 끊어 내뱉으며 쏘아붙였다. “당장 나가라고? 그건 너희들 몫이지. 일주일 주겠다. 너희 둘, 딱 일주일 안에 비워!”

그는 승리감에 도취한 채 문가에 우뚝 서서 잠시 동안 우리 모두를 차례로 쏘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물렀고,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곳은 다름 아닌 래플스였다.

"그 노인네를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곤 꿈도 꾸지 마!" 격앙된 목소리가 뱀이 쉿쉿거리는 듯한 소리로 터져 나왔다. "아들을 구해냈던 것처럼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네놈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으니까!"

제8장

사건의 개요

나는 당연히 그 비참한 현장에서 서둘러 빠져나왔다. 래플스 역시 불행한 친구들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았다. 사건의 한 측면을 생각하면 그를 두고 떠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 재앙 같은 하루 동안 겪은 소동과 불안을 뒤로하고 클럽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고 싶다는 생각은 간절했다. 밤을 꼬박 새운 탓에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고, 나로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 모든 일이 한여름의 낮과 밤 사이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래플스가 돌아오고, 우리 둘 다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 클럽에서 광란의 밤을 보냈던 일, 올버니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했던 그 극적인 물세례, 밤새 이어진 고백과 회의, 그리고 아침에 벌어진 고리대금업자의 몰락까지. 게다가 테디 갈랜드가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내가 그의 아버지 댁에서 보낸 하루와 쏟아진 비, 그리고 위태로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썼던 속임수까지.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결국 고리대금업자가 래플스와 그의 친구들을 굴복시키는 최악의 비극을 초래했을 뿐이었다.

되돌아보면 이미 어지러울 정도로 얽힌 사건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지나온 일을 회상하다 보면 본래 순서가 뒤바뀌기 마련이다. 지금 내 머릿속을 가장 크게 지배하는 것은 래플스가 새로 마주한 위험이었고, 내 귓가에 가장 강렬하게 울리는 것은 레비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였다.

가랜드 가문의 몰락은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으나, 나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깊은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위협 앞에서는 단순한 수수께끼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가련한 이들의 몰락을 분석하는 것보다, 그 뒤를 이어 우리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인 래플스마저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정말로 카를스바트에서 저지른 범죄가 그의 덜미를 잡은 것일까? 레비는 래플스를 경찰에 더 확실히 넘기려고, 일부러 대놓고 비난하는 것만 참았던 것일까? 저녁 식사 내내, 그리고 밤이 깊도록 이런 의구심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다 흡연실 내 구석 자리에 래플스가 나타났다. 그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활기찬 발걸음과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보게, 버니! 난 그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다시 생각한 적이 없다네."

내가 초조하게 캐묻자 그가 대답했다.

"그런데 대체 왜 댄 레비가 문제라는 건가? 그는 이미 우리에게 꽤 쏠쏠한 이득을 안겨주었네. 증명할 수도 없는 사실을 떠벌려서 스스로

곤경에 처할 만큼 바보가 아니란 말일세. 설령 그가 말을 꺼낸다 해도 스코틀랜드 야드에서는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 애초에 그건 그들의 업무도 아니니까. 설령 업무라 해도, 우리 '샤일록' 선생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걸세. 나를 몰아세울 증거가 그에게는 단 한 조각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내가 말했다. "그가 우연히라도 진실을 짚어냈다면, 형사 사건에서는 이미 절반은 이긴 셈이지."

"그게 만약 내가 싸워볼 만한 승부라면 정말 기꺼이 뛰어들 텐데, 승산이 온통 1번 녀석에게만 쏠려 있으니 문제지! 결국 어떻게 되겠어? 그는 자기 물건을 되찾을 거고, 손해 볼 것도 전혀 없을 거야. 하지만 다른 문제로 나랑 한바탕 다투고 나면, 그는 내가 그 게르만 도둑과 한 패라고 몰아붙이겠지! 하지만 버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닐 거야. 그는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 댄 레비는 결코 바보가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상대해 온 놈들 중 가장 화려한 악당이지. 그놈의 수법이 궁금하면 올버니로 와. 내가 눈을 번쩍 뜨게 해 줄 테니까."

그의 눈은 생기와 빛으로 반짝였다. 비록 전날 밤 채링 크로스 역에 도착한 이후로 눈을 붙인 적이 없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자정은 그에게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가장 밝게 빛날 때, 래플스는 비로소 제 기량을 발휘했다. 대낮의 로즈 경기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저 유서 깊은 방들 속,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말이다. 참으로 저 유명한 다니엘은 그에게 더없이 마음에 드는 화젯거리였다.

"버니, 저 자는 내 검은 심장과 꼭 닮은 악당이야! 엑스칼리버를 휘두를 만한 가치가 있는 숙적이라고!"

그는 더 큰 판돈을 걸고 치열한 승부를 벌일 때 느끼는 그 강렬한 희열을 얼마나 갈망했던가! 하지만 이번 판돈은 래플스조차 절망하며 고개를 저을 만큼 너무나도 컸다. 적의 매혹적인 기량에 매료되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친구들이 처한 비참한 처지를 떠올리며 이내 엄숙하게 굳어졌다.

"버니, 자네에게 말해도 좋다는 허락은 받았네. 하지만 수치들을 서면으로 확실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함구해야 해. 불쌍한 가랜드 가문 사람들을 저 거미줄에서 건져낼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말이야. 그런데 버니, 솔직히 말하자면 희망은 없는 것 같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 내가 말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똑같이 그 거미 덫에 걸려든 건지 말이야. 게다가 아버지는 사업가라면서!"

"그가 결코 되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 그게 이 모든 일의 핵심이야." 래플스가 대답했다. "그는 대단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정작 사업가 체질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몇 년 전 동업자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의 지분을 사들였지. 그러고 나서 불쌍한 노인 가랜드가 네가 오늘 하루를 보낸 그곳에 무리하게 돈을 쏟아부은 거야, 버니. 그게 결국 그를 파멸로 몰아넣었지. 처음부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 그 정도 돈이면 런던의 웬만한 광장 근처에 집을 한 채 갖거나, 아니면 시골에

아주 근사한 저택을 가질 수 있는 금액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그 두 가지를 어설프게 섞어놓은 곳에 돈을 쏟아부었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설픈 조합이 바로 그 신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요인이었어. 가랜드 부인 시절부터 그랬지만, 부인이 그곳에 유독 마음을 쏟았던 모양이야. 그러다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가엾게도, 온실의 마지막 포도 덩굴이 채 자라기도 전이었어. 결국 노인은 홀로 남겨져 그 막대한 빚을 감당해야만 했던 거야."

"그 일이 있은 뒤에, 아예 판을 엎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군." 내가 말했다.

"그 사람도 마음은 굴뚝같았을 거야, 버니. 하지만 그런 집을 단 5분 만에 처분할 수는 없지. 그 집은 참 애매한 물건이었거든. 돈 좀 있는 평범한 집 구매자라면, 차라리 도심에 더 가깝거나 아니면 아예 외곽으로 나가길 원했을 테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버티기만 한 것도 아니었어. 거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거든. 켄싱턴 그 지역은 지금 점진적으로 재개발되는 중이야. 노인 가랜드가 땅을 통째로 사두었으니, 조만간 건축 부지로 팔아넘기면 꽤 쏠쏠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지.

그게 바로 그가 무리하게 돈을 쓴 유일한 변명이었어. 사실 그건 아주 훌륭한 투자였거든. 만약 그가 유지비나 생활비로 쓸 여유 자금을 좀 더 남겨두었더라면 말이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그는 곧 돈은 많지만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는, 말 탄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지. 결국 그

는 말을 헐값에 파는 대신, 도박판에 내던지는 악수를 두고 말이야. 그건 실력 좋은 기수들도 수없이 무너뜨린 위험한 도박이었어.”

"방금 그게 무슨 소리였지?"

"남아프리카 광산주였지!" 래플스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당시 그 주식들이 엄청나게 팔려 나가던 때였거든. 불쌍한 가랜드 노인은 운 좋게 첫 판을 땄는데, 그게 화근이었어. 피 맛을 한 번도 못 본 늙은 호랑이가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 존경받는 양조업자였던 그는 눈이 뒤집혀 무모한 도박꾼이 되어버렸고, 아무 데나 닥치는 대로 돈을 쏟아붓다가 결국 손실을 메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지. 손실액이 아주 어마어마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를 파멸시키기엔 충분했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 수천 파운드씩 쏟아부어야 했으니, 정식으로 저당을 잡힐 시간조차 없었거든. 당장 돈을 갚거나, 아니면 엄청난 이자를 감수하고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그런데 가랜드 노인은 댄 레비에게서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빌려놓고는, 또다시 운에 몸을 맡긴 거야!"

"또 잃었단 말인가?"

“또 잃고, 또 빌렸지. 이번엔 집을 담보로 잡혔어. 요점만 말하자면, 그가 소유했다고 믿는 모든 재산이, 집의 벽돌 한 장부터 나무 막대기 하나까지 전부 댄 레비의 손에 넘어간 지 벌써 몇 달, 아니 몇 년이나 됐다는 거야.”

"일종의 저당이라도 잡힌 건가?"

"이자율만 따지면 아주 멀쩡하고 평범한 저당권이었어. 다만 6개월 뒤에는 언제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어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불쌍한 가랜드는 첫 1만 파운드에 붙은 악랄한 이자 때문에 밑바닥까지 탈탈 털리고 있어. 당연히 나중에 1만 5천 파운드를 더 갚으라고 요구하면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말이야. 그래도 가랜드는 레비가 돈을 독촉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된 거야. 레비는 자기가 원할 때면 언제든 담보물을 압류할 권리가 있거든. 다만 지금 당장 건물을 비워두는 건 그에게도 손해야.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랜드는 일부러 안심하며 속고 있는 셈이지. 우리가 오늘 아침 그 고리대금업자 녀석을 제대로 몰아붙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계속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야."

"그럼 우리 잘못이라는 건가, A. J.?"

"내 잘못이야." 래플스가 자책하듯 말했다. "버니, 내 생각엔 이건 전적으로 내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늙은 악당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그 소년을 구했듯 가장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 소중한 오른손이라도 기꺼이 내놓겠어!"

"그런데 그가 어떻게 두 사람을 동시에 덫에 빠뜨릴 수 있었던 건가?" 내가 물었다. "아버지가 이미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데, 아들에게 거액을 빌려준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겠나?"

"짚어볼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래플스가 말했다. "그놈들은 네가 갚을 수 없는 만큼 빚을 지기를 바라거든. 그들이 신경 쓰는 건 원금

이 아니라 네가 내야 할 이자야. 일단 한 번 물어뜯기 시작하면, 네가 도망가는 걸 제일 싫어하지. 이번 경우라면 레비도 가엾은 노인 가랜드가 아들놈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잘 알 거야. 그 노인은 아들을 제대로 뒷바라지하면서도, 무엇보다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 하거든. 레비는 그 아들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낼 거야. 아들 본인도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비밀을 알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 말이야. 아들이 비밀을 알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지. 그러면 레비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차라리 아들에게도 지킬 만한 비밀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낫겠어. 그러면 둘 다 입을 다물 테고, 상황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둘 다 내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레비는 테디를 찾아내서 덜미를 잡고는, 이번 명예훼손 소송이 터져서 상황이 정말로 막막해지기 전까지 아버지와 아들에게 서로 모르게 따로따로 자금을 대주겠지. 물론 상황이 아주 막막해진 건 아니야. 가치가 오르고 있는 큰 재산을 손해 보고 팔아야 할 정도는 아니니까. 하지만 사람이 상류층 고객들은 계속 관리하면서, 주변의 소액 채권자들을 쥐어짜게 만드는 딱 그런 상황이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그 노인네가 법무장관을 직접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있다는 말도 있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다른 비용까지 다 합치면 수천 파운드는 깨질 거라는 소문이 파다해."

"제발 그자가 그 소송에서 졌으면 좋겠군!"

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술을 들이켰다. 그사이 래플스는 당연하다는 듯 이집트 담배에 불을 붙였다. 레비 씨가 어떤 수법을 쓰는지에 대

한 래플스의 그 그럴싸한 설명은, 아마도 불운한 친구들이 털어놓은 사실에 근거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생소한 분야를 이토록 막힘없이 꿰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래플스다웠다.

나는 벨사이즈 양이 그 굴욕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짐작하며 말을 건넸다. 그러나 래플스는 그녀가 끝까지 다 들었다고 짧게 대답했다. 래플스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사실은 이러했다. 벨사이즈 양은 그녀의 그 용기 있는 눈빛만큼이나 침착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테디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카밀라 벨사이즈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내가 그녀의 기개에 찬사를 보내자, 래플스는 일부러 보란 듯이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다. 벨사이즈 양이 래플스를 꼬투리 잡으며 신나게 몰아붙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래플스의 태도는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되어 눈에 띌 정도였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결론은 하나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도무지 정이 붙을 리 없다는 것. 그리고 나는 매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래플스가 훨씬 더 골치 아프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또 다른 주제가 있었다. 만약 내가 테디 갈랜드에게 조금이라도 더 깊은 동정심을 가졌더라면, 그가 그토록 요란하게 사라진 이유를 마지막까지 미뤄두지 않고 진작에 캐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래플스가 그 일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해주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자,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아니야, 버니." 그가 말했다. "그 아이를 밀고할 생각은 없어. 아버지는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지. 그거면 충분해."

"신문에 실린 그 기사 때문에 그가 돌아온 건가?"

래플스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마치 사자가 우리 안을 서성거리듯 느릿하게 걷다가 멈춰 섰다. 그리고 그가 지은 미소는 그 자체로 충분한 긍정의 대답이었다.

"정말이지, 버니.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돼." 그가 실제로 대답한 말은 이것이었다. "그건 공평하지 못한 일이야."

"그게 나한테 공평한 처사라고는 생각 안 드는데." 내가 맞받아쳤다. "네 친구가 남긴 흔적을 지우라고 시키고, 하루 종일 연기할 거짓말까지 던져주더니, 막상 그 친구가 나타나면 나만 쏙 빼놓고 비밀을 공유하겠다니 말이야. 이건 명백히 내 선량한 성품을 이용해 먹는 거야. 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 됐어, 버니." 래플스가 상냥하게 말했다. "네가 정말로 마음을 썼다면, 이번 일로 네가 겪은 그 형편없는 대우에 대해 내가 반드시 사과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니, 대신 약속 하나 하지. 만약 내가 댄 레비를 상대로 한 번 더 한탕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절대로 너를 끌어들이지 않을게."

"설마 진심으로 그러려는 건 아니지, 래플스?"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서라도 그놈에게 복수할 기회만 생긴다면, 난 기꺼이 그렇게 할 작정이야."

"레비에게 진 가랜드 가문의 빚을 청산해 줄 기회를 말하는 건가?"

"댄 레비에게 당한 내 원한은 말할 것도 없지! 이 불쌍한 친구들을 돕는 건 별개로 치더라도, 그 스포츠맨 녀석과 다시 한번 맞붙어보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릴 지경이라니까. 버니, 이건 순전히 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야."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 게임을 하려다 자네 인생의 비밀스러운 광산에 불을 붙여버리고, 자네의 명성까지 통째로 날려버릴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래플스와 어울리다 보면 누구나 화려하고 유려한 비유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내가 그의 경쾌한 말투를 흉내 내자, 내가 본받는 그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특유의 쓸쓸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약간 슬프게 끄덕이는 듯 보였다. 래플스는 열린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내가 꼬박 하루 전, 그 지루하기 짝이 없던 24시간 전에 했던 것처럼 몸을 돌려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가 내게 말하지 않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고 싶었다. 스스로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말이다. 쾌활하고 호전적인 그의 가면 뒤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아니, 가랜드 가문의 평범하고도 불운한 사건들 뒤에도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들은 그저 구실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로 '원인'일 수 있을까?

밤은 전날과 다름없이 고요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흘렀더라면 무언가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이 멎은 순간, 문밖에서 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아주 부드럽고 은밀했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였다.

제9장

삼중 동맹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신발 밑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 뒤에는 한참 동안 정적이 이어졌다. 로비로 이어지는 문 너머, 보이지 않는 쪽으로 손이 스르르 지나가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했다. 마지막 소리는 어쩌면 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비와 계단 사이에는 바깥문이 하나 더 있었다. 우리가 들어올 때 래플스가 분명히 닫는 것을 보았던 그 문 말이다.

지금 당장 그의 주의를 끌 수는 없었다. 게다가 나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쪽이 되는 것을 언제나 즐겼다. 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상황이 확실해지자, 나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문을 확 열어젖힌 순간, 안쪽 문에서 요란한 노크 소리가 울렸다. 문밖에 서 있던 것은, 이를테면 '다니엘 레비 야간 특별판'이라 할 만한 그 자신이었다. 그는 화려한 프릴 셔츠에 커다란 보석 단추를 달

고, 흰 조끼와 장갑을 꼈으며, 실크햇과 시가까지 들고 있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천박한 한량의 전형적인 차림새였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매끄럽고도 능청스럽게 물었다.

"이런, 정말이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꽤 오래전부터 와 있었으면서! 아주 잘 들었어. 문밖에서 엿듣고 있었던 거지? 아마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을 거야. 내가 문을 열어주려고 벌떡 일어날 때가 되어서야 겨우 노크를 하더군!"

"이런, 나의 친애하는 버니!" 래플스가 내 어깨에 나무라는 듯 손을 얹으며 외쳤다. 그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을 아주 유쾌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바깥문이 잠겨 있었잖아." 내가 항변했다. "그가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왔거나, 아니면 열쇠 구멍을 따고 들어온 게 분명해."

"왜 안 되겠나, 버니? 자물쇠 기술자를 비웃는 게 꼭 사랑뿐이겠나?" 래플스가 속을 뒤집어놓을 만큼 상냥한 말투로 대꾸했다.

"멋쟁이 도둑놈들도 자물쇠쯤은 우습게 알지!" 댄 레비가 외쳤다. 그의 말투는 래플스 못지않게 냉소적이었으나, 그 비아냥의 무게는 훨씬 더 묵직했다.

래플스는 그를 의자로 안내했다. 레비는 의자 뒤로 돌아가 등받이를 움켜쥐었다. 마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 가구로 우리 머

리를 내리칠 기세였다. 래플스가 그에게 술 한 잔을 권했지만, 레비는 비열한 의심을 숨기지 않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다.

"난 멋쟁이 도둑놈들하고는 같이 술 안 마시오." 고리대금업자가 말했다.

"친애하는 레비 씨," 래플스가 대답했다. "안 그래도 꼭 만나고 싶던 참이었소. 내 초라한 방에 이보다 더 반가운 손님은 없을 거요. 하지만 오늘만 해도 벌써 네 번째군. 자네가 그 구식 표현을 쓰는 걸 말이야. '자, 또 왔네'라니. 그런 식의 무모하고 앞뒤 안 가리는 일 처리는 이제 옛날이야기라는 걸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옛 노래에 나오던 그 호기로운 사내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건가?"

"여기, 바로 이 올버니에 있지!" 레비가 외쳤다. "바로 자네 방에 말이야, A. J. 래플스 씨."

"자, 버니." 래플스가 말했다. "우리 둘 다 '자기를 문 개의 털', 그러니까 해장술 한잔쯤은 걸쳤다고 인정해야겠지. 안 그래?"

"무슨 뜻인지 알 텐데." 방문객이 이를 악물며 내뱉었다. "너희 둘 다 좀도둑에, 강도에, 폭력배 짓이나 하는 놈들이잖아. 그러니 차라리 둘 다 순순히 자백하는 게 좋을 거다."

"금고털이? 사기꾼? 강도?" 래플스가 고개를 옆으로 까딱이며 되물었다. "버니, 저 친절한 신사분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잠깐, 알겠다. 도둑! 그냥 흔해 빠진 도둑놈들을 말하는 거야!"

그는 고리대금업자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아주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웃어젖혔다.

"비웃어도 좋습니다." 레비가 말했다. "난 당신의 농담에 넘어갈 만큼 젊은이가 아니니까요.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해외에 있을 때 당신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는 악의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언제 눈치를 챘는지 말해줄까요? 아나니아 J. 래플스 씨?"

"거짓말쟁이 소굴에 떨어진 다니엘이라니." 래플스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오, 그래요, 듣고 싶은 건 뭐든 말해 봐요. 정말 오랜만에 즐기는 최고의 구경거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버니?"

"초크!" 내가 외쳤다.

"오늘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이 나더군." 고리대금업자가 우리들의 농담을 엄중히 무시하며 말을 이었다. "자네들이 나를 상대로 그 교묘한 수작을 부렸을 때 말이야. 둘이서 어찌나 능청스럽고 매끄럽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던지! 한 명은 돈을 빌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내가 빌려준 바로 그 돈을 그대로 내게 갚더군!"

"글쎄," 내가 말했다. "그건 범죄라고 할 수도 없잖아."

“오, 그럼요, 분명히 있었죠.” 레비가 인자하고도 영리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방금 내가 당신들을 부른 그 이름대로 자처한다면, 당신들 두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는 바로 정체가 탄로 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나니아 친구가 칼스바트에서 저

질렀던 그 다른 사건까지 의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소식에 친구들이 그토록 놀라는 모습을 보았을 때조차,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렇게 건장한 청년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요!" 고리대금업자는 의자를 들어 바닥에 쾅 내려놓으며 외쳤다. "오늘 아침에는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을 뿐이지만, 오늘 오후가 되니 이건 확실히 알겠더군요."

래플스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날카롭게 빛났고, 입술은 마치 굳게 닫힌 강철 덫 같았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봤어." 그가 경멸 어린 말투로 말했다. "그런데도 정말로 내가 당신 부인의 목걸이를 훔쳐서 숲속에 숨겼다고 믿는 건가?"

"당신이 그랬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체 여기서 혼자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래플스가 외쳤다.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믿음직한 수사관이라도 몇 명 데려오지 않고 말입니다. 레비 씨, 전 이렇게 분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저를 경찰에 넘기시지 그러십니까?"

레비는 세 개의 금단추와 하나의 다이아몬드 스터드 뒤에 숨어, 마치 복화술사처럼 입술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만족스럽게 껄껄 웃었다.

"어쩌면 내가 당신 생각만큼 나쁜 놈은 아닐지도 모르겠군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들 두 신사분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분들은 아닐 테고요."

“다시 신사로 돌아온 건가?” 래플스가 말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잘나가는 좀도둑이었든 뭐였든 간에, 회복력이 꽤 빠르지 않아?”

"래플스 씨, 어쩌면 제가 당신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도 모르겠군요."

“레비 씨, 어쩌면 당신은 제가 목걸이를 가져갔다고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당신이 가져간 거 다 압니다." 레비가 대답했다. 교묘하게 회유하던 그의 말투는 어느덧 진심 어린 사과처럼 부드럽게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거라고 믿어요. 누군가 찾을 수 있는 곳에 말이죠. 이제 보니, 당신은 그저 재미 삼아 가져갔던 게 아닌가 싶군요!"

“그가 그걸 가져가기라도 했다면 말이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래플스가 넉살 좋게 소리쳤다. "레비 씨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머물게 된 그 인간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겪은 일들에 비하면, 차라리 그게 훨씬 즐거운 유희였을 겁니다."

"당신 취향에 딱 맞는 그런 재미 말인가요?" 레비가 아주 영리한 눈빛을 보내며 물었다.

"분명 그럴 겁니다." 래플스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래플스 씨, 이런 재미를 한 번 더 즐겨보시겠습니까?"

"제발 '또 다른'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 주세요."

"자, 다시 한번 경기에 도전해 보겠나?"

"'또'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레비 씨.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서툰 솜씨라고 해두죠."

"실례했습니다. 제 실수군요." 레비가 제법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순전히 재미 삼아 자물쇠를 따고 물건을 훔치며 풋내기 솜씨를 한 번 시험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군요? 제 말이 맞지요, 레비 씨?"

래플스는 지금 눈부시게 화려한 경기를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그만의 방식으로 대단한 기량을 보여주었다. 레비가 아끼던 몽둥이들을 내려놓고 검을 잡은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리고 단추 달린 펜싱 검으로 얼마나 놀라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지 나는 다시금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훔치는 것보다 골라내는 게 더 힘들겠어." 그가 말했다. "래플스, 아주 까다로운 작업이 되겠지만, 아마추어가 건드려도 문제 될 건 없는 수준이야."

"고맙습니다, 레비 씨. 그럼 염두에 두고 계신 구체적인 사건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나는 그저—주인의 물건을 되찾아주려는 것뿐이라네."

"레비 씨,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래플스 씨."

“버니, 왜 그가 경찰을 데려오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나는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시치미를 뗐다. 그러자 우리의 적이자 친구인 그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은 결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며 강력히 항변했다. 지금의 조명 아래서라면 예전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건 래플스를 범인으로 몰아세울 결정적인 증거, 즉 하나의 사건을 성립시킬 만한 증거들 말이다.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래플스에게 죄를 물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레비 씨 본인이 직접, 아주 솔직하고도 단호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런던 경시청에 자신의 강한 의심을 알릴 수도 있었다. 그러면 경시청은 오스트리아 경찰과 연락을 취할 것이고,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감각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들이 차례로 드러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만약 래플스가 그저 장난이었다고, 그 이상은 아니라고 시인하며 자신의 가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레비 씨 입장에서는 사건을 더 이상 파헤치지 않을 용의가 있었다.

"당신 물건을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되찾아오는 것 말고는 말이야." 래플스가 제안하듯 말했다. "그게 조건인 거지?"

"조건이라는 말은 제가 쓸 표현은 아니군요." 레비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럼 '예비 절차'라고 할까?"

"보상이라는 개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자네가 그저 재미 삼아 레비 부인의 보석을 훔치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레비 씨, 그러니까 당신 주장은 그렇다는 거군요."

"글쎄요,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죠. 그건 당신이 판단하기에 따라 결정될 일이고요." 유대인이 잠시 가면을 들어 올리며 대꾸했다. "어쨌든 당신도 이런 종류의 모험이라면 한 번 해보고 싶을 거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탁 하나만 하죠. 내 물건 중 하나가 하필이면 나쁜 놈들 손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걸 슬쩍 가져오는 걸로 당신의 유흥을 삼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사이의 빚은 깨끗이 청산되는 겁니다."

"글쎄," 래플스가 말했다. "그게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어디쯤 있을 것 같은지는 한번 들어봐도 나쁠 건 없지 않겠나."

고리대금업자가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는 한참 전부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의자를 마치 방어용 무기처럼 휘두를 기세였다. 우리 모두는 더 좁은 삼각형 구도로 모여 앉았다. 그때 나는 방문객이 처음으로 나를 아주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 전에도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떠난 뒤에도 분명히 본 것 같았는데, 오후에 우리가 마주쳤을 때 확실히 확인했지요. 나와 아내가 사보이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신 일행이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지만, 목걸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두 분은 아마도… 유흥을 함께 즐기는 동료 사이인가 보군요? 그렇지 않다면 래플스 씨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했을 겁니다."

"버니와 나는 하나야." 래플스가 가볍게 말했다.

"숫자상으로는 둘이 하나를 상대하는 격이지만 말입니다." 레비가 나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훑으며 말했다. "뭐, 두 분이 함께 움직인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훨씬 높겠지요. 하지만 신사 여러분, 이보다 더 가벼운 장물을 다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보석이 더 필요하신가요?" 래플스가 물었다. 농담이 아주 즐겁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가벼운 거요. 편지 말입니다!"

"고작 편지 한 통 말인가요?"

"그게 전부입니다."

"직접 쓰신 글입니까, 레비 씨?"

"아니오, 아닙니다!" 고리대금업자가 천둥처럼 소리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긍정의 대답을 하려 입술을 달싹였다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쓴 게 아니라, 당신에게 온 편지였군요."

"또 틀렸어, 래플스!"

"그렇다면 그 편지가 어떻게 당신 소유라는 말입니까, 친애하는 레비 씨?"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리대금업자는 새로 닥친 난관과 씨름하느라 몹시 애를 먹는 눈치였다. 나는 그의 묵직하면서도 제법 잘생긴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러다 교활한 눈빛이 번뜩이는 순간, 그가 마침내 상황을 장악했음을 알아차렸다.

“사람들은 내가 썼다고 생각하더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내 사무실 용지에 작성된 위조품일 뿐입니다. 만약 이것조차 내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내 것이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래플스가 공감한다는 듯 대답했다. "지금 말하는 게 그 '팩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그 편지를 말하는 거지?"

"맞습니다." 레비가 다소 놀란 기색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당연히 이 사건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요."

“신문에서도 읽으셨겠지만,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라 그런지 신문사들이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쓸데없이 떠들어대는 게 너무 많아요.”

"《팩트》지에 실린 기사 원문을 직접 읽었네." 래플스가 말했다.

"그럼 제가 썼다는 그 편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 그중 딱 한 통만이 정말로 정곡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더군."

"내가 찾는 건 바로 그거야."

"레비 씨,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당신이 고등법원의 원고가 되었다가, 올드 베일리 법정에서는 아주 무례하게도 피고인 신세로 뒤바뀐 첫 번째 사례가 되지는 않을 거요." 래플스가 허공에 부드러운 회색 연기 고리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건 가짜라고요, 정말이라니까!" 댄 레비가 욕설을 내뱉으며 외쳤다.

"도대체 그 편지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검찰 측이 그 편지를 애지중지하며 품에 끼고 살게 내버려 두라고. 법정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 가치를 부풀려 보라지. 편지의 가치가 형편없으면 형편없을수록, 결국 폭탄처럼 터져서 그들의 사건을 산산조각 낼 게 분명하니까. 검사 손에 들린 명백한 위조품이라니!" 래플스가 나에게 윙크를 하며 외쳤다. "고인이 된 피곳 씨 사건 이후로 이만한 구경거리는 없을 거야. 여보게 버니, 우리 둘 다 꼭 가야 하네."

레비 씨의 불안함은 겁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차마 눈 뜨고 못 볼 광경이었다. 그는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사정을 숨김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털어놓은 상태였다. 레비가 래플스를 손아귀에 쥔 것보다, 레비 씨가 우리에게 붙잡힌 상태가 훨씬 더 확실했다. 하지만 래플스는 자신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단 1초라도 성급하게 드러낼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나에게 눈짓을 한 번 더 보냈을 뿐이다.

고리대금업자인 레비 씨는 잔뜩 미간을 찌푸린 채 카펫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자선적인 직업을 향한 대중과 사법부의 편견에 대해 격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영국 법정에서 고리대금업자가 정의를 실현하기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내민 노골적인 위조 서류라 할지라도, 자칭 대단하다는 영국의 배심원들은 보자마자 그대로 인정해 버릴 게 분명했다. 결국 유일한 방법은 재판이 열리기 전에 그 서류를 가로채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위조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만 한다면,” 래플스가 간곡히 말했다. “그 어떤 것도 이 상황을 단숨에 뒤집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는 없을 거야.”

"내게 남은 유일한 기회가 무엇인지 이미 말했네!" 레비가 격렬하게 외쳤다. "그건 자네에게도 똑같은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래플스가 말했다. "난 고려조차 하지 않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레비는 돌연 말을 멈췄다.

"래플스 씨,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 위조 서류를… 빼내라고요?"

"네."

"어디서 말입니까?"

"그게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제 생각엔 변호사 금고 안에 있겠죠."

"《팩트》지의 법률 대리인은 누구입니까?"

"버로스 앤드 버로스입니다."

"그레이 인 스퀘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 사무소야." 래플스가 나를 향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곳 금고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금고일걸!"

"까다로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고리대금업자가 대꾸했다.

래플스의 표정은 단순히 의구심을 품은 수준을 넘어선 듯했다.

"첫 사냥치고는 꽤 큰 놈이지, 안 그래, 버니?"

"지나치게 과합니다."

"그러니까 레비 씨, 당신은 그저 그 편지를 철회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야."

그가 배를 잡고 껄껄 웃어대자, 다이아몬드 스터드가 출렁이는 웃음결을 따라 다시 한번 번쩍였다.

"그냥 철회된 것뿐이라고요? 그게 전부란 말입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래플스 씨."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그게 없어진 걸 알아챌 텐데도 말입니까?"

"알아채든 말든 내버려 두게."

래플스는 신중하게 손끝을 맞대더니,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레비 씨, 그건 당신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겁니다. 만약 내가 그 일에 발을 들인다면, 차라리 한술 더 뜨는 쪽을 택하겠군요.”

그가 덧붙인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그가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기 시작한 것 같아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댄 레비가 물었다. 그는 전혀 그런 예감이 들지 않는 눈치였다.

“종이 한 장만 빌려줘. 내가 그걸 가져가서 위조를 위조해 보겠어!” 래플스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특유의 흥분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은 그 녀석만큼 완벽하지는 않을 거야. 내 위조품은 네 것이나 그 녀석의 것과 똑같아 보이겠지. 그러다 법정에서 검사가 돋보기를 들이대며 지적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렇게 되면 5분도 안 돼서 변호 측의 방어 논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걸!”

댄 레비는 젤리처럼 몸을 파르르 떨면서도, 온몸에서 광채를 내뿜으며 래플스에게 곧장 다가왔다.

“악수합시다!” 그가 외쳤다. “자네가 나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 전까지 자네가 이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악수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래플스가 예민한 손가락 끝을 여전히 맞댄 채 대답했다. "마음을 굳게 먹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요. 레비 씨, 저는 아직 그 결심을 내리기엔 한참 멀었습니다."

나는 다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자네, 꼭 그래야만 하네. 정말이지 꼭 그래야 해!”

레비가 완전히 설득에 나선 듯한 어조로 말했다. 차라리 그가 위협을 하는 편이 나았을 텐데, 나는 그 점이 아쉬웠다. 어쩌면 그가 위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가 나만큼이나 래플스를 잘 알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만약 후자라면, 나는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건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문제야.” 래플스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게 나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한, 설령 실제 범죄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내가 대놓고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기대하진 마.”

레비는 다시 내가 바라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카를스바트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듣는 게 좋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말투에는 여전히 예전만큼의 품격이 배어 있지 않았다.

“뭐라고!” 래플스가 외쳤다. “거기에 나를 몰아붙일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걸 당신 스스로 인정하면서 말이야?”

"그 증거가 네게는 5년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절대 착각하지 마라."

“당신 스스로 증명했듯이, 이 편지는 이미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당신 뜻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래플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일어나며 덧붙였다. “하지만 레비 씨, 만약 올드 베일리 법정에서 우리 둘이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당신의 운 대신 내 운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을 형량은 내 형량과 맞바꾸는 겁니다!”

래플스는 손님을 의아한 눈빛으로 한 번 쳐다보더니, 디캔터를 손에 든 채 직접 술을 따랐다. 그러자 고리대금업자는 래플스의 손에서 디캔터를 낚아채더니 잔의 절반을 훌쩍 비워버렸다. 확실히, 그는 래플스라는 인물을 위험할 정도로 속속들이 알아가고 있었다.

“자, 됐네, 빌어먹을!”

그는 빈 잔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다가 툭 내뱉었다.

“자네 같은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자네를 가장 신뢰하네. 그러니 원하는 대가를 말하게. 자네가 해낼 능력만 있다면, 기꺼이 지불할 테니.”

"꽤 긴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군요, 레비 씨."

"상관없으니, 하고 싶은 말을 해 봐."

“그 돈은 가랜드 씨에게 맡겨서 담보로 잡히세요. 그리고 당신도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진 다른 빚은 그냥 탕감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 편지를 당신 손에 쥐여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제가 직접 경찰에 넘겨지게 될 겁니다!”

그는 남자 대 남자로 마주하며 엄격하고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독단적이거나 명령조가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설득하고 달래는 듯한 어조였다. 이 무모한 계획이 보여준 형식과 태도만으로도, 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뒤로한 채 온몸의 신경이 짜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명분조차 불분명한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나

팔 소리를 듣는 기분이었다. 머리가 상황을 따지기도 전에 피가 먼저 끓어올랐다. 래플스의 친구들과 나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위해 그가 치르는 희생이 결코 옳다고 생각지도 않았다. 하지만 만약 래플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순간 당장이라도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달려들어 선봉에 섰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그 야만스러운 사내가 격분하며 빈 잔을 벽난로 안으로 내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인간이라는 짐승에게서 듣기 힘들 만큼 거친 욕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레비 씨, 정말 실망스럽군요." 래플스가 경멸 어린 말투로 말했다. "당신이 쓰는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우리도 당신을 저 열린 창문 너머로 던져버릴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일에 한몫 거들 준비를 하고 곁에 섰다.

"그래! 내 목을 비틀어 버리면 네게 이득이 된다는 건 나도 알아." 레비가 맞받아쳤다. "교도소에서 썩느니 차라리 교수형을 당하는 게 낫다는 거지, 안 그래?"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길을 택하시겠다는 거군요." 래플스가 말했다.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느니, 차라리 그를 놓아주는 쪽을 택하시겠다니요! 그가 내는 이자만 따져도 당신이 처음에 빌려준 돈은 거의 다 갚은 셈입니다. 남은 돈에 대해서도 당신은 확실한 담보를 쥐고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복수하겠다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 들다니 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입니다, 명

심하세요! 당신이 화가 난 대상은 우리지, 늙은 갈랜드나 그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망각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작은 소동도 전적으로 우리가 꾸민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우리가 내민 정당한 제안을 거절하며 앙심을 품으시는 겁니까?"

"공평한 제안이 아니야." 레비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제안한 것이야말로 공평한 조건이었단 말이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였다. 그는 래플스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비록 서툴긴 했으나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 애쓰고 있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래플스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다.

"레비 씨," 그가 말했다. "단 한 톨의 증거도 대지 못할 단순한 의혹 따위에 제가 신경이나 쓸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지 말지를 고민할 뿐이겠지요. 해외에서 보석을 잃어버렸다가 아무 탈 없이 되찾아놓고는, 며칠이 지나서야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드신 모양이군요. 마침 제가 그때 당신 호텔에 머물렀으니 제가 범인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저를 수시로 불러 심문하면서도, 정작 그 신사분을 직접 대면했을 때는 그런 의심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런던에서 흔히 그렇듯 당신에게 돈을 좀 빌리자마자, 당신은 제가 마치 카를스바트에서 레비 부인의 목걸이를 훔친 그 기막힌 범인이라도 되는 양 몰아세우는군요! 레비 씨, 저라면 차라리 해병대에게 가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다. 당신 말을 들어줄 사람은 그들뿐일 테니까요."

"내 말은 변함없어. 게다가 자네도 딱히 부정하지는 않잖아. 만약 자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또 다른 판에 뛰어들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야."

"준비되셨습니까?" 래플스가 외쳤다. 그는 단순히 준비된 정도가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기세였다. "레비 씨, 새로운 자극이라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는 지난 몇 년간 절도라는 아주 정교한 예술 분야에 학술적인 관심을 가져왔거든요. 안 그래, 버니?"

"그 말씀 자주 하시더군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다.

"요즘 같은 따분한 시절에는 말이야," 래플스가 말을 이었다. "이것만큼 흥미진진하고 낭만적인 직업도 없지. 만약 이 일이 지독하게 부정직한 일만 아니었다면, 나조차 진지하게 고려해 봤을 정도니까. 그런데 자네가 나타나서 정의와 공정이라는 명목하에 내가 깨부술 수 있는 아주 근사한 상자를 가져다주지 않았나? 악랄한 좀도둑을 배불리려는 게 아니라, 정당한 재산을 정직한 금융가에게 되돌려주려는 거니까 말이야. 이건 일종의 금주주의적 범죄라고나 할까. 범죄계의 진저에일 같은 거지! 이런 음료를 거절할 수 있겠나? 놓칠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니면 참아야 할 유혹인가? 하지만 위험만큼은 아주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한 범죄만큼이나 커. 내가 아무 대가도 없이, 혹은 그저 재미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감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게. 내 조건은 이미

말했네, 레비 씨.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벌써 새벽 두 시니, 나는 해가 뜨기 전에 잠자리에 들고 싶군.”

"그럼 만약 내가 받아들인다면?" 레비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물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편지는, 아마 다음 주 초쯤이면 당신 손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럼, 제 발로 굴러 들어온 이 아주 괜찮은 재산을 그냥 손에서 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잠시뿐일 겁니다.” 래플스가 말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당신은 공갈죄로 피고인석에 앉을 위험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셈이죠. 게다가 레비 씨, 당신의 직업이 법정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일은 공갈죄만큼이나 나쁜 평판을 얻고 있으니까요!”

다니엘 레비에게는 기묘할 정도로 고분고분한 태도가 마치 망토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열정적인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이긴 했으나, 이번만큼은 불길하고 사악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 모습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래플스에게 내 생각을 말해주고 싶었다. 비열한 술수 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자가 나타났으니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싶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내 눈길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도취해 있는 듯 보였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레비가 모자를 집어 들며 말했다.

"아침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열한 시까지는 로즈 경기장에 가야 합니다."

"저민 스트리트에서 열 시에 볼까?"

“레비 씨, 이건 좀 묘한 거래군요. 당신네 사무원들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여기로 가겠네."

"열 시에 맞춰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요?"

그는 조건을 덧붙이며 나를 곁눈질로 슬쩍 훑어보았다.

"당신이 직접 현장을 수색하고,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시오."

“그건 그렇고,” 레비가 모자를 쓰며 말했다. “생각은 좀 해보겠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직 승낙한 건 아니에요, 래플스 씨. 내가 언제 수락할지 너무 확신하지는 마시라고요. 생각은 해보겠지만, 그래도 너무 장담하진 마십시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야수처럼 날뛰던 그 남자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물러났다. 래플스는 그를 배웅하며 안뜰을 지나 피카딜리로 나가

는 길까지 함께했다. 그는 완전히 떠난 것이 분명했다. 래플스는 기쁨에 겨워 손을 비비며 다시 돌아왔다.

"멋진 밤이야, 버니! 내일은 더 멋진 날이 될 거야! 하지만 테디가 평생 경험한 것 중 가장 좋고 느긋한 위켓키퍼용 피치라고는 단언할 수 있어!"

나는 온 힘을 다해 내 주장을 밀어붙였다.

"제기랄, 테디 때문에!" 나는 진심을 담아 외쳤다. "그 녀석을 위해서라면 이미 충분히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걸, 아니 다른 누구를 위해서라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래플스가 꽤나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다. "갈랜드 가족이 얽혔든 아니든, 내가 레비 같은 무식한 놈한테 당하고 싶어 할 것 같나? 게다가 내가 하려는 일은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 훨씬 위험도 적어. 어쨌든 내 적성에도 딱 맞고 말이야."

"자네 성미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내가 맞받아쳤다. "자기가 약속한 건 꿈에도 지킬 생각이 없는 돼지 같은 놈과 협상을 하겠다니 말이야."

"그를 따르게 만들 겁니다." 래플스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만들 테니까요."

"하지만 그자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의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인가!" 래플스가 비꼬듯 되물었다. "당연히 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지. 버니, 말보다는 행동이야.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행동 말이지. 그자가 자기 협박 편지에 손을 대기도 전에,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만들고 댄 레비가 집행하게 해야 해. 우리 학교 시절에 살던 '허버드 할머니' 기억나? 지금 시티 어딘가에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말이야. 그 친구라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입도 뻥긋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일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줄 거야. 저 탐욕스러운 샤일록은 나와 허버드 할머니에게 맡겨 둬. 그자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도록 제대로 끌어내 줄 테니까."

래플스가 저런 기분일 때는 말싸움이 통하지 않는다. 나도 한마디 거들긴 했지만, 그는 내 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서랍 하나를 열더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도를 꺼냈다. 래플스가 독서등 불빛 아래 지도를 펼치자,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런던 지도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붉은 잉크로 그려진 바퀴 모양과 별표들이 변덕스럽게 흩뿌려져 있었다. 본드 스트리트에 완성된 바퀴 하나, 하프 문 스트리트에 또 다른 바퀴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파크 레인의 손어비 하우스 터 위에도 바퀴가 있었고, 세인트 존스 우드나 캠든 힐의 피터 스트리트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도 바퀴들이 있었다. 별표는 바퀴보다 적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이었는지는 딱히 기억할 이유가 없었다.

"이게 뭐야, A. J.?" 내가 물었다. "꼭 전쟁 지도처럼 생겼는데."

“맞아, 전쟁 지도야, 버니.” 그가 말했다. “이건 사회의 질서에 맞서 싸우는 한 남자의 전쟁 지형도라고. 바퀴살은 앞으로 벌어질 작전들을 나타낼 뿐이지. 하지만 완성된 바퀴 하나하나에는 과거에 치러낸 전투의 현장이 담겨 있어. 그리고 그 전투에서 자네는 대개 그 남자의 유일무이한 공범이었고 말이야.”

그는 몸을 굽히더니, 그레이 인 스퀘어의 남쪽 끝자락에 선명한 핏빛 별표 하나를 정갈하게 그려 넣었다.

제10장

"나의 래플스, 옳든 그르든"

다음 날 로즈 경기장에서 래플스를 만났을 때, 유서 깊은 잔디밭은 막 경기를 시작할 채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에게 파빌리온 안으로 몰래 들어가게 해달라고 제안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내 자신이 못나고 어리석게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린다. 하지만 래플스가 진심으로 존중하는 인간의 법이란 아마도 M.C.C.의 규칙뿐이었을 것이다. 그는 11시가 되기 약 1분 전, B 구역에서 나와 합류했다.

햇살은 강렬했고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다. 마치 전날의 그 비극적인 사건 따위는 없었다는 듯한 날씨였다. 다만 열대 지방의 소나기라도 지나간 것처럼 런던의 공기는 수정처럼 맑고 깨끗했다. 평범한 일상의 무채색 풍경들은 생생한 색채로 물들어 있었고, 대기 중인 심판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눈사람 같았다. 경기장 양 끝에 쌓인 톱밥 더미는 에메랄드빛 잔디 위로 흩뿌려진 황금 가루 피라미드처럼 보였다.

수비 팀이 나타나기 직전의 그 설레는 정적 속에서, 나는 여전히 '서리 시인'이라 불리는 사내의 요크셔 억양을 기억한다. 그는 "웹과 스토다트 씨의 위대한 활약"이라는 제목의 최신 서정시를 호객하듯 읊조리며, 모두가 옥스퍼드의 승리를 점치고 있으니 오히려 케임브리지가 이길 것이라고 군중에게 덧붙이고 있었다.

“딱 맞춰 왔군.”

래플스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 순간 파빌리온에서 케임브리지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수들은 저마다 연한 푸른색의 모자와 띠를 두르고 있었다. 주장의 색은 오랜 경기 경험 탓에 색이 바래 있었지만, 위켓키퍼의 색만큼은 그들 중 가장 새것이었고 푸른빛도 가장 선명했다. 남성 역사가로서 감히 말하건대, 그 색이 그에게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테디 갈랜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얼굴이군."

나는 쌍안경 너머로 분홍빛 얼굴에 거대한 장갑을 낀, 푹신해 보이는 형체를 유심히 살피며 그때 이렇게 말했다.

“그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야.” 그가 대답했다. “댄 레비를 본 이후로, 여기서 그와 그의 불쌍한 노인네를 몇 번이나 봤거든.”

나는 앞선 만남이 어떻게 끝났는지 간절히 물었으나, 래플스는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옥스퍼드 팀의 주장은 이름이 덜 알려진 선수와 함께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나섰다. 경기의 첫 공이

피치 위를 세차게 굴러 내려왔지만, 옥스퍼드 주장은 그 공을 완전히 무시했다. 테디가 아주 매끄럽게 공을 받아냈고, 거의 동시에 공은 다시 투수의 손으로 돌아갔다.

"그는 괜찮아!" 래플스가 길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우리 샤일록 씨도 마찬가지야, 버니. 결국 순식간에 다 해결해 버렸잖아. 하지만 가장 곤혹스러운 건, 내가 잠깐밖에 못 있을 거라는 사실이야——"

그는 말을 멈췄다. 입을 벌린 모습이 마치 내 모습 같았다. 공 하나가 엑스트라 커버 쪽으로 강하게 날아갔지만, 수비수가 잘 잡아냈다. 테디가 두 번째 공도 첫 번째 공만큼 능숙하게 받아냈지만, 투수에게 다시 던져주지는 못했다. 옥스퍼드 팀의 주장이 그 공을 건드렸고, 그 소리는 블록 B 구역에 있던 우리에게까지 들려왔다.

"판정은요?" 테디가 낭랑한 목소리로 거의 동시에 물었다. 심판의 손가락이 위로 솟구쳤고, 래플스의 손이 내 허벅지 위로 툭 내려앉았다.

"버니, 그가 잡아냈어!" 케임브리지 관중들의 환호성 사이로 그가 내 귓가에 외쳤다. "양 팀을 통틀어 최고의 타자였는데, 테디가 세 번째 공에 아웃시켜 버렸다고!" 그는 패배한 주장이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모습과 테디를 찬양하며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축하 행렬을 잠시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내 팔을 툭 치며 목소리를 낮췄다. "버니, 이제 저 친구는 고민 따위 다 잊었을 거야. 점수를 낼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한, 점심때까지는 아무 걱정도 없을걸.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초

반에 기세를 잡으면 타석에서보다 위켓 뒤를 지킬 때 훨씬 더 큰 힘이 되는 법이니까."

래플스의 말이 맞았다. 또 하나의 위켓이 허망하게 무너졌다. 그 뒤로 용기 있는 크리켓 경기가 길게 이어졌다. 노련한 기술은 아니었으나 끈질기고 신중한 수비였다. 오프 스텀프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공들을 그대로 흘려보내기도 했고, 운 나쁘게 배트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공들도 있었다. 까다로운 피치 상태 때문에 테디가 할 일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는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 유연한 몸놀림으로 위켓 뒤에 웅크리고 있다가, 튀어 오르는 공에 맞춰 즉각 몸을 일으키는 모습은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커다란 글러브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고, 공을 낚아채는 힘도 대단했다. 딱 한 번, 글러브를 너무 일찍 들어 올리는 바람에 날카로운 공이 위켓을 스치며 4 바이(byes)를 허용한 적이 있었으나, 그것이 그가 오전 내내 저지른 유일한 실수였다. 래플스는 넋을 잃고 경기를 지켜보았고, 사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나는 오버와 오버 사이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 테디가 최근 댄 레비와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 캐물으며 한두 번 정도 단서를 얻어내려 애썼다.

"그 노인네 죄인에게는 강가에 머무는 곳이 하나 있어, 버니. 하지만 시내와 더 가까운 곳에 또 다른 거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말이야. 어쨌든 앞으로 며칠 밤 동안은 그 노인네의 법적 거처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새벽 두 시까지는 나를 기다리며 잠도 안 자고 깨어 있을 테고 말이지."

"그럼 이번 주에 그레이즈 인 스퀘어로 가는 건가?"

"오늘 아침에 가서 그 집을 슬쩍 살펴보고 오려고. 한시가 급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알아내야 할 것도 산더미거든. 이봐, 버니, 투구 방식이 또 바뀔 모양이야. 그것도 아주 빠른 속구로 말이야, 세상에!"

덩치 큰 청년이 위쪽 끝에서 공을 넘겨받았고, 위켓키퍼는 스텀프 뒤로 더 멀찍이 물러나 안전한 거리를 두었다.

"언제인지 꼭 알려주실 거죠?" 내가 속삭이듯 물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대답 대신 이렇게만 말했다. "잭 스터들리가 진흙 파이 껍질이라도 좀 더 두툼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게 의문이군. 빠른 피치가 아니면 저런 형편없는 투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든!"

요즘 크리켓 경기장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들은 듣기만 해도 지루하기 짝이 없다. 지금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나는 로즈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그 난장판 같은 투구들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오프사이드 쪽으로 날아온 끔찍한 공 하나가 포인트 쪽을 지나치며 4점을 내주고 말았다.

"형편없군!" 래플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곧이어 아주 훌륭한 공이 날아왔다. 공은 위켓의 베일을 넘어 가랜드의 글러브 속으로 마치 대포알처럼 묵직하게 박혔다.

"잘 던졌어!" 래플스가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감탄을 내뱉었다.

다음 투구는 위켓 쪽에서도, 내 옆에서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갔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레그 쪽으로 높게 솟구친 풀피치

가 날아왔다. 타자는 이 공을 아주 늦게 받아쳤지만, 힘껏 휘둘렀다. 그 기세라면 파빌리온의 울타리까지 박살 낼 법한 타구였다. 하지만 공은 울타리에 닿지 않았다. 대신 테디의 왼쪽 글러브에 꽂히고 말았다. 테디가 중심을 잡으려 비틀거리며 롱레그 쪽으로 걸어가다 공을 위로 던져 올릴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공이 글러브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소란이 잦아들자, 한 노련한 목사가 단호하게 외쳤다. "이번 경기에서 위켓을 뺏은 공 중 최악의 공이다!"

"게다가 최고의 캐치였어!" 래플스가 외쳤다. "자, 어서 가자, 버니. 이게 오늘 내 마지막 '눙크 디미티스(nunc dimittis)'야. 이 경기의 공을 하나하나 다 지켜본다 해도 이에 견줄 만한 순간은 없을 거야. 난 더는 다른 건 봐선 안 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마차들 뒤편의 인파 속으로 래플스를 따라 들어가며 내가 물었다.

"이유는 이미 말했잖아." 그가 말했다.

그 인파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설마 오늘 밤에 바로 실행에 옮기려는 건 아니죠, A. J.?"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_저한테는_ 꼭 알려주실 거죠?"

"내가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버니. 이번만큼은 너를 이 진흙탕에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하지만 만약 _제가_ _당신을_ 도울 수 있다면요?" 인파가 잠시 갈라진 틈을 타 내가 속삭였다.

"아, 네 도움 없이는 못 해 먹겠으면, 곧바로 알려줄 테니 걱정 마." 래플스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나저나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 좀 하자. 저기 가랜드 씨랑 카밀라 벨사이즈 양이 오고 있잖아!"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기는 우리가 그들을 먼저 본 것보다 조금 늦었다. 그 찰나의 순간, 마치 스파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으나, 무시를 당해 자존심이 상해 있던 나에게는 그마저도 흥미로운 순간이었다. 몰락한 그 남자는 수척하고 병색이 완연했으며, 밖을 돌아다니기엔 기력이 너무 없어 보였다. 신문 기사에서 묘사된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야윈 살갗 너머로 생기가 뿜어져 나왔다. 불쌍한 노인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자신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환희에 차 있었다. 그는 아들의 멋진 캐치를 지켜보았고 환호성을 들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환호성을 기억할 것이다. 카밀라 벨사이즈 역시 그 광경을 보고 들었지만, 그만큼 절묘한 감동을 느끼지는 못한 듯했다. 그녀에게 크리켓은 그저 하나의 경기일 뿐이었다. 열성적인 팬들에게 크리켓이 삶의 정수이자 결정체로 여겨지는 것과는 달랐다. 게다가 그녀는 현실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 있어서, 동행한 노인의 마음을 달래준 그 사소한 위안 따위로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었다. 그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남자는

쇠약하면서도 빛이 났고, 소녀는 눈부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녔음에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슬픔에 고개를 숙인 것은 노인이었으나, 더 순수하고 젊은 마음을 가진 이 또한 노인이었다.

"그 캐치 하나면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아." 그가 래플스에게 아주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카밀라의 반응은 그저 건성일 뿐이었다. 사실 그녀처럼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 조금의 흥미라도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의아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크리켓 경기 자체보다는 관중석의 분위기에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였다. 뭐, 딱히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래플스는 벌써 가봐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가랜드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듯 나직이 중얼거렸고, 가랜드 씨는 갑자기 어두워진 안색으로 그의 손을 꽉 맞잡았다. 하지만 벨사이즈 양은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할 뿐이었다. 그녀는 내가 눈여겨보던, 그녀의 시선 끝에 걸려 있던 보잘것없는 차림의 사내 두 명이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가랜드 씨는 다시금 변덕스러울 만큼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며, 발꿈치를 들고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맨더스 씨가 저를 잘 돌봐주실 거죠?"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죠, 맨더스 씨?" 나는 적절한 대답으로 안심시켰다. 그러자 그녀가 덧붙였다. "가랜드 씨도 회원인데, 파빌리온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거든요."

"그저 테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네." 불쌍한 노신사가 고백했다. 우리는 잠시 후 어디서 만날지 약속을 정한 뒤, 그는 잔뜩 상기된 채 주름진 얼굴을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가 떠나자마자 벨사이즈 양이 나를 돌아보았다.

"맨더스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당황한 기색 없이 빠르게 말했다. "어디서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경기를 지켜보는 것도 포함인가요?” 나는 그가 위켓 뒤에서 보여주던 최고의 기량을 떠올리며 물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래플스 씨에 관한 일이에요!” 내 시선과 마주친 벨사이즈 양이 덧붙였다.

다시 래플스 이야기다. 전날 그녀가 알아낸 그 모든 사실을 뒤로하고, 다시 래플스 이야기라니! 그 시절 담쟁이덩굴로 뒤덮였던 테니스 코트를 지나 연습장으로 향하는 길, 나는 앞장서 걸으며 마냥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당시 그 연습장은 임시로 텐트를 쳐둔 잔디밭으로 변해 있었다.

"래플스가 어쨌다는 거죠?" 잔디밭을 가로질러 우리만의 길을 나서며 내가 물었다.

"그분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아 걱정이에요." 벨사이즈 양이 대답했다. 그녀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내 앞을 막아서더니, 마치 우리 둘뿐인 것처럼 아주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위험하다니요!” 나는 분명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벨사이즈 양,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 동료가 처음으로 망설였다.

"제가 말했다는 건 그분께 비밀로 해주실 거죠, 맨더스 씨?"

"원치 않으신다면 안 그러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요청 자체보다도 그 태도에 더 당황하며 대답했다.

"정말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럼 말해 봐요. 우리 모두가 막 모였을 때, 우리 곁을 아주 가깝게 지나간 남자 두 명을 보았습니까?"

"눈여겨볼 사람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마주칠 법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중절모를 쓰고 짧은 코트를 입고 있었나요?"

"당신, 분명히 봤잖아요!"

"당신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며 내가 말했다.

"지켜봐야 할 일이었죠." 벨사이즈 양이 무미건조하게 대꾸했다. "그 사람들이 래플스 씨를 경기장 밖까지 따라나섰으니까요!"

"정말 그렇군!" 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나지막이 읊조렸다.

"우리를 만났을 때, 그들이 당신들 둘을 미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그랬단 말입니까! 그놈들을 처음 본 게 그때였단 말입니까?"

"아니요, 처음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 저쪽 네트 근처에서였습니다. 테디의 네트 뒤에 있던 남자 두 명이 눈에 띄더군요. 그들은 테디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 주의를 끌었죠. 제 생각에 그들은 래플스 씨를 기다리며 잠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래플스 씨가 나타나자 그들은 자리를 피하더군요. 하지만 그 후 경기장을 가로질러 우리를 계속 뒤쫓아왔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주변을 둘러보았죠." 벨사이즈 양이 말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내 시선을 피했다.

"그 사람들이 형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했습니다, 맨더스 씨. 무대 밖에서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세상에, 하필이면 이곳 로즈 경기장에서 A. J. 래플스가 미행당하고 있으리라 예상하실 정도였단 말입니까?"

"어제 오후에 들은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어디서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벨사이즈 양이 말했다.

"가엾은 가랜드 씨와 그가 처한 사정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천연덕스럽게 꾸며낸, 아주 교묘한 제안이었다. 그 말에 내 동료의 시선이 다시 내 눈으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경멸이 서려 있었다.

"아니요, 맨더스 씨. 레비 씨와 래플스 씨 사이에 오간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들었으니, 그 이후를 말한 거예요. 제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당신도 아주 잘 알잖아요." 벨사이즈 양이 엄하게 덧붙였다.

"설마 그 모든 걸 정말로 믿으신 건 아니겠지요?" 나는 정당한 추궁을 딱히 부정하지 않은 채 물었다.

“내가 어쩔 수 있었겠어? 양심상 그건 충분히 심각한 암시였다고!” 카밀라 벨사이즈가 외쳤다.

"그러니까," 그녀의 말을 짐짓 오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나는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그 불쌍한 래플스 노인이 이번 카를스바트 보석 도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강도질이었다면 말이지."

그 단어를 듣자 그녀는 움찔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게 혹시 속임수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올버니에서 피해자가 보여주었던 그 가짜 연극이 떠올라 내가 물었다. 카밀라는 그 가설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아니,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그런 뜻으로 말했던 것처럼 뻔뻔하게 행동하기까지 했다.

"당연하죠!" 그녀가 말했다. 래플스 본인에게서나 볼 법한, 즉흥적이면서도 우월감이 묻어나는 태도였다. "맨더스 씨, 어제 두 분이 레비 씨를 상대로 어떤 속임수를 쓰셨는지 생각하면, 왜 그런 생각은 못 하셨는지 의아할 정도예요. 래플스 씨가 직접 우리 모두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두 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테디를 위해서라도요." 벨사이즈 양은 말을 마친 뒤, 커다란 경기장 쪽을 향해 미안함이 담긴 눈길을 슬쩍 던졌다. "하지만 이건 결국 래플스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말하려던 것도 바로 그거였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는 사실 금세 또렷이 기억해 내면서 대답했다.

"바위 정원에서요." 그녀가 내게 상기시켰다. "당신이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제가 그가 제 꾀로 먹고산다고 대답했었잖아요."

"게다가 돈을 받고 뛰는 아마추어라니!"

"하지만 다른 하나가 가장 최악이었다."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내가 말했다. “그가 목걸이만 훔쳤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식이라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리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그건 다 농담이었잖아요." 그녀가 깜짝 놀라며 우리 둘에게 상기시켰다. "만약 래플스 씨가 정말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분명 농담이었을 거예요. 고작 저질스러운 장난 때문에 그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그녀의 감정에는 이제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싫어하고 믿지 못하겠다던 그 남자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모양이었다. 불안함에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맑은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 눈망울은 평소보다 더욱 아름답고도 당당했다. 하지만 나는 어리석게도 내 속마음을 내비치고 말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눈에 고였던 눈물은 순식간에 말라버렸다.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묻자, 그녀는 "누가 그렇대?"라며 되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테디를 위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러더니 잠시 내 팔에 손을 얹으며 덧붙였다. "어제 당신이 도와줬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전에도 늘 그래왔잖아. 난 가랜드 씨가 정말 안타까워. 불쌍한 테디보다도 가랜드 씨가 더 마음 쓰여. 하지만 래플스 씨는 미안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고 있어.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걸 난 알아. 래플스 씨는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 짐승 같은 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이성을 되찾게 만들겠다고 말했거든. 만약 그런 인간이 래플스 씨에게 억지 죄목이라도 뒤집어씌워서 상황을 역전시킨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거야!"

"혐의를 조작하다"라는 내 말은 상대의 입에서 그대로 되돌아왔다. 마치 내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메아리 같았는데, 그 메아리는 원래 내 말투보다 훨씬 더 가식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덕분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벨사이즈 양은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속았다고 믿기를 바랐을 뿐이다. 벨사이즈 양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다만 우리 둘 중 누구도, 래플스에게 씌워진 혐의가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는 점을 차마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이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를 미행하는 거죠?" 나는 정말로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다. "만약 그 래플스에게 확실한 죄목이라도 있다면, 벌써 체포되지 않았을까요?"

“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그저 그에게 누군가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가 대체 무슨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맞아요!" 그녀가 외쳤다.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든 상관없어요. 어제 테디를 위해 해준 일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경고라도 하라는 건가?"

"그래요. 하지만 저한테서 들으신 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레비 부인의 목걸이를 훔친 것이라면 어쩌지?"

"바로 그 점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면 어쩌시려고요?"

나는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농담처럼 가볍게 던졌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다. 이 새롭고 예상치 못한, 여전히 까다로운 동맹에게 나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첫 시도는 기묘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내가 벨사이즈 양을 똑바로 응시하자 그녀도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고,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녀를 믿기로 마음먹었다.

"글쎄, 어제 일을 생각하면 말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일단 그에게 경고는 해둬야겠어!"

"당신의 래플스가 옳든 그르든, 당신은 그를 지지하겠습니까?"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카밀라 벨사이즈 역시 결국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천박한 갈취범에 맞서는 거라면, 당연히 찬성이에요!” 그녀는 소유격 대명사를 슬그머니 유지한 채 대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제 당신과 그가 테디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친 일은 별개로 치더라도 말이에요.”

우리는 한참 전부터 산책을 계속해 오던 중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발걸음을 멈추고 섰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점심 휴식 시간까지는 아직 몇 분 더 남아 있었다.

“래플스가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고 있다면,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거예요. 얼른 전화를 걸어봐야겠어요.” 내가 말했다.

"경기장 안에 공중전화소가 있습니까?"

"아마도 회원 전용인 파빌리온 안에서만 가능할 겁니다."

"그럼 근처에 있는 외부 지점으로 가야겠군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벨사이즈 양은 무심결에 띄운, 완벽하고도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아뇨, 전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가는 길에 호위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가랜드 씨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웰링턴 로드에서 가장 가까운 높은 회전식 개찰구까지 나를 안내한 건 바로 그녀였다.

"그러니 제가 왜 래플스 씨를 경계하게 만들려 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우리가 악수를 나누는 사이, 그녀가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그건 오로지 당신과 그분이 테디를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마지막에 내게 약속을 지키라고 상기시키지 않았기에, 나는 그 약속을 더욱 마지못해 철저히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래플스가, 이제 막 자신을 좋게 보기 시작한 그녀를 여전히 예전처럼 나쁘게 생각할지라도 말이다.

제11장

어둠 속의 질주

클럽에 가니 나를 기다리고 있던 몇 줄의 메모가 있었다. 나는 조금 경솔하게도 그 메모를 간직해 두었는데, 거기에는 래플스가 로즈 경기장에서 우리를 만나기도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적을 완전히 낚아채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는 게 상책이지." 래플스는 그 뒤를 이어, 중절모

를 눌러쓴 신사들을 자신의 비유처럼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아넣은 간단한 수법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한섬 택시를 타고 올버니의 버링턴 가든 입구로 향했다.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는 동안 택시를 대기시킨 뒤, 바라클로를 보내 요금을 지불하게 했다. 그사이 래플스는 피카딜리로 당당히 걸어 나갔다. 그 시각, 버링턴 가든에서는 중절모 끝자락이 감시하는 눈동자들을 가리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나 역시 로즈 경기장 밖 호출실에서 헛수고를 한 뒤 택시를 타고 오다가, 그 귀한 두 명 중 한 명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쯤 그자의 동료는 이미 피카딜리 쪽 끝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고, 래플스는 유유히 자취를 감춘 데다 가련한 추격자들에게 빈 새장만 지키게 만들었다. 래플스는 그들을 "아마추어 같다"라고 평하며 그리 부당하지 않게 일축했다.

그렇기에 래플스가 "그들의 눈을 피하려고 주말 동안 시골로 내려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더욱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는 월요일 밤에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니, 자네도 아는 그 약속을 지키러 말이야. 원한다면 자정 정각에 워털루 역 시계탑 아래에서 만나도 좋아. (되도록 플란넬 운동복에 테니스화 차림으로 오게.)"

좋아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나는 그 초대에 경의를 표하며 서둘러 술을 들이켰다. 그 초대는 지금까지 래플스가 내게 건넨 그 어떤 찬사보다도 내 허영심을 기분 좋게 자극했다. 나 없이도 일이 가능한지 알려주겠다던 그의 빈정거리는 말투가 아직도 귀에 선했지만, 이토록

기분 좋은 소식을 이르게 전해온 것에는 빈정거림 따위는 전혀 섞여 있지 않았음이 분명했으니까.

이 소식은 사건을 바라보는 내 관점을 통째로 바꿔 놓았다. 래플스가 다른 친구들을 위해 감수하는 위험들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 위험을 나 또한 함께 나누게 된다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란 어려워진다. 게다가 내 친구와 공통의 적 사이의 승패는 곧 나의 문제이기도 했다. 댄 레비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뒤, 다시 그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래플스에게나 나에게나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망가뜨릴 기세로 술을 마셨다. 그러고는 슬그머니 빠져나와 래플스를 감시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우쭐대는 그 어리석은 수하들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 멍청이들은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었다! 벌링턴 가든 근처를 서성이는 녀석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지루해 보였다. 얼룩덜룩한 턱수염에 때가 낀 턱을 가진 그 모습은, 설령 그토록 친절하게 형사 역할에 맞춰 차려입지 않았더라도 내가 본 그 어떤 형사보다도 누가 봐도 명백한 형사의 모습이었다. 다른 덩치 큰 녀석도 만만치 않은 부류였다. 싸움꾼처럼 생긴 얼굴에 통 같은 가슴을 가졌지만, 피카딜리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보다는 오히려 눈을 피하느라 급급해 보였다. 두 사람 모두 무익한 짓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고,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내 기분은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오후 내내 그 미행꾼들의 수법 그대로 로즈 경기장 근처에서 벨사이즈 양의 뒤를 쫓았다. 그러다 마침내 래플스가 아주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할 기회를 잡았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너무 의기양양하게 보고를 한 탓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벨사이즈 양의 관심을 끈 것은 오직 그 사실뿐이었다. 내가 신이 나서 늘어놓은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그녀에게 불쾌감만 안겨준 듯했다. 어제 래플스에게 보여준 편견과 일맥상통하는 반응이었다. 오늘 아침 그녀가 내게 보여준, 래플스를 걱정하던 그 고마운 마음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가 래플스에게 품기 시작한 새로운 감정은 그저 고마움에서 시작해 고마움으로 끝나는 듯 보였다.

래플스는 우리 모두를 매료시켰던 것처럼 이 젊은 아가씨를 사로잡지는 못했다. 평범한 남자와 약혼한 그녀는 우리를 눈멀게 했던 래플스의 마력에 휘둘리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그의 친구인 내게조차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레비처럼 이 모든 일이 장난일 뿐이라며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 척했고, 그것을 걱정의 핑계로 삼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래플스의 실체를 이미 짐작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으리라는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들었다. 그녀의 본능적인 반감은 이전보다 더 커져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가 말이나 행동으로 래플스를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했다. 래플스의 지금 행보로 인해 어떤 화가 닥치더라도, 결코 카밀라 벨사이즈를 통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래플스가 저지른 그 이타적인 타락에 단순히 곁다리로 끼어드는 방해꾼이 아니라,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다가올 사건에 대비해 엄숙한 훈련에 돌입했다. 토요

일에는 터키식 목욕탕에서 몸을 풀었고, 일요일에는 마운트 스트리트와 클럽 사이를 오가며 조용히 안정을 취했다. 월요일 대부분은 밤에 있을 일을 위해 냉정하게 마음을 가다듬으며 통나무처럼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마침내 밤이 깊어지자, 나는 워털루에서 래플스를 만나기 전 직접 현장을 정찰하기로 했다.

또 다른 서늘하고 별이 빛나는 저녁이었다. 마치 이 날씨가 온 동네 사람들을 너도나도 거리로 불러낸 것만 같았다. 도로에는 차량 행렬이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고, 뒷길은 오히려 한산했다. 그레이스 인은 눈에 보이는 인파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빠져나간 그릇처럼 텅 비어 있었다. 홀본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와 불빛이 가득한 골목을 지나 관문을 통과하자, 순식간에 아무도 없는 광장이 나타났다. 텅 빈 땅 위로 밝은 별들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곳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기에 그 극명한 대비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그 낯선 환경 탓에 나는 길을 잃고 말았다. 그레이스 인의 사우스 스퀘어에 서 있으면서도, 내가 있는 곳이 그레이스 인 스퀘어라고 착각한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버로우즈 앤 버로우즈 사무실을 찾기 위해 막막한 수색을 시작했다. 문을 하나하나 두드려 보았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무렵, 홀본에서 나처럼 길을 잃은 행인이 한 명 떠밀려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나와 달리 길을 잘 아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빨랐다. 나는 길을 묻기 위해 문가에서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앞을 가로막기도 전에 광장을 가로질러 가버렸다. 두 번째 아치형 입구 옆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가 지나가는 순간, 나는 뒤로 물러서며, 내 고무 밑창 덕분이라 신과 래플스에

게 감사했다. 그는 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듯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나는 그가 사흘 전 래플스를 미행하던 두 명의 멍청이 중 체격이 더 건장했던 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치 아래를 지나갔다. 나는 아치 반대편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죽였다. 그러다 광장에서 벌어진 뜻밖의 조우를 거의 눈앞에서 목격하고 말았다.

급한 발소리가 멈췄다. 한쪽에서는 "여기 있습니다!"라는 속삭임이, 다른 한쪽에서는 "자! 그는 어디 있습니까?"라는 재촉이 들려왔다. 양쪽 모두 숨을 죽인 채 무척이나 다급한 기색이었다.

"작업 중이야." 첫 번째 목소리가 속삭였다. "목까지 푹 잠길 정도로 말이지!"

"그가 언제 들어갔지?"

"한 시간 전쯤입니다. 제가 전령을 보냈을 때 말이죠."

"어느 쪽이지?"

"17번을 지나 위로 올라갔습니다."

"옆집 말인가요?"

"맞습니다."

"지붕을 넘어서 말인가요?"

"모르겠어. 흔적을 하나도 안 남겼거든. 직접 가서 확인해 봤는데도 말이야."

"보통 그렇듯이 사다리랑 트랩도어(바닥문)도 있겠지?"

"맞아요, 하지만 사다리는 제자리에 잘 걸려 있는걸요. 그 사람이 사다리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을 리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상대방은 툴툴거렸다. 그러더니 래플스가(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과연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하는 데 성공하기나 했을지 의구심을 표했다. 하지만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사람은 침입이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확신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나올 때까지 여기서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새로 나타난 이가 투덜거리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놓칠 리가 없어요. 그놈은 광장 쪽으로 돌아오든, 아니면 정원을 가로질러 오든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정원 쪽으로 가면 이 난간을 넘어 필드 코트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길로 오든 우린 그놈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마치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양쪽 길을 다 지켜볼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해보세요. 저기 오래된 홀로 통하는 문을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들은 것은 거기까지였다. 처음에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몇 걸음 정도 거리가 더 멀어지면서 나머지 말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듣고 싶은 말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 "늘 쓰던 사

다리랑 바닥문 말이야!" 그 축복 같은 말 한마디는 순금으로 새긴 커다란 글자만큼이나 값진 가치가 있었다.

이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긴장을 풀고 고개를 돌려 아치형 입구 너머를 살폈다. 이제는 들킬 염려도 없었다. 그레이스 인 광장의 서쪽 면이 한눈에 들어왔다. 어둑한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선명한 선을 그리며 이어졌다. 보도와 창문이 빽빽한 집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지붕 아래 놓인 벽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집집마다 문 위로 난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일렁였을 뿐, 그 삭막한 건물 외벽의 어둠을 깨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저 벽 너머 어딘가 어두운 방 안에서, 래플스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마치 방금 전 우리를 파멸시키려 모의하던 적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만큼이나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졌다. 금고를 뒤지는 모습이 보였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다 모든 것을 원래 있던 그대로 되돌려 놓은 뒤, 법의 손길이 닿는 곳을 향해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보였다.

나는 그 절박한 결말조차 그에게는 마땅한 대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는 나를 공범으로 몰아세워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더니, 정작 내내 나를 이 일에 전혀 끼어들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래플스가 제 미친 짓이 불러올 파국을 피하려면, 나, 오직 나만이 그를 구해야 했다. 내 진가를 보여줄 생애

단 한 번뿐인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물론 이 일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래플스 본인조차 겁을 먹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 말이다.

그가 범죄의 거점으로 삼았던 그 집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적어도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래플스가 했던 일을 나 또한 어떻게 따라 할 수 있을지는 알 것 같았다. 다행히도 내 귀에 들릴 만큼 가까이 있던 그 영악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입을 통해 나에게 실마리를 던져준 셈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퉁이 바로 너머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띄엄띄엄 대화 소리가 흘러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은 이미 내 얼굴을 알고 있었다. 내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단번에 나를 알아보고 덮쳐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만약, 만약에—

"바로 내게 묘안이 떠올랐다!"

홀본의 인파 속으로 다시 한번 몸을 밀어 넣었을 때, 사람들은 어딘가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곧 그 소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버스에 올라탔고, 시계로 보니 불과 몇 분 만에 버스에서 내렸다. 나는 1분 정도 더 시간을 보낸 뒤, 그레이스 인 광장으로 향하는 한섬 마차에 올라타 최대한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번호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는 마부에게 말했다. “법률 사무소인 버로우즈 앤 버로우즈에서 세네 집 정도 더 지나면 됩니다.”

홀본으로 들어가는 문은 누군가 열어주어야 했다. 하지만 문지기는 내가 아까 뒷문을 통해 걸어서 드나들 때는 미처 나를 보지 못했던 모

양이다. 우리가 더 깊은 아치 아래를 지나 진짜 광장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마차 뒷좌석에 머리를 바짝 붙이고 얼굴을 필드 코트 쪽으로 돌렸다. 적들이 이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었지만, 만약 내가 길가에 내리자마자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것은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었고, 다행히도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갔다.

우리는 광장에서 유일하게 외문이 달린 집을 지나쳤다. (지금은 그런 집이 없다.) 그 옆에 붙은 명판에는 '버러즈 앤 버러즈'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전율을 느꼈다. 나는 지팡이를 치켜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행운을 빌며 굳이 필요치 않은 6펜스 동전까지 덤으로 섞어 1실링을 마차 요금함에 밀어 넣었다. 마부의 말이 채 회전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보도를 가로질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문 네 개를 더 지나 계단 위로 뛰어 올라간 뒤였다.

계단은 넓고 탁 트여 있었다. 층마다 양옆으로 커다란 사무실 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계단참 중앙에는 광장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하나 있었다. 나는 1층 창문 안쪽 깊숙한 곳에서 기다렸다. 한섬 마차가 아치형 입구를 빠져나갈 때, 마차 근처 등불의 불빛이 현관 계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스치듯 비추었다. 하지만 마부를 멈춰 세우거나 불러 세울 여유는 없었다. 말발굽 소리와 마차 종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무 밑창을 신은 채 나머지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가는 동안, 내 귓가에는 요동치는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던 나는 잠시 멈춰 서서 행운의 여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예상대로 마지막 반층 계단 위 커다란 못에는 긴 사다리가 걸려 있었고, 계단 바로 위에는 사각형 모양의 함실문이 딱 버티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올라가 위층 문 두 개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한쪽은 보아하니 잔재주나 부리는 좀스러운 법률 사무소였고, 다른 한쪽은 개인 주택이었다. 우편함에 쌓인 편지 더미를 보니 그 집 주인은 현재 집을 비운 모양이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내게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사다리를 못에서 떼어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는 데만 신경을 썼다. 그다음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함실문을 들어 올리는 일이었다. 별다른 문제나 방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다락방 안에서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머리를 기와에 쾅 하고 부딪히고 말았다.

이 상황은 여러모로 난처했다. 사다리를 둔 채로 자리를 뜰 수도 없었지만, 사다리 높이가 내 키의 거의 두 배나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눈앞에 펼쳐진 잡동사니와 거미줄 더미가 어느 정도 시야에 들어오자 그제야 안심이 되었다. 다락방은 충분히 길었고, 천장의 가장 높은 지점 바로 아래에 천창이 있었다. 문제는 내가 사다리에서 옆으로 비껴나 발을 디뎠다는 점이었다.

나는 사다리를 끌어올려야만 했다. 간신히 끌어올리기는 했으나, 바라던 만큼 조용히 처리하지는 못했다. 천창을 열어둔 채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 동안 귀를 기울였다. 아주 조심스럽게 천창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다락방 안에서 들려온 끼익 소리와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건드렸다는 유일한 신호였다.

때가 탄 도머 창문 하나가 있었다. 그 창문은 광장을 내려다보는 구조가 아니었다. 대신 배의 승강구처럼, 한때는 붉었으나 이제는 별빛 아래 청검은 빛으로 얼룩진 기와 골짜기로 이어져 있었다. 사람이나 짐승의 눈을 피해 이 순수한 밤공기 속에 똑바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연기 없는 굴뚝들이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지워버린 듯 보였지만, 내 눈에는 그 굴뚝들이 뻣뻣한 기와 골짜기 사이로 솟아올라 전선들을 잎사귀처럼 얽어매고 있는 버드나무처럼 보였다.

내가 머무는 이 골짜기는 앞뒤로 양옆의 경사와 비슷한 경사면으로 막혀 있었다. 골짜기의 길이는 분명 집 한 채의 정면 너비와 일치할 터였다. 실제로 남쪽 끝을 넘어 정확히 똑같이 생긴 다른 골짜기로 기어올라갔을 때, 내 짐작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버로우즈 앤 버로우즈 너머 네 번째 집으로 들어온 것일까, 아니면 다섯 번째였을까? 세 개의 골짜기를 차례로 통과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세 곳 모두 양옆으로 도머 창문이 나 있었다. 하나는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사각형 면에 붙어 있었고, 다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창문들은 꼭대기 층 방의 채광창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활짝 열려 있는 창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창틀 근처에는 뱀처럼 똬리를 튼 밧줄 끝자락이 놓여 있었다. 나는 몸을 굽혀 그것을 만져보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만으로도 이것이 래플스가 즐겨 쓰는 마닐라 삼줄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실크처럼 유연하면서도 굵은 밧줄만큼이나 튼튼한 물건이었다. 밧줄은 창틀 기둥에 묶인 채,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는 방 안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여다본 방 중 단연 사람이 살고 있는 방이었다! 하지만 래플스가 길을 열었으니 내 몸도 그 뒤를 따라야 했다. 래플스의 뒤를 따라 내려가던 나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 튼튼하지 않은 곳에 발을 디디며 내려앉았다. 주방 난로의 창살 사이로 스며 나오는 꺼져가는 불빛이 주방 식탁 한가운데 놓인 내 테니스화를 비추었다. 나는 나무 의자를 디딤돌 삼아 발을 내디뎠고, 고양이처럼 가볍게 착지했다. 그 순간 화로 앞 카펫 위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가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주방 문을 찾아 들어갔으나, 복도는 너무나 어두웠다. 복도 끝에 달린 창문은 마치 그림의 한가운데를 칼로 그어버린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복도를 따라 살금살금 기어간 뒤 창밖을 내다보니, 그저 광장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적들이 예전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소리까지 들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적의 영토가 아닌, 또 다른 적의 땅에 들어와 있었다. 침대에서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려 매 걸음마다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나는 마침내 바지에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는 대담함을 발휘했다. 그 불빛에 의지해 바깥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 문은 빗장이 걸려 있지도, 완전히 닫혀 있지도 않았다. 그저 살짝 열려 있을 뿐이었기에, 나는 문을 그대로 둔 채 빠져나왔다.

맞은편 방들은 비어 있는 듯했다. 2층과 1층의 방들은 거대한 버로스 앤 버로스 사의 여러 부서로 이어지는 스윙 도어에 의해 부분적으로

만 가려져 있을 뿐이었다. 계단참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나는 성냥을 연달아 그어가며 정보를 모아야 했다. 다 타버린 성냥개비가 들통나지 않도록 몸 어딘가에 조심스레 숨기면서 말이다. 벽에 빼곡히 적힌 글귀들도 단서가 되었다.

덕분에 유명한 이 회사의 수장인 존 버로스 경의 개인 집무실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더듬더듬 찾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구역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육중한 마호가니 문들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줄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으나, 모두 잠겨 있었다.

오직 단 하나의 문만이 내 손길에 허락하듯 열렸다. 문이 몇 인치쯤 열렸을 때도 안쪽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몇 인치를 더 열자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 나의 이 외로운 모험도 그렇게 끝이 났다.

제12장

한여름 밤의 작업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단 한 곳에서만 빛이 새어 나왔다. 작은 전구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접시 모양의 광원을 이루고 있었다.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백색의 열기가 눈송이처럼 하얀 종이 위를 비추었다. 그 빛 아래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손과, 언제든 글을 쓸 준비가 된 채 멈춰 있는 펜이 있었다. 빛은 종이 반대편, 탁자 위에 놓여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체에도 닿아 있었다.

래플스가 또 한바탕 기발한 장난을 꾸미고 있는 참이었다. 그는 내 기척을 듣지 못했고 나를 볼 수도 없었다. 사실 그는 작업에 몰두하느라 고개를 드는 법이 거의 없었다. 가끔 그가 종이 위로 몸을 숙일 때면, 나는 그가 얼마나 지독하게 집중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었다. 미간에는 주름이 잡혔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그 표정 너머에는 래플스 특유의 미소가 살짝 스치고 있었다. 크리켓에서 공을 던질 때나, 문에 구멍을 뚫을 때 보여주던 그 차분하고도 경계심 어린 미소 말이다.

나는 잠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홀린 듯 멈춰 서 있던 나는, 그에게 내가 왔음을 속삭여 알리려 조심스레 다가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발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그는 재빨리 손전등과 번뜩이는 리볼버를 낚아채더니, 손전등 불빛 아래 나를 총구로 겨누었다.

"A. J.!" 나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버니!" 그도 놀라움과 불쾌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야?"

"위험해요." 내가 속삭였다. "당신에게 경고하러 왔어요!"

“위험이라니? 난 늘 위험 속에 살고 있어. 그런데 내 위치는 어떻게 알았고, 도대체 하늘에 계신 하느님 맙소사,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 그나저나, 지난번에 네가 겨우 따돌렸던 그 무식한 놈들 두 명 기억나?"

"그래야만 하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아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래플스는 우리 얼굴 사이로 비치는 한 줌의 하얀 빛줄기 너머로 잠시 동안 눈을 가늘게 뜨고 살폈다.

"기다리라지!" 그가 말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권총을 내려놓고 펜을 집어 들었다.

"형사들이에요!" 내가 다급하게 말했다.

"정말 그럴까, 버니?"

"그게 아니면 대체 무엇이겠나?"

“정말이지, 놀랍군!” 래플스가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신중한 손길로 펜을 움직여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금요일에 그들을 따돌렸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이미 네 수작을 눈치채고 있었던 거야. 그중 한 명이라도 이곳에서 네가 나타나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내 생각엔 댄 레비가 이 일을 꾸민 게 분명해. 편지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너를 이 함정으로 유인해서 현장에서 붙잡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야. 그는 복사본 따위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발, 지금 그걸 끝내려고 꾸물대지 마!”

"난 자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네." 래플스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리고 난 일을 대충 하는 법이 없지. 버니, 자네나 그 잘난 탐

정들이나 인내심을 가져야 해." 그는 시계를 전등 빛에 비추어 보았다. "20분 정도 지나면 진짜 위험이 닥치겠지만, 앞으로 10분 동안은 침대에서 자는 것만큼이나 안전할 거야. 그러니 더는 방해하지 말고 내가 끝낼 때까지 기다려 주든가, 아니면 들어올 때처럼 알아서 나가 주게."

나는 래플스의 불빛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비틀거리며 계단참으로 되돌아갔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나는 온갖 고난을 헤치며 그의 곁으로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그 과정은 래플스 본인조차 극복하기 버거울 만큼 험난했다. 마치 난파선에서 밧줄을 잡고 해안으로 헤엄쳐 올라오는 사람처럼, 나 또한 똑같이 목숨을 걸었고 똑같이 인도적인 목적으로 그를 도우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 "들어올 때처럼 네 발로 알아서 나가!"라는 모진 말뿐이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영영 떠나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니, 계단참에 서서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모욕감에 휩싸인 마음 한구석에서는 광장 쪽에서 쫓아오는 저 추적자들과 그 뒤를 따르는 경찰 포위망을 차라리 반갑게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 끔찍한 순간, 따스한 숨결이 뺨에 닿고 동시에 누군가의 손이 어깨를 짚는 것이 느껴지자, 끓어오르던 내 피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래플스!" 나는 목이 메어 비명을 지르듯 그를 불렀다.

“쉿, 버니!” 그가 내 귓가에 대고 낄낄거리며 속삭였다. “그게 누구인지 몰랐단 말이야?”

"전혀 듣지 못했잖아. 왜 그렇게 몰래 다가온 거야?"

“봤지, 버니?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너뿐만이 아니라는 걸! 네가 광장 사람들을 죄다 우리 머리 위로 불러들였어도, 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야.”

"다 끝났나?" 내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그럼 서둘러서 모든 걸 원래 있던 대로 돌려놓는 게 좋을 거야."

"다 끝났어, 버니. 아주 완벽한 위조품에 붉은 끈을 매어 두었지. 이제 관건은 이게 위조품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거야. 안전한 금고에 넣어 두었고, 서류들도 전부 제자리에 잘 정리해 뒀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

“난 소리 하나 내지 않았는걸.” 래플스가 내 팔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다. “버니, 자네가 나를 제대로 자극했군. 정말이지 대단해!”

우리는 집 꼭대기에 있는 독립된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래플스에게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가 내는 소리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간청했다.

“왜 그래, 버니? 안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단 말이야?" 안도감이 밀려오자 나도 모르게 소리 높여 외쳤다.

"과찬이야, 버니!"

우리가 더듬거리며 안으로 들어서자 래플스가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가 바로 그 '존 불독'이 지키고 있는 곳이지. 건장한 체격에 가슴팍에는 훈장까지 달고 있는 아주 근사한 안내인 말이야. 만약 그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나를 마주쳤다면, 우리 중 하나는 죽었어야 했을 거야. 어느 쪽이든 참 비참한 결말이었겠지. 아, 가여운 고양이야, 정말 가여워!"

주방에 도착하자 고양이가 래플스의 다리에 몸을 비벼댔다.

“도대체 밤새 그 사람을 어떻게 따돌린 거야?”

"금요일에 그를 찾아가서 통성명했어. 내가 로즈 경기장에서 나오면서, 이 악명 높은 회사의 거물과 약속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가 가진 독보적인 고객 명단에 내 이름도 슬쩍 올려둘 참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오늘 오후에도 한 번 더 만났는데, 그때 내 V.C.에게 연극 보러 가는 걸 좋아하느냐고 물었지. 알고 보니 그 친구가 '톰 풀'을 놓쳐서 로즈 경기장에 갈 기회가 전혀 없었다지 뭐야. 그래서 대신 '로즈메리' 티켓을 구해다 줬어. 물론 방금 선물로 받은 거라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말이야. 그때 그 주인공이 얼마나 환하게 웃던지, 자네도 봤어야 했는데! 그게 그 친구와 부인이 어

디 있는지 알려주는 단서야. 아니, 막이 내리기 전까지 있던 곳이라고 해야겠군."

"세상에, 래플스. 이제 끝난 건가?"

"거의 10분 전이야. 하지만 다들 택시를 타고 돌아오지 않는 한, 그 만큼의 시간이 더 걸릴 거야."

래플스는 부엌 식탁 앞에 앉아 벽난로 불을 쬐며 고양이를 달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무시무시한 V.C.와 그의 부인이 그레이 인 스퀘어를 향해 매 순간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터였다!

"이보게, 버니. 만약 지금 당장 우리 영웅께서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면, 난 소리 하나 안 내고 흔적도 없이 벽을 타고 기어나가 자신만만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네. 자, 먼저 가게나, 버니."

무릎이 떨려왔지만 나는 기어 올라갔다. 래플스는 내가 더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밧줄을 팽팽하게 잡아주었다. 다시금 별빛과 전화선 아래에 똑바로 서게 된 나는, 래플스를 기다리며 굴뚝 옆에 몸을 기대고 섰다. 하지만 래플스의 모습이 보이기 전, 그가 불필요할 정도로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조차 들리기 전, 나는 다른 무언가를 들었다. 그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열쇠가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소리였다. 지붕 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바로 옆 납판과 기와가 덮인 경사면을 타고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였다.

래플스가 도머 창문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창밖 지붕 위 납판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놈들이 위쪽까지 쫓아왔어!" 나는 그의 얼굴에 대고 속삭였다. "바로 옆 지붕이야! 소리가 들린다고!"

래플스가 창틀을 붙잡고 쑥 올라오더니, 양손 사이에 무릎을 끼워 넣고는 기어 나왔다. 그는 경사진 기와 사이로 흐르는 좁은 납물 통로를 따라 네 발로 기어 내려갔다. 한두 야드 떨어진 맞은편 경사면에는 튼튼한 벽돌 굴뚝들이 뭉쳐 있었다. 굴뚝마다 머리가 하나씩 달린, 마치 수많은 머리를 가진 괴물 같았다. 그 괴물의 수염처럼 전선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래플스는 지붕 위를 점령한 이 고르곤 괴물 뒤로 나를 데리고 말없이 서둘러 몸을 숨겼다. 옆 지붕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광장에서 이미 엿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들이었다.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그 말투는 달랐다. 그 말투와 내용은 마치 내분 중인 적들의 다툼과도 같았다.

"이런, 결국 너무 멀리 와버렸잖아!" 현장에 가장 늦게 도착한 이가 투덜거렸다.

"우리가 그랬지." 상대방이 중얼거렸다. "그놈들을 뒤쫓아 들어온 바로 그 순간 말이야. 그냥 서 있던 곳에서 멈췄어야 했는데."

"그 다른 녀석도 불빛 하나 안 비추고 그대로 차를 몰고 들어갔단 말이야?"

래플스가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둘 중 더 나약한 녀석은, 아까 육지에서 마지못해 물러났던 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때가 늦지 않았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며 성화였다. 부서진 논쟁의 파편들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기 시작할 무렵, 앞서 가던 래플스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열린 창문과 밧줄을 발견했다는 신호였다.

"잡았어." 그가 연극 배우처럼 과장되게 속삭였다. "덫에 걸린 쥐새끼들처럼 아주 손쉽게 말이야!"

"우리가 무엇을 손에 넣어야 하는지 잊은 모양이군."

“자, 일단 그놈부터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놈 친구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려주러 갔다면 어쩌지? 만약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서 멈춰 서기라도 했다면, 우린 아주 손쉽게 당했을 거라고.”

"저 밑 어둠 속에서는 놈들이 우리를 더 쉽게 덮칠지도 몰라." 다른 한 사람이 눈에 띄게 몸을 떨며 대답했다. "우리가 가는 소리를 듣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 어둠 속에서 말이야! 그럼 우린 손쓸 도리도 없이 당하고 말 거야."

"좋아! 네놈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목숨이나 부지하시지. 난 겁쟁이랑 같이 일하느니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게 낫겠으니까!"

과거에도 래플스와 나 사이에는 이런 식의 상황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내 곁에 있던 불쌍한 녀석은 자신의 용기를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 예전의 나처럼 격렬하게 분개했다. 그 녀석은 그저 신중을 기했을 뿐이

었고, 그 행동이 얼마나 옳았는지는 래플스와 나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래플스가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범인의 대사와 행동은 우리가 흔히 보던 경찰의 수사 방식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직접 연기하던 무대 위의 한 장면을 훨씬 더 닮아 있었다. 창틀 너머로 범인의 옷이 쓸리는 소리와 단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옛날 생각 나는군."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겁쟁이 같은 녀석이 뒤따라가야 할지 확인하려고 충동적으로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그가 어쩔 수 없이 일을 벌이는 매 순간마다, 나는 그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터였다. 래플스는 우리가 몸을 숨긴 곳 뒤에서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내려갔다. 나도 쌓아 올린 물건의 모서리를 양손으로 움켜쥔 채, 그를 따라 고개를 돌려 뒤를 쫓았다. 예전의 내 역할을 대신 수행하던 그 불쌍한 친구는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기보다는 안쪽으로 몸을 밀어 넣은 모습이었다. 별빛 아래서 래플스가 씨익 웃는 것이 보였다. 한쪽 발을 허공에 띄운 채 버티고 있던 그 불쌍한 놈이 이내 자취를 감췄다. 뒤이어 둔탁한 충돌음이 들리더니, 곧이어 두 번의 굉음이 이어졌다. 쏟아지는 욕설을 들어보니 두 번째 놈이 첫 번째 놈 위로 그대로 덮쳐 떨어진 게 분명했다. 또한 그 욕설의 기세로 보아, 다행히 그놈은 추락하고도 살아남을 것 같았다.

하지만 래플스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돌아보며 흐뭇해할 겨를조차 없었다. 내 발치로 밧줄이 채 채찍처럼 날아오기가 무섭게, 그는 곧장 반대쪽 끝을 풀어버렸다.

"가로등 점등원처럼 말이야, 버니!"

우리는 납빛 계곡을 따라, 그리고 기와지붕이 덮인 언덕을 넘어 허둥지둥 되돌아갔다. 버로우즈와 버로우즈의 집 지붕과 우리 사이에 건물 한두 채가 가로막히자, 주방에서 들려오던 소음도 점차 잦아들었다.

"내가 나온 곳이 바로 여기야!" 래플스가 그 앞을 지나갈 때 내가 소리쳐 불렀다. "다락방에 놔뒀던 사다리가 여기 있어!"

“사다리 챙길 시간 없어!” 래플스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그는 한동안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나 때문에 멈춘 것도 아니었다. 우리 뒤쪽 어딘가, 저 아래쪽 어딘가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경찰의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고, 광장에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저거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사다리야! 저기 사다리가 있어!"

"사다리랄 게 무슨 상관이야!" 래플스가 거칠게 대꾸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내 친구인 그 V.C. 영웅이 돌아와서 다른 놈들을 아주 몽땅 잡아넣은 거야."

"그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도 좋아! 우리 경로는 이쪽 지붕들을 쭉 가로질러서, 저 끝에 있는 지붕들까지 전부 지나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가능하다면 구석에 있는 마지막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베룰람 빌딩 쪽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광장에 아주 잠깐만 모습을 드러내면 돼."

"저기에 문이 하나 더 있나요?" 그가 앞서 달려가자, 나도 그 뒤를 쫓으며 물었다.

“맞아.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혔고, 관리인은 열두 시에 퇴근해. 지금쯤이면 거의 그 시간이 다 됐을 거야. 잠깐만, 버니! 광장 건너편 위층 창문 중 어디선가 누군가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너무 대담하게 담을 넘다가는 금방 들키고 말 거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고무 밑창의 도움을 받아 소리 없이 경쾌하게 오르내렸던 경사진 타일 지붕 구간에 다다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혹시라도 다른 높은 곳에서 누군가 우리를 발견해 별빛 아래 실루엣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우리는 네 발로 기어 올라가 몸을 길게 눕힌 채 조심스레 굴러 이동했다. 광장의 한 면을 가로지르는 데만도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다. 그사이 경찰의 호각 소리는 멎었으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눈에 띄게 커졌다.

마치 영겁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몇 분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광장 북동쪽 모퉁이, 마지막 기와지붕이 내

려다보이는 곳에 있는 마지막 다락창가에 다다랐다. 별빛 아래 무언가 번뜩이더니, 나무가 쪼개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래플스는 나를 이끌고 손과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 예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던 것과 똑같은 다락방 안으로 들어섰다. 래플스가 비춘 손전등 불빛이 천장의 함을 찾아냈다. 래플스는 함을 열고 밧줄을 내려보냈으나, 곧바로 너무나도 재빠르게 밧줄을 낚아채 올리는 바람에 채찍처럼 내 얼굴을 세차게 후려쳤다.

위층 계단참의 문이 열렸다. 우리는 열려 있는 다락문 너머로 귀를 기울였다. 문 아래, 보이지 않는 문턱 너머에서도 누군가 숨을 죽인 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곧이어 그가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단 한 번도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 모습에 나는 안도감에 가슴이 뛰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탓에 그의 모습은 마치 터키식 페즈 모자와 하얀 머리카락, 붉은 목덜미, 그리고 출렁이는 가운과 걸음마다 실내화 밖으로 삐져나오는 맨발 뒤꿈치 정도로만 짧게 보였다. 하지만 내려가는 내내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그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고, 도무지 위를 쳐다볼 기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래플스는 쥐고 있던 밧줄을 옆으로 던져버리고는 대신 내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나를 계단참 위로 깃털처럼 가볍게 내려놓더니,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내 뒤를 따라 내려갔다. 사실 페즈 모자를 쓴 그 노신사가 계단을 다 내려가기도 전에 우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을 정도였

다. 하지만 계단참 창문 너머로 보니, 그 노인은 광장 저편 모퉁이에 모여든 군중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몸짓을 해대며 광장을 가로질러 대각선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버니, 저놈이 우릴 발견했어!" 입구 쪽에서 잠시 귀를 기울이던 래플스가 외쳤다. "내 그림자처럼 딱 붙어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그대로 따라 해!"

그는 몸을 날렸고 나도 그 뒤를 쫓았다. 나는 번개 같은 속도로 왼쪽으로 꺾어 달렸지만, 번개가 눈에 띄듯 나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만 모양이었다. 우리 뒤편 광장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래플스를 뒤쫓아 아치형 입구를 지나 베룰람 빌딩 앞 골목으로 급히 뛰어 들어가는 와중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군중이 우리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골목을 따라 전력 질주했을 때 시계는 막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골목 끝에서는 문지기가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게이트를 지나 그레이 인 로드로 나갈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 주었다. 그가 길을 열어준 뒤에야 비로소 추격자들이 직선 도로로 진입할 수 있었다. 등 뒤로 게이트가 쾅 하고 닫히고 나서야 우리는 그들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한섬 마차에 올라타 완전히 몸을 숨길 때까지, 게이트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킹스크로스 역이다!"

래플스가 거리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외쳤다. 하지만 클러컨웰 로드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워털루 역으로 가려던 것이었다. 우리는 노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는 숨이 차서 질문할 겨를조차 없었다. 래플스 역시 설리번 담배에 불을 붙이기 전까지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는 첫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방금 길을 좀 돌아온 것 때문에 기차를 놓칠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그 덕분에 추격대 전체를 킹스크로스로 몰아버릴 거야. 냄새가 냄새인 것만큼 확실하게 말이지. 만약 기차를 제시간에 탄다면, 버니, 이 추격 무리에 관한 한 기차를 우리끼리만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만세! 블랙프라이어스 다리까지는 아직 5분이나 남았어!”

"그 편지를 들고 곧장 레비네 집으로 가겠다고?"

"맞아. 그래서 열두 시에 시계 아래에서 만나자고 한 거야."

"그런데 왜 하필 테니스화인가?" 나는 그가 남긴 쪽지의 경고를 떠올리며 물었다. 그리고 그 경고 속에 담긴 속뜻을 나름대로 해석해 보며 의문을 던졌다.

"강가에서 밤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래플스가 어두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난 또 당신이 그레이 인에서 내가 좀 도와주길 바라는 줄 알았지!"

래플스가 웃음을 터뜨렸다.

“생각을 줄일수록 좋아, 나의 친애하는 옛 친구 버니! 자네, 오늘 밤 나를 위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해냈더군. 자네의 그 이타적인 대담함은 기지(機智)에 못지않을 정도였어. 하지만 이보게, 친구. 그건 정말이지 불필요한 수고였네.”

"밑에서 그 짐승 같은 놈들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맞아, 버니. 내가 그놈들 중 하나를 봤거든. 그래서 일부러 눈이 마주치게 했지. 그러면 분명히 제 친구를 불러낼 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전술도, 그들의 전술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내 계획은 자네와 내가 방금 한 것처럼 그대로 걸어 나가는 것이었네. 만약 자네가 나보다 먼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내가 경계 태세를 갖추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장 반대편에서 나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나를 따라 들어올 꿈조차 꾸지 못했겠지. 그랬다면 현장은 내가 처음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남았을 것이고, 그 두 얼간이는 지난주 내가 올버니 밖에서 그들을 버려두고 왔을 때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을 걸세."

“아마도 그 사람들도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든 뒤를 캐서라도 찾아내려 했을 테고요.”

“그 사람들은 아니야.” 래플스가 말했다. “그중 한 명은 애초에 반대했거든. 게다가 그건 애초에 그들이 할 일도 아니었어.”

"기회만 된다면 현행범으로 잡지 않겠다고?"

“아니, 그들의 임무는 내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자마자 내게서 편지를 빼앗는 것뿐이었어. 그게 전부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노인 레비가 내린 지시가 바로 그거였으니까.”

"레비!"

"그자가 부리는 수하들이 나를 뒤쫓고 있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해본 건가?"

"그자가 부리는 수하들 말인가, 래플스?"

"그자는 토요일 아침 우리가 만난 그 시간부터 그들에게 내 뒤를 밟으라고 시켰지. 내 편지를 받는 즉시 가로채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나 자신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지!"

"어떻게 아는 거야, A. J.?"

“여보게, 버니. 내가 이번 주말에 어디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나? 그 늙은 샤일록 같은 교활한 놈과 손을 잡으면서, 그놈의 진짜 속셈을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휩쓸려 갈 줄 알았어? 내가 내내 강가에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래, 강가에 있었다고.” 래플스가 낄낄거리며 덧붙였다. “캐나다식 카누를 타고, 토르피

도 수염까지 붙인 채로 말이야! 금요일 저녁에 그 노인네의 정원 발치 근처를 배로 돌고 있었는데, 그 귀하신 한 쌍 중 하나가 내려와서 주인에게 보고하더군. 내가 이미 빠져나갔다고 말이야. 나는 바로 배를 대고, 오늘 밤 우리가 그를 찾아낼 방 창문 너머로 그 대화를 전부 엿들었지. 도둑을 놓친 뒤에 그 집을 감시하라고 명령을 내린 건 레비였어. 그는 내 귀에 잘 들리도록 지시 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기까지 하더군.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내가 그놈에게 지시 사항을 읊어주는 걸 듣게 될 테니, 굳이 여기서 두 번 말할 필요는 없겠지."

"스코틀랜드 야드 형사 두 명한테 내린 명령 치고는 참 이상하군요!" 래플스가 터무니없이 많은 택시 요금을 내놓자,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한마디 던졌다.

"스코틀랜드 야드라고?" 그가 말했다. "이보게, 버니. 그들은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도둑을 잡으려고 투입된 노련한 도둑놈들이지. 그러다 오히려 자기들이 덜미를 잡히고 말았잖아!"

당연히 그랬다! 그들의 외모와 행동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 번뜩이며 떠오른 그 확신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계층의 숙적이라는 사실을,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꿈꿔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할 겨를은 없었다. 다음 말을 내뱉기도 전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뿐이었다. 그때 한섬 택시가 자갈 깔린 길을 달리는 소리를 내며 워털루 역으로 들어섰다. 그날 밤의 마지막 질주도 그렇게 끝이 났다. 12시 10분 열차의 플랫폼이 미끄

러지듯 멀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각자 다른 객차로 동시에 뛰어들었다.

제13장

KO (넉아웃)

하지만 오늘 밤의 소동이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았다. 래플스가 복스홀에서 나를 만나기 전, 나는 이미 그 예감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다니엘 레비 같은 대역죄인이라면 적어도 사기 주사위를 써가며 끝까지 게임을 이어갈 인물임이 분명했다. 그 냉혹한 책략을 상대로 정정당당한 스포츠맨 한 명이 맞서 싸울 수는 없었을 테고, 바로 그 지점이 내가 끼어들 자리였다. 다만 내가 진작부터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만 남았을 뿐이다. 그레이스 인에서 저지른 나의 경솔한 행동이 어떤 해를 끼쳤는지, 이미 늘어난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만약 그를 미행하던 자들이 정말로 레비가 고용한 용병들이었고, 그들이 자신들이 판 함정에 제대로 빠진 것이라면, 그들이 취할 첫 번째 자구책은 래플스를 진짜 경찰에 고발하는 일일 것이다. 적어도 내 생각은 그러했다. 래플스 본인은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그들이 래플스를 폭로하려면 레비까지 끌어들여야 할 텐데, 레비가 아마도 입을 다무는 대가로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래플스는 이 상황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나를 보며 너그럽게 넘기려 했지만, 그 태도 때문에 나는 그를 몰아세울 수가 없었다. 평

소 같았으면 나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물었겠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나 여유로웠기 때문이다.

그의 무심한 태도를 보니 모든 일이 이미 결정된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아마 마땅히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 채 남겨진 모양이다. 내가 파악한 바로는, 래플스가 시내에서 맺은 구두 계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레비가 서명해야 할 서류를 가져왔다는 것뿐이었다. 레비가 서명을 마쳐 계약이 완료되어야만, 그 탐욕스러운 자는 레비 자신이 쓴 적 없다고 잡아떼는 그 귀중한 편지를 받게 될 터였다. 결국 래플스는 게임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비열한 수를 써올 것에 대비를 마친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전혀 동요할 기색이 없었다.

우리는 향긋한 냄새가 감도는 승강장에서 기차를 내렸다. 우리가 조용한 길로 접어들자 승강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가로등 사이로는 박쥐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녔고, 한 경찰관은 퀸 앤 양식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조잡하게 지어진 건물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점점 더 한적한 길을 따라 걸었다. 커다란 저택들이 뒤로 물러나 자리 잡은 조용한 길을 지나, 마침내 적의 성문 앞에 다다랐다. 성문은 별도의 경비실도 없는 나무 대문이었으나, 그 너머 강가에 자리 잡은 저택은 상당한 규모에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 집은 마치 커다란 건물과 작은 건물이 하얀 기둥과 들보, 그리고 반짝이는 유리로 된 통로로 연결된, 두 채의 집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었다.

대문에서는 본채의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별채의 커다란 프랑스식 창문은 강과 도로에 직각을 이루는 빛나는 사각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자갈이 깔린 진입로에 발을 들였다. 한쪽에는 포플러 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삼나무와 작은 관목들이 흩어져 있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 래플스가 무언가에 놀라 신음하며 그 사이를 성큼성큼 가로질러 갔고, 땅 위에서 정체 모를 형체가 갑자기 튀어 올랐다.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래플스가 물었다. 법을 준수하는 시민 특유의 정의롭고 엄격한 태도까지 갖춘 채였다.

"누팅, 사레!" 낯선 억양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커다란 부드러운 모자 그림자 사이로 하얀 치아가 번뜩였다. "미스터 레비가 하우스에 있는 걸 봤소, 사업차 온 모양이던데, 신사 여러분."

“그를 봤다고? 그렇다면 내가 자네라면 지금 당장 예의 바르게 자리를 뜨는 게 좋을 거야.” 래플스가 말했다. 그는 한층 더 엄격해진 말투와 태도로 문 쪽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저쪽 문으로 말이야.”

그 기괴한 형체는 모자를 벗어 덥수룩한 머리를 드러내더니, 부풀어 오른 망토 자락에 오른손을 과장되게 찔러 넣으며 우스꽝스러운 절을 했다. 그러고는 별빛 아래로 위엄 있게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하지만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도로를 따라 달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난 목요일 저먼 스트리트에서 봤던 그 사람 아니야?" 나는 래플스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저 사람이야."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버니, 혹시 우리를 눈치챈 건 아닐까? 레비가 그를 아주 엉망으로 대하긴 했지. 며칠 전 아침에 그 사실이 봇물 터지듯 다 드러났으니까. 제발 잭 러터가 노(老) 베어드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이 댄 레비에게 똑같은 짓을 하는 게 아니어야 할 텐데! 분명히 봤어. 저 사람이 망토 아래에 무슨 무기 같은 걸 숨기고 있었다니까."

별빛 아래 나란히 서서 멀어지는 발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다. 우리 둘 다 잘 아는 어떤 남자가, 그보다는 덜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를 살해했던 사건 말이다. 우리는 그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때 겪었던 끔찍한 발견의 기억조차, 지금 내 마음을 주춤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래플스가 품은 그 간절한 희망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조할 수도 없었다. 만약 댄 레비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면, 그것은 래플스를 배신한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응보일 것이다. 적어도 이 일로 인해, 최악의 결말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우리의 모험이 일단락될 수도 있을 터였다.

내가 우리의 안위를 위해 이 죄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바랄 만큼 사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그 죽음이 가져올 이득을, 그 끔찍한 가능성만큼이나 명확하게 직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무렵, 불 켜진 창문 너머로 커다란 체구의 인물

이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오로지 안도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등 뒤로 빛이 비치고 있었고, 온몸이 마치 흑단으로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보였지만, 우리 쪽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저 남자는 분명 살아있는 레비였다. 그는 한 손을 귀에 갖다 대어 소리를 들으려 애쓰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두 눈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자네들인가?" 그가 무덤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쉰 듯한 인사를 건넸다.

“어떤 친구들을 말하는 건지 봐야 알겠지.” 래플스가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성큼 걸어 들어오며 대답했다. “오늘 밤엔 우리 같은 녀석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으니까!”

레비의 양팔이 힘없이 옆으로 툭 떨어졌다. 그는 "래플스!"라고 저주 섞인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곧바로 우리가 단둘이 온 것인지 물어왔다. 하지만 정작 그의 시선은 대답을 갈구하듯 우리 너머, 벨벳처럼 부드러운 밤의 어둠 속을 헤집고 있었다.

"우리 친구 버니도 데려왔네."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야."

“그럼 당신들 같은 사람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건 대체 무슨 뜻입니까?”

"방금 우리보다 먼저 이곳을 다녀간 그 신사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직전에요? 글쎄요, 식구들이 잠자리에 든 이후로는 사람 그림자도 못 봤는걸요."

“하지만 방금 전 당신네 대문 안에서 그자를 만났소. 머리는 대걸레처럼 헝클어지고, 오페라 속 음모가라도 되는 양 망토를 두른, 아주 발칙한 외국 놈이었지.”

"저 거지 같은 놈!" 레비가 그 자리에서 흥분하며 소리쳤다.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저 빌어먹을 놈 말이야! 저놈을 저먼 스트리트 사무실에서 쫓아내게 했다고. 편지랑 전보로 협박까지 해대더니, 이제는 아예 여기까지 직접 찾아와서 수작을 부리려는 모양이지. 나를 본 모양인데, 흥, 내가 그놈을 먼저 봤어야 했는데! 신사 여러분, 난 저런 독종 놈들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허술하게 당할 생각은 추호도 없단 말입니다!"

레비가 허리춤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우리 눈앞에서 휘두르자, 은도금된 리볼버가 전등 불빛을 받아 번쩍이며 빛났다. 만약 래플스가 우리가 도착했을 때 외국인 침입자는 이미 도망쳤다고 안심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권총을 든 채 정원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을 것이다. 레비는 마침내 우리를 실내로 안내하면서도 권총을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았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잔을 비운 뒤, 옆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권총을 올려두었다. 그러고는 곧장 벽난로 앞에 등을 돌리고 앉았다. 늦은 시각임을 고려하면 탁월한 선택이었다. 게다가 방이 워낙 넓어서 당

구대가 방 한구석에 겨우 자리 잡고 있을 정도였기에, 따스한 불길은 더욱 반가웠다. 방 안에는 여행의 기념품과 사냥 전리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예상외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런, 로즈 경기장에 있는 것보다 더 멋진 회색곰인데!”

래플스가 외쳤다. 그는 문 근처에 있는 아주 멋진 녀석(회색곰)을 감탄 어린 눈으로 바라보느라 잠시 말을 멈췄다. 그사이 나는 래플스가 거절했던 술을 내 잔에 직접 따랐다.

“맞아요.” 레비가 말했다. “이놈들을 다 쏴 죽인 놈이 예전에는 나까지 쏴 죽이겠다고 떠들고 다녔죠. 하지만 굳이 말할 것도 없이, 그놈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쁜 짓이라고 부르는 짓을 저질렀죠. 내가 장담하는데, 그놈은 여기서 별 볼 일 없었어요. 저 쥐새끼 같은 외국놈도, 내 피를 보고 싶어 안달 난 다른 시체 썩는 냄새 풍기는 놈들도 마찬가지고요. 난 그놈들이 누구든 상관 안 해요. 눈에 띄기만 하면 이 총으로 내장을 다 쏟아버릴 테니까! 래플스, 당신네 직업을 배우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레비 씨,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고리대금업자가 속이 뒤틀리는 듯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 소소한 절도 건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가 반짝이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열린 창문 너머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훑어보는 것을 보았다. 마치 우리가 혼자 온 것이 아니기를 바라

는 마음이라도 남아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레비 본인도 꽤 늦은 기차를 타고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는 아침 예복 차림이었으나 장화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테이블 위에는 음료와 함께 샌드위치가 넉넉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술병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샌드위치들이, 그가 밤새 기다려 봐야 헛일일 두 명의 밀정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내버려 둔 뒤, 다시 물었다. "어떻게 됐어?"

"첫 시도치고는," 래플스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군."

"아! 자네가 아직 풋내기라는 사실을 자꾸 깜빡하는군." 레비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레비 씨, 만약 모든 금고가 당신네 그레이즈 인 스퀘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처럼 허술하게 털린다면, 초보자인 제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쉬울 리가 있겠나?"

래플스는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떠올렸다.

“정말 엄청나게 즐거웠습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중간에 아무런 차질이 없을 거라고 미리 알 수는 없었지요. 마지막쯤에는 아주 짜릿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색다른 전율을 맛보았으니, 당신에게 고마

워해야겠군요. 하지만 친애하는 레비 씨, 이건 벨만 누르면 안내원이 따라오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좀 더 걸렸을 뿐이지요."

"관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리대금업자가 더는 숨기지 못할 호기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극장에 가줌으로써 내게 큰 도움을 주었지."

"당신 돈으로 말입니까?"

"아닙니다, 레비 씨. 해당 금액은 조만간 귀하의 계좌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그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들어갔단 말인가요?"

"지붕 너머로."

"그래서, 그다음은요?"

"운 좋게도 딱 맞는 방을 찾아냈지."

"그래서, 래플스는 어떻게 됐나?"

"난 제대로 된 금고를 열었어."

"어서, 어서!"

하지만 그 남자는 그저 자기 속도대로만 움직일 뿐이었다. 레비가 재촉하면 재촉할수록, 그는 오히려 움직이기를 더 꺼리는 것처럼 보였다.

“글쎄요, 편지는 아주 잘 찾아냈습니다. 아, 물론 사본도 만들어 두었고요. 사본이 어땠냐고요? 묻는다면, 거의 너무 완벽해서 놀랄 정도였다고 답하겠습니다.” 래플스가 몰아붙이는 압박 속에서 대답했다.

"그래서, 그래서요? 거기 그냥 두고 온 거죠? 그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래플스의 모험이 어떤 결말로 치닫는지 알아내려는 고리대금업자의 조급함은 이제 숨길 수도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다. 그 결말을 캐내기 위해 이토록 안달복달하는 모습이야말로, 레비 스스로가 교묘하게 설계한 비극적 파국을 암시하는 충분한 전조처럼 보였다.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자 그의 커다란 코는 붉게 달아올랐다. 굳게 다물려 있던 두툼한 입술 사이로는 누런 송곳니가 얼핏 비쳤다. 번뜩이던 작은 눈은 악의 섞인 즐거움으로 가득 차, 마치 반짝이는 바늘구멍처럼 작게 수축해 있었다. 내가 더 잘 알았고 그나마 덜 경멸했던 그 투사로서의 얼굴은 온데간데없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비열한 술수와 부정한 수작을 그대로 형상화해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다음에 벌어진 일은 말이야." 래플스가 아주 느긋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마치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버니가 들이닥친 일이었지."

"그 사람도 당신과 함께 들어갔습니까?"

"아니, 그놈이 나보다 나중에 들어왔어. 아주 뻔뻔스럽게 굴면서 말이야. 광장 아래에서 싸구려 탐정 놈들 두 명이나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더란 말이지!"

"그 친구 참 친절하기도 하군." 레비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까만 눈동자에서는 나를 당장이라도 죽여버릴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친절하다니!" 래플스가 외쳤다. "그 덕분에 판이 완전히 살아난 거라고."

"정말 그랬단 말이지?"

다른 길로 빠져나갈 시간이 있었기에 법망을 교묘히 피할 수 있었다. 그들이 내가 탈출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이다.

"그럼, 그들을 그냥 거기 두고 왔단 말인가요?"

"그들이 한껏 으스대도록 내버려 뒀지!" 래플스가 말했다. 그 자신 또한 그만큼이나 눈부신 모습이었다.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으나, 레비의 부하들을 어떤 곤경에 빠뜨려 놓았는지 그 달콤한 상황을 그 자리에서 즉시 떠벌리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 같았으면 승리의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그의 배신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우리의 승리를 마음껏 과시했을 것

이다. 하지만 래플스의 판단이 옳았다. 머지않아 직접 깨닫게 되었듯, 내 방식대로 행동했다면 오히려 실수만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유유히 빠져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고리대금업자가 비아냥거리며 물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래플스가 나무라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어!" 레비가 환희에 차서 외쳤다.

“레비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정정 좀 하겠습니다만, 저는 당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편지를 품에 안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래플스가 말했다.

유대인의 얼굴이 더욱 노랗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영리하고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에게 불리한 지점은 못 본 체 넘길 줄 알았다. "그걸 내게 보여주는 게 좋겠군." 그가 권위적인 태도로 손바닥을 내밀며 말했다. 래플스라면 그 기세에 눌려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레비는 여전히 벽난로를 등지고 서 있었다. 나는 그의 발치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팔꿈치 옆 탁자 위에 노란색 비커를 올려두고 있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여전히 거리를 둔 채 서 있었다. 그는 저명한 저민 스트리트 주소가 찍힌 커다란 사무용 용지를 펼치더니, 마치 성구(聖句)를 펼쳐 보이듯 높이 들어 올리며 벽난로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

"물론 보셔도 좋습니다, 레비 씨." 래플스가 말했다. 동사에 아주 약간이지만, 충분히 힘을 실어서 말이다.

"하지만 전 손도 대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맞느냐고요."

"먼저 당신이 확인부터 해주셔야겠습니다." 래플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당신이 준비해 두었을 그 '상응하는 대가' 중 한쪽을 내게 보여줄 때도 똑같이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한쪽은 당신이 서명할 수 있도록 내 주머니 속에 잘 넣어 두었으니까요. 그게 끝나면, 이 세 장의 작은 서류를 동시에 주고받도록 합시다."

그 통보는 더할 나위 없이 단호했다. 아니, 그 단호함을 전달하는 방식이 지나칠 정도로 섬세했기에 더욱 그러했다. 레비는 커다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이를 악독하게 갈아대는 탓에 툭 튀어나온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나는 이 괴물이 보여주는 자제력에 감탄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레비가 갑자기 내 옆에 놓인 탁자로 달려들더니 빈 잔에 위스키를 가득 채웠다. 그는 위스키를 한꺼번에 들이켜고는 눈을 깜빡이며 켁켁거렸다. 그러더니 한 손에는 술잔을, 다른 한 손에는 은도금된 권총을 든 채 래플스를 향해 돌진했다.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가 딸꾹질을 하며 말했다. "제대로 샅샅이 뒤질 거야. 네 간에 납덩이라도 박히길 원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

래플스는 상대가 망설이며 다가오는 모습을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다.

"레비 씨, 술에 취했든 맨정신이든 그렇게 바보 같지는 않을 텐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휘둘러지는 무기에 고정되어 있었고, 내 시선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는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갑자기 취할 수 있는지 의아했다. 독주가 든 잔을 래플스의 얼굴을 향해 아주 정확하게 내던진 것은 분명 맨정신인 사람의 동작이었다. 래플스가 눈이 멀어 비틀거리는 사이, 누군가 그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채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다. 내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기도 전의 일이었다.

래플스는 그 순간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다. 앞서 말했듯 그의 얼굴은 피와 위스키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비열한 짓을 저지른 배신자 놈은 벌써 승리라도 거둔 양 기세등등하게 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세도 잠시였다. 그 망나니는 나를 등지고 돌아서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나는 먼저 의자 위로 뛰어오른 뒤, 표범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열 손가락으로 그의 목을 움켜쥐고 덮치자, 그의 머리가 나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충격으로 그의 머리는 내 손에서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늘어졌다. 손가락을 떼며 그 납덩이 같은 머리를 놓아줄 때, 그의 거친 수염이 쓸리는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난다. 머리는 옆으로 툭 떨어졌다. 만약 그 머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발로 짓밟아 그 파충류 같은 놈의 숨통을 끊어 놓았을 것이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에 도취되어 기세등등하게 일어났음을 잘 알고 있다.

제14장

범죄의 증거

래플스는 여전히 눈을 움켜쥔 채 발을 구르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 편지, 버니, 그 편지!" 그가 내뱉는 말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끔찍한 습격을 당한 직후부터 그는 오직 그 말만 되풀이해 왔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모양이다. 벽난로 안에서 검게 그을린 종이 조각 몇 개가 힘없이 흩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레비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래플스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며 지키려 했던 편지는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그가 태워버렸어.” 내가 말했다. “나보다 한발 빨랐군.”

"그 사람 때문에 눈이 다 빠질 지경이야." 래플스가 다시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상대하기엔 너무 빨랐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놈의 머리통을 박살 내서 숨통을 끊어놓은 것 같으니까요!"

래플스는 피로 얼룩진 얼굴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충혈된 눈을 깜빡이며 그는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배의 밧줄처럼 굵은 손목에서 맥박을 찾아 짚었다.

"아니야, 버니,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얼른 나가서 집 다른 쪽에도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봐."

내가 돌아왔을 때, 래플스는 긴 유리 복도로 이어지는 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었다.

“불빛 하나 없어!” 내가 말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가 속삭였다. "운이 좋았어. 그놈의 권총조차 발사되지 않았으니 말이야." 래플스는 쓰러진 몸 아래에서 권총을 꺼냈다. "자칫 발사되기라도 했다면 그놈이 맞았거나, 아니면 우리 중 하나가 맞았을지도 몰라." 그러고는 권총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죽인 건가, 래플스?"

"아직이야, 버니."

"하지만 그가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제야 뒤늦은 충격이 몰려왔다. 무릎은 제멋대로 맞부딪혔고, 입안에서는 이가 딱딱 맞물리며 떨려왔다. 더는 그 거구의 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길게 늘어진 몸뚱이와, 파르케 바닥 위에서 옆으로 꺾인 채 미동도 없는 머리를 도저히 눈에 담을 수 없었다.

“괜찮을 거야.”

래플스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상태를 살피며 귀를 기울이더니 말했다. 나는 경건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신음 섞인 기도를 내뱉었다. 래플스는 뒤로 주저앉아 앉은 채로, 반질반질한 바닥에 묻은 자신의 핏자국을 생각에 잠긴 듯 닦아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결심한 듯 몸을 일으키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나한테 맡기고 자네는 떠나는 게 좋겠어.”

“하지만, 전 이제 어쩌면 좋죠?”

"보트하우스로 내려가서 보트 안에서 기다리고 있게."

"보트하우스가 어디 있지?"

"잔디밭을 따라 물가까지 내려가면 바로 보일 거야. 이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열려 있지 않으면 이걸로 억지로 열어젖혀."

그는 마치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듯 아주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머니 속의 지미를 건네주었다.

"그래서, 그다음은요?"

"물가로 내려가는 맨 위쪽 계단에 서게 될 거야. 거기서 꼼짝 말고 서서, 윈들리스(도르래식 권양기)를 찾을 때까지 사방을 더듬어 봐. 윈들리스를 돌릴 때는 마치 심장이 약한 회중시계를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 그러면 보트 보관소 반대편에서 일종의 낙하식 격자문이 올라갈 테니까. 하지만 한밤중에 그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우

린 도망치거나 헤엄쳐서라도 빠져나가야 할 거야. 배를 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문을 들어 올린 다음, 내가 도착할 때까지 배 위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려."

바닥에 놓인 그 끔찍한 시신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지만, 막상 그 앞에 서니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래플스의 손길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무력하게 휘둘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슬 맺힌 새벽 공기 속에서 목적도 알 수 없는 심부름을 하며 홀로 서 있었다. 래플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게 할 일을 맡겼다는 사실이면 충분했다. 그가 스스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실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최종 계획이 무엇인지는 지금의 내게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문제였다. 나는 그런 것들로 고민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일까? 내게 중요한 건 오직 그뿐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에는 그 사실이 지금만큼 절박하게 느껴졌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시신에서 멀어지자 공포의 대상은 내가 저지른 행위 자체보다 그 뒤에 닥칠 결과로 옮겨갔다. 그리고 나는 그 결과를 꽤 냉정하게 가늠해 보았다. 최악의 경우라 해도 내가 한 짓은 과실치사 정도에 불과했다. 아니, 잘 풀린다면 그 남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래플스가 그를 다시 살려내고 있었으니까. 그가 살든 죽든, 그 뒷감당은 래플스에게 맡기기로 했다.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이었다. 마치 감각이 마비된 사람처럼 멍한 상태로 말이다.

그 몽롱했던 시간은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 꿈이 곧 악몽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강물은 별빛 아래 넓은 길처럼 흘러갔고, 수면 위

에는 미세한 빛조차, 떠다니는 물체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다. 보트 보관소는 미루나무들이 늘어선 줄기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몸을 낮게 숙여 내 키보다 높은 곳에 별빛이 걸리도록 해야 겨우 그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가 워낙 어두워서, 윈들리스를 조금씩 감아 올리는 내 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톱니바퀴가 천천히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나는 혹시 모를 이질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며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마침내 보트 보관소 너머에서 무언가 부드럽게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래플스가 '낙하식 격자문'이라 부르던 것이 강물 위로 떠오르며 내는 마지막 소리였다. 실제로 이제는 강물 아래 흐름이 달라진 것이 눈에 보였다. 보트 보관소의 입구 쪽이 내가 있는 곳보다 훨씬 덜 어두웠기 때문이다. 별빛이 반사되어 만들어낸 희미한 띠가 충분히 넓어질 때까지 기다린 뒤, 나는 감던 손을 멈추고 더듬거리며 계단을 내려가 보트에 올라탔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지금 내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생각할 시간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자, 나는 내가 왜 보트에 타고 있는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만약 레비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래플스가 보트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만약 우리가 저 저택을 털러 온 것이라면 내 위치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유리한지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래플스의 목적은 강도가 아니었다. 그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 리도 없었다. 설마 레비가 살아날 거

라는 확신이 없어서, 비극적인 현장에서 탈출할 수단으로 나를 미리 보낸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스치자마자 식은땀이 흘렀다. 보트에 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모양인지, 노를 젓는 좌석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육지로 달려 나갔다. 급한 마음에 강물에 무릎까지 빠졌고, 장화에서는 질척거리는 소리가 났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가자, 불이 켜진 방에서 래플스가 나를 맞으러 나왔다. 전등의 눈부신 불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레비처럼 보였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가 자기 것이 아닌 오버코트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그 코트의 주머니는 기괴할 정도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었다. 곧 닥쳐올 공포 속에서 내가 본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레비는 내가 그를 남겨두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다만 몸은 전보다 더 곧게 펴져 있었고, 머리 밑에는 쿠션까지 받쳐져 있었다. 마치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 옷을 갖춰 입은 채 정중히 안치된 듯한 모습이었다.

“마침 너를 찾으려던 참이었어, 버니.”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래플스가 낮게 속삭였다. “네가 저놈의 장화를 붙잡아 줘야겠어.”

"그의 장화 말이야!" 나는 래플스의 소매를 붙잡으며 숨을 헐떡였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를 보트로 메고 내려가자!"

"하지만 그가—그가 아직도—"

"살아 있냐고?" 래플스가 마치 내가 아주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살아 있다마다, 버니! 이 정도로 생기가 넘치는데 그냥 두고 갈 순 없지. 하지만 지금 여기서 설명까지 듣고 가려면 곧 해가 뜨고 말 거야. 자, 좀 도와줄 건가, 아니면 이슬 맺힌 길을 헤치며 나 혼자 그를 끌고 가야겠나?"

나는 온 힘을 다해 도왔다. 래플스는 아마도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그 생기 없는 몸을 들어 올렸을 것이다. 그는 실내의 불을 모두 끈 뒤, 뒷걸음질 치며 어둠 속으로 길을 인도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여정의 첫 단계는 아주 짧게 끝났다. 우리는 가련한 짐을 자갈밭 위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래플스가 창문을 모두 닫고 잠근 뒤, 마치 레비 본인이 떠난 것처럼 방을 정리하고 마침내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동안,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몇 분 동안 그 곁을 지키며 망을 보았다. 발치에 놓인 의식 없는 육신에서는 그 어떤 움직임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내가 그에게 몸을 굽혔을 때, 코끝을 스친 위스키 냄새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져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래플스는 온 근육을 쥐어짜듯 움직였고, 나 역시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번에는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동안 단 한 순간도 쉬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보트 보관소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이슬 맺힌 바닥에 그를 내려놓았다. 나는 코트를 벗

어 그를 눕혔고, 그 상태로 보트 보관소의 어둠과 계단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잠깐 따져보니 어둠과 계단이 겹친 그 상황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내가 남기로 했다. 나는 그곳에 머물며 경계를 섰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래플스가 노를 저어 잔디밭 가장자리로 돌아올 때면 보트 앞머리에서 물이 끓어오르고 노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생명력 없는 덩어리를 배 위로 올리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끔찍했는지, 더는 길게 늘어놓고 싶지 않다. 그 과정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끔찍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가 마침내 그 난관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그 고생이 다른 모든 공포를 압도할 정도였다. 배가 침몰할 뻔했던 아찔한 순간과, 자칫하면 희생자를 익사시켜 버릴 뻔했던 위기를 떠올리면 지금도 몸서리가 처진다. 하지만 당시에는 눈앞의 급박한 상황 때문에 다른 먼 미래의 가능성까지 걱정할 겨를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때는 정말이지 래플스를 믿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만 했던 시기였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제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게임이 아니라 래플스의 게임이었고, 그 게임의 목적조차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 나는 평소에도 그를 따르는 편이었지만, 이토록 맹목적으로, 혹은 이토록 무모한 흥분에 휩싸여 그를 따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최악의 상황이 닥쳐 우리의 이 말 없는 승객이 영영 눈을 뜨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영국의 배심원단은 이를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다스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교수대에서 처형당하는 파멸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위협은 배를 띄우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다. 우리가 막 노를 저어 나갈 때, 규칙적으로 물을 치고 스치는 소리가 갑자기 귓가에 들려왔다. 우리는 급히 강둑을 붙잡았고, 그 사이 카누 한 척이 우리 바로 옆을 지나 하류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다행히 밤은 여느 때처럼 칠흑같이 어두웠다. 덕분에 우리는 노를 젓는 사람이 입은 하얀 셔츠가 스쳐 지나가며 펄럭이는 모습만 겨우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배 뒤편에는 레비가 있었다. 그는 조끼를 풀어헤친 채 내 정강이 사이에 무거운 머리를 둔 채 누워 있었는데, 그의 하얀 셔츠 역시 방금 본 셔츠처럼 희미한 빛을 탐욕스럽게 머금고 있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내 눈에는 그의 창백한 얼굴이 마치 인을 발라놓은 듯 유난히도 도드라져 보였다.

이 마지막 위협을 가슴 깊이 새긴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래플스는 노를 젓는 좌석에 앉아 몇 분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마침내 노를 젓기 시작했을 때, 그는 내가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물결을 가르며 나아갔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치 스틱스 강처럼 어둡고 깊은 물줄기 너머, 뒤쪽에서 무엇이 오는지 끊임없이 살폈다.

출항 준비를 마친 뒤 한참을 나아갔던 터라, 정작 항해 자체는 허무할 정도로 짧게 끝나서 오히려 놀라울 정도였다. 미들섹스 해안을 따라 몇 채의 집과 정원들이 뒤로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우리는 어느 입구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강과 너무나 가까운 저택의 창문 바로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저택 창문 중 어느 곳에서든 돌을 던지면 서리(Surrey) 땅에 떨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입구는 텅 비어 있었고 악취가 풍겼다. 부서져 가는 선착장이 보였고, 우리를 내려다보는 수많은 창문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번들거렸다. 별빛 아래 불안한 눈길로 바라본 저택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었다. 강을 마주한 정면 외벽에서 툭 튀어나온 사각형 탑이었는데, 높이는 본채 지붕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이한 돌출물은, 한밤중에 몰래 접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음산한 이 저택의 위압감만을 더할 뿐이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래플스가 기둥에 배를 바짝 붙이자 내가 나직이 속삭였다.

"비어 있는 집이야, 버니."

"거기 머무를 생각인가요?"

"제 말은 우리 승객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말이지!"

"쉿, 래플스!"

"이번에는 뒤꿈치부터 들이밀어야 할 판이군—"

"입 닥쳐!"

래플스는 선착장 계단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 배의 노 걸이와 높이가 맞아서, 그는 배 안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더듬고 있었다.

"그놈 발뒤꿈치는 내가 맡을 테니,"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너는 뒤쪽을 맡아라. 늙은 사냥개 녀석을 깨울까 봐 겁낼 필요도 없고, 다치게 할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까."

"아니야."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이토록 말 한마디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은 처음이었다. "당신은 날 이해하지 못해. 저 소리를 좀 들어봐!"

래플스가 선착장에 무릎을 꿇고, 나는 배 안에 몸을 웅크린 채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처절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때 입구 밖에서 물결이 스르르 일렁이며 출렁였고, 강 너머로 하얀 무언가가 파닥거리며 지나갔다.

소리가 잦아들자 그는 엄숙하면서도 농담조로 중얼거렸다. "또 한 번 아슬아슬하게 넘겼군! 이 깊은 밤중에 대체 누가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걸까?"

"그가 얼마나 보았을지 궁금하군."

"아무것도 아니야." 래플스가 마치 이 문제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스웨터랑 손수건 사이에서 우리가 대체 뭘 봤다고 맹세라도 하겠어? 그냥 하얀 무언가였을 뿐이잖아. 게다가 우린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여기 안은 저기 큰 물줄기가 흐르는 바깥보다 훨씬 어두우니까. 곧 날이 밝아올 텐데, 이 큰 물고기를 먼저 건져 올리지 못하면 정말 들키고 말지도 몰라."

그는 지체 없이 생기 없는 레비의 발뒤꿈치를 움켜쥐고 해안으로 끌어 올렸다. 나는 배가 흔들리지 않게 선착장 난간을 붙잡으며, 동시에 레비의 축 늘어진 팔다리와 납덩이처럼 무거운 머리가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보살폈다. 하지만 나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레비는 어딘가에 몇 번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몸과 사지가 마치 감각이 없는 물건처럼 무기력하게 부딪히는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감각했다. 그 광경을 보며 나는 불길한 예감이 다시금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도 해안으로 기어 올라간 뒤, 쓰러져 있는 그의 몸 위로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정말 확실한가, 래플스?" 내가 입을 뗐으나, 그 끔찍한 질문을 끝까지 마칠 수는 없었다.

"그가 살아 있냐고?" 래플스가 말했다. "그렇고말고, 버니. 조금만 더 있으면 그자가 다시 한번 비겁한 수로 우리를 골탕 먹이려 들 거라고!"

"몇 시간만 더 있으면 되는 건가, A. J. 래플스?"

"네다섯 시간 정도는 봐야지."

"그렇다면 뇌진탕이군요!"

“분명 뇌 문제야.”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너라면, ‘뇌진탕’ 대신 ‘혼수상태’라고 말하겠어.”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가엾은 노인네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래플스가 말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저 남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그럼, 당연하지. 그랬다니까, 버니!"

"언제 말입니까?"

“다음 단계에서 말해주지.” 래플스가 말했다. “서둘러서 이쪽으로 오게.”

우리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잔디가 너무나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우리 사이에 끼어 있던 커다란 몸체가 바닥에서 몇 인치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하게 자란 풀숲을 훑으며 이슬을 몽땅 쓸어버릴 정도였다. 탑 아래쪽 계단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 몸체를 세워둘 수 있었다. 래플스는 서둘러 달려가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계단이 더 이어졌다. 돌로 된 계단은 발 하나를 디딜 공간은 좁은데 다른 쪽은 너무 넓어서, 탑 꼭대기까지 나선형 계단이 이어져 있을 것만 같은 모양새였다. 실제로도 그랬다. 다행히 중간 중간 집과 연결되는 계단참이 있었고, 우리는 첫 번째 계단참에 사람을 내려놓고 잠시 앉아 숨을 돌렸다.

"아, 이 고요하고 불평 한마디 없는 돌계단이라니, 정말 사랑스럽군!"

이제는 형체조차 보이지 않게 된 래플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니 빈집에 이런 계단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 버니, 거기 있나?"

“당연하지! 정말로 여기 아무도 없는 게 확실해?”

나는 물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려는 노력조차 거의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비뿐이야. 하지만 그 친구는 한참 있어야 정신을 차릴걸."

"어떻게 아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군요."

"먼저 설리번 한 대 피우게."

"우리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 주머니를 재떨이로 쓰는 수밖에 없겠어."

어둠 속에서 래플스가 담배를 툭툭 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다. 곧이어 그가 성냥을 켜자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계단 한 층의 아래쪽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 바로 아래층 계단 꼭대기에 있었다. 나선형 계단은 양쪽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이라고는 래플스의 피 묻은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 거미줄 뭉치들, 그리고 내 무릎 근처에 뒤집힌 채 널브러져 있는 레비의 장화뿐이었다. 래플스는 성냥을 끄기 전, 내게 그 장화를 가리켜 보였다.

"보시다시피,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돼지처럼 잠만 푹 자는 것뿐이지, 결코 마지막 잠은 아닐 겁니다."

"방금 그 말, 내가 보트 보관소에 있는 동안 그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뜻인가요?"

"자네가 등을 돌리자마자, 아니, 잠에서 깼다고 할 수 있다면 말이지, 버니. 자네가 그를 때려눕히긴 했지만, 고작 몇 분 정도뿐이었어."

"그 사람이 아무런 탈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별거 없어, 버니."

약해진 심장이 몸속에서 요동쳤다.

"그럼 이번엔 대체 무엇 때문에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A. J.?"

"그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까?"

"아니야, 버니. 그가 술을 한 잔 달라고 해서 그냥 한 잔 준 것뿐이야."

"음료에 약을 탔다니!" 나는 공포에 질려 나직이 속삭였다. 남이 저지른 악행을 보며 다시금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은, 꽤나 신선한 자극이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래플스가 말하며 손짓을 했다. 나는 그 손짓을 따라 그의 담배 끝에 매달린 붉은 불빛을 쫓았다. "내가 조금 손을 대긴 했지만, 그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술에 손을 좀 대주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친구가 두 번째 부탁했을 때 훨씬 더 심하게 굴지 않았나. 그 덕분에 버니, 자네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해냈어! 나는 그저 자네가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했을 뿐이야. 우리 친구는 지금 자기 위스키에 지난번 불쌍한 테디가 먹었던 그 약을 아주 적절한 비율로 섞어 마시고 있네. 아마 정신을 차리고 나면,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될 거야."

"만약 그가 아니라면, 그가 맞을 때까지 여기 계속 붙들어 두실 생각인가요?"

"그놈을 저 빌어먹을 탑 꼭대기에 세워두고 인질로 잡을 거야." 래플스가 말했다. "살아서 내려가는 특권을 누리고 싶다면, 콧구멍 두 개를 다 털어서라도 값을 치르게 만들겠어."

“그가 당신과 맺은 약속을 지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저 그런 뜻이기를 바랄 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불안함도 스며 있었다. 그리고 래플스는 곧바로 그 불안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그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그 비열한 자가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한 사람처럼 가볍게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버니,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판을 짜야 해. 그리고 내 모든 걸 걸고 제대로 해볼 생각이야.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사실 래플스는 처음부터 배신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배신자를 납치하려는 그 절박한 계책은, 래플스가 예상 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세운 계획 중 가장 치밀한 수였다. 그는 수갑 한 쌍과 충분한 양의 소므놀(Somnol)까지 미리 챙겨왔다. 내가 저지른 폭력적인 돌발 행동만이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였는데, 래플스는 오히려 그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며 장담했다. 하지만 내가 이 텅 빈 저택에 전에 와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짜증스럽게 담배 끝을 털어내는 동작만으로 이미 답을 대신했다.

“이보게, 버니. 지금이 그런 쓸데없는 질문이나 할 때인가? 당연히 집 안 구석구석을 다 둘러봤지. 이번 주말을 이 근처에서 보낼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 집을 둘러봐도 좋다는 관람 허가를 받아서 말이야. 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아무도 집을 구경하지 못하게 정원사에게 뒷돈까지 찔러줬다네.

정원사의 오두막은 저 큰길 건너편에 있어. 그 길은 저 저택 정면과 나란히 뻗어 있지. 길 건너편에는 아주 멋진 정원이 있지만, 정원사가 그걸 가꾸느라 온종일 매달려 있어서 여기 이쪽은 아예 손을 놓아버렸어. 정원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구경시켜 줄 때만 간신히 집 안으로 발을 들인다네. 가끔 정원사 아내가 내려와서 1층 창문을 열어두긴 하지만, 2층 창문은 아예 열어두지도 않거든.

그러니 이 탑 꼭대기에서는 방해받을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게다가 이 탑의 맨 위층은 체인 로에 있는 칼라일의 까마귀 둥지처럼 방음이 아주 완벽한 방으로 되어 있다니까."

문득 템스 계곡의 이 근방에 이름만은 아니더라도, 거물급 문학가가 거처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혹시 저곳이 그 유명 인사의 저택이냐고 묻자, 래플스는 어둠 속에서 저 집을 알아보지 못한 내가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곳이 다시는 세놓이지 않을 집이라고 말했다. 위치가 런던과 너무 가까워진 데다, 입지 조건에 비해 집이 지나치게 훌륭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댄 레비에게 몸값을 요구할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놓았다. 런던 시내를 돌아다닐 때마다 레비의 '맘루크'들이 자신을 뒤쫓는 것을 보며, 자신이 상대해야 할 배신자가 얼마나 지독한 인물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 계획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버니." 그가 덧붙였다. "난 지금까지 납치죄로 붙잡힌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게다가 런던 전체를 통틀어 이보다 더 거물급 인사를 납치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정말 멋진 생각이야." 나는 대답했다. 머릿속으로 그려본 구상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너무 거물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그가 사라지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겠어?"

"이보게, 버니. 그자가 사라졌다고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래플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난 그 짐승 같은 놈의 습성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내가 말했었지? 그놈이 어딘가에서 따로 판을 벌이고 다닌다고 말이야. 다들 그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놈이 여기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할걸. 거기 가기만 하면 며칠씩이나 자취를 감춰버리니까 말이지. 그런데 버니, 내가 지금까지 계속 오버코트를 입고 있었다는 건 눈치채지 못했나 보군?"

"아, 응, 봤지." 내가 말했다. "그럼, 그 사람 물건 중 하나겠지?"

"오늘 밤 그가 입었을 바로 그 코트야. 같은 못에 걸려 있던 부드러운 모자도 주머니 중 하나에 넣어 두었어. 물건들이 없다고 해서 그가 발부터 나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겠지, 그렇지, 버니? 지팡이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가져오는 대신 책 뒤에 숨겨 두었어. 하지만 이 물건들은 나중에 그를 다시 신사답게 돌려보낼 기회가 생기면, 그때 유용하게 쓰일 거야."

래플스는 젖은 엄지와 검지로 설리번 담배의 붉은 끝을 지져 껐다. 그러고는 다시 위로 올라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며, 담배를 주머니 속에 조심스레 집어넣었다. 탑 계단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웠다. 하지만 꼭대기에 있는 은신처에 다다랐을 무렵, 우리는 희미하게 빛나는 회색 하늘과 저물어가는 별빛을 배경으로 서로의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

다. 네 벽 중 세 곳에는 현창처럼 생긴 창문이 나 있었고, 나머지 한 벽에는 선실의 침대처럼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었다. 우리는 아직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는 죄수를 그곳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것이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니었다. 이제는 약간의 보살핌이라도 베풀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래플스는 보이지 않는 보관함에서 얇고 거친 천 뭉치들을 꺼냈다. 그는 그중 하나를 잠든 이의 머리 밑에 베개처럼 받쳐주었고, 나머지 하나는 가볍게 털어 몸 위로 덮어주었다.

"내가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었지!" 래플스가 내 손에 세 번째 꾸러미를 쥐여주며 말했다. "어젯밤에 내가 여기서 잠을 자보긴 했어. 정말 겉보기처럼 조용한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 이건 내 침구들이니까, 자네도 내 방식을 따라보게나."

"잠을 자라고?" 내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래플스, 천 파운드를 준다 해도 난 못 자, 아니 안 잘 거야!"

"오, 그럼, 충분히 잘 수 있고말고!" 래플스가 말했다. 그와 동시에 탑에서 끔찍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세상에, 나는 우리 중 누군가가 총에 맞은 줄로만 알았다. 바닥으로 거품이 튀는 소리와 병 속에서 술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작은 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샴페인이잖아!" 그가 플라스크의 금속 뚜껑을 건네주었고, 내가 한 모금 들이켜자마자 나도 모르게 외쳤다. "이것도 여기까지 숨겨온 거야?"

"여기엔 나 말고는 숨겨둔 게 아무것도 없어." 래플스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레비의 당구장에서 작은 술장에 있던 샴페인 두 파인트 중 한 병이야. 버니, 네가 마시고 싶으면 마음껏 마셔둬. 나중에 영감이 말 잘 들으면 남은 한 잔은 그 노인네에게 줄 수도 있으니까. 보기보다 꽤 독할 것 같긴 한데 말이야. 일단은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않는 게 상책이야! 그리고 버니, 너도 좀 가만히 있어 준다면 나중에 나한테 훨씬 큰 도움이 될 거야."

나도 슬슬 취기가 오르는 것 같았다. 래플스가 금속 잔에 술을 계속 채워 대는 데다, 레비의 코트 주머니에 샴페인과 함께 넣어 온 레비네 식탁의 샌드위치까지 끊임없이 권했기 때문이다. 본래 이 음식들이 그레이스 인의 라이벌 건달들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니 여전히 기분이 묘했다.

문득 다른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나는 그 즉시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만약 다른 의심 많은 이가 그런 생각을 품는다면, 지체 없이 그 오해를 바로잡아 줄 만큼 확신이 있었다. 사랑스러운 우리 래플스는 아마추어 도둑으로서만큼이나 아마추어 마취사로서도 능수능란하고 대담한 인물이었으며, 어느 쪽이든 자신의 기묘한 재능을 발휘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긴 밤샘 작업 끝에 밀려오는 졸음 때문에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돌이켜봐도 래플스가 내게 준 것이 샌드위치와 샴페인 말고 다른 약물이나 음식이었다고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사물들의 형체가 뒤에 있는 탑의 창문 없이도 제법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무렵, 나는 사물함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거의 잠이 들려던 찰나, 갑작스러운 불안감이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 배는 어떻게 됐어?" 내가 물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래플스!” 내가 외쳤다. “그 거지놈의 배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자네는 잠이나 자게." 날카로운 대답이 돌아왔다. "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 래플스 역시 바닥에 몸을 뉘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15장

래플스의 재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탑 안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대낮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작은 광경은 내게 꽤나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어둠 속에서 느꼈을 때보다 공간이 훨씬 작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바닥 면적은 대략 12피트 사방 정도 되어 보였다. 하지만 한쪽은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나무 계단의 난간과 계단통 때문에 좁아져 있었고, 다른 한쪽은 선실 침대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맞은편에는 내가 누워 있는 사물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게다가 네 개의 벽,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네 개의

삼각형 지붕은 탑의 꼭대기를 향해 아주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안쪽 가장자리에는 성인 남성이 똑바로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둥근 현창에는 죽은 파리들이 점점이 박힌 거미줄이 헝클어진 채 덮여 있었다. 분명 수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모양이었다. 게다가 이곳을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더욱 우울할 정도로 명백하게 다가왔다. 아래층의 열린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그나마 조금은 깨끗한 공기라도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하지만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고 있자니, 무더운 여름날이 되어 이 퀴퀴하고 답답한 꼭대기 방의 공기를 마주하게 될까 봐 절로 몸서리가 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의 크기나 냄새, 혹은 그 어떤 풍경조차도 내 앞에 나타난 두 동료의 모습만큼이나 당혹스럽거나 기이하지는 않았다.

계단 꼭대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난간에 몸을 기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서 있는 래플스, 그리고 선실 침대를 차지하고 누워 있는 레비. 잠결에 흐릿한 눈으로 마주한 그들의 모습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래플스의 왼쪽 콧방울에서 입가까지는 보기 흉하게 찢어진 상처가 나 있었다. 얼굴에 묻은 피는 씻어냈지만, 검붉고 화끈거리는 상처 자국이 남아서 그의 비정상적인 창백함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했다. 레비는 구겨진 종잇장처럼 초라하고 방탕해 보였으며, 살이 처진 모습이 힘없이 늙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불타는 듯한 눈동자에는 생명력이 마지막 불꽃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붉은색 깃발 천에 기괴할 정도로 칭칭 감겨 있었는데, 그 천 사이로 수갑을 찬 두 주먹이 삐져나와 있었다. 수갑은 얇은 밧줄로 연결되어 코트와 모자가 걸려 있는 못에 묶여 있었고, 천의 반대쪽 끝에서는 더 긴 줄이 난간을 돌아 연결되어 있었

다. 나는 그 천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영국 상선기(Red Ensign)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제야 내가 유니언 잭에 덮여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다시 래플스의 소름 끼치는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미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텐트 안에서 밤은 잘 보냈나, 버니? 그럼 이제 그만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 있는 죄수에게 항복 선언이라도 하는 게 어때? 겁먹을 것 없어, 버니. 보다시피 워낙 악질적인 놈이라 내가 직접 수갑까지 채워둬야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놈을 충분히 풀어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야. 밧줄을 아주 듬뿍 줬거든. 안 그래, 버니?"

"맞아, 바로 그거라고!" 레비가 비릿한 신음 섞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사람을 부당한 수법으로 쓰러뜨려 놓고는, 이제 와서 그 사람을 구둣발 닦는 발판 취급을 해? 그 술 한 잔만 준다면 양처럼 순순히 당해주지!"

몸을 일으켜 유니언 잭의 주름진 천 사이에서 빠져나오던 그때였다. 침대에서 바로 보이는 난간 옆에, 아직 따지 않은 샴페인 한 잔이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조차도 그 샴페인을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래플스는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단호한 사람이었다. 그는 레비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나에게 눈짓하며 나무 계단 아래로 따라 내려오라고 손짓했다. 그 작자를 잠시라도 감시 없이 두는 건 분명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잠깐 이상은 아니었다. 아래층 방에는 욕조와 세면대가 갖춰져 있었는데, 래플스는 직접 다 내려가지 않고도 그곳을 가리키며 내게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레비의 집에서 챙겨 나온, 먹다 남은 샌드위치 조각을 내게 건넸다.

“저기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좀 떠 마셔야겠네.” 그가 말했다. “불쌍한 녀석이 자네가 새벽에 남겨둔 걸 다 마셔버린 데다, 내 플라스크에 구멍까지 내놨거든. 그런데도 이 녀석은 도무지 먹을 기미가 없네. 만약 이 녀석이 재판을 잘 견뎌내고 남자답게 형을 받아들인다면, 남은 한 파인트 정도는 제 발로 직접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네만 말이야.”

“재판에다 선고까지!” 내가 외쳤다. “난 네가 그놈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정당한 재판도 없이 그럴 순 없지, 버니." 래플스가 나무라듯 말했다. "내가 할 말을 다 듣고 나면, 그 늙은 술꾼 녀석이 뭐라고 변명하는지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 버니, 간식 다 먹으면 세수나 해 둬. 자네와 샤일록이 깊이 잠든 사이, 내가 배를 돌려놓은 뒤 즐긴 수영만큼은 아니겠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 정도 시간은 내야 할 테니까."

내가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바로 그 순간, 그는 마치 사물함 위에 판사석이라도 마련해 앉은 듯한 기세로, 스스로 판사이자 변호사가 되어 자기 앞에서 변론을 펼치고 말았다.

“침상의 죄수여, 당신에게 죄목을 묻기 전에,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범죄 의혹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요구했던 술 한 잔부터 해결해야겠군. 이미 오늘 아침에만 몇 번이나 요구했고, 그때마다 들어줬지. 하지만

이번에는 거절하겠소. 피고인, 술이 당신을 망쳤소. 매년 카를스바트에서 정화 의식을 치러야 하는 것도 다 술 때문이지 않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내 앞에 나타난 것이오."

"그건 위스키가 아니었어." 레비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그건 다른 무언가였지. 앞으로 더 자세히 듣게 되겠지만, 분명히 누군가 음모를 꾸민 거야. 조만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테고. 내 위스키통에는 숙취를 일으킬 만한 건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단 말일세."

"자," 래플스가 말을 이었다. "샴페인 수준은 여전히 높군. 여기 최고급 샴페인 한 파인트가 있으니, 내가 말을 마치기 전까지 제발 정신 좀 차린다면 자네가 직접 따서 마셔도 좋네. 하지만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게만 있고, 자네 쪽은 전혀 결백한 것처럼 부정행위를 운운해 봤자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오히려 재판 절차만 늦출 뿐이지. 자네는 모든 거래에서 갈취와 편법을 일삼았고, 고객을 속이고 기만했으며, 친구를 배신하고 사기 치려 했네. 한마디로 문명화된 범죄자라면 지켜야 할 규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단 말이야. 물론 자네에게 변론할 기회는 주지 않겠네. 이 법정은 자네의 변명을 눈곱만큼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곧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할 기회는 줄 걸세. 아니면," 래플스가 나를 향해 윙크하며 말을 이었다. "변호인을 선임해도 좋고 말이야. 여기 있는 내 유능한 친구라면, 자네를 '도커(docker)'로 변호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할 걸세. 아니, '벙커(bunker)'라고 해야 하나, 버니?"

래플스는 마치 진짜 판사가 법정에서 농담을 들었을 때처럼 수줍은 듯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그 기세를 몰아 아주 요란스럽게 웃어댔다. 그러자 판사의 눈빛이 번뜩이는 찰나, 나는 수석 변호사라는 지위에서 순식간에 일반 대중의 수준으로 격하되고 말았다.

"여기서 웃음소리가 한 번만 더 들리면," 래플스가 말했다. "당장 법정을 비우게 하겠소. 사람들이 정의를 구현하는 법정에 와서 마치 연극이라도 보러 온 것처럼 행동하다니,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오."

레비는 누런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붉은 눈을 감고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그러다 돌연, 마치 불길이 치솟듯 눈을 번쩍 뜨더니 메마른 입술로 사물함 위에 놓인 재판관을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조심해!" 래플스가 말했다. "법정 모독죄로 찍히면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다는 거 알지?"

"이런 헛수고가 네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나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당장 해라. 빌어먹을 놈!"

"안타깝게도 당신은 우리 각자의 역할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군요." 래플스가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처음으로 당부한 말만큼은, 그 말을 믿고 노력해 보죠. 당신은 저민 스트리트와 세인트 제임스 일대에서 다니엘 레비라는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제 이름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래플스가 말을 받았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레비 씨, 그런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당신은 맥그리거나 몽고메리 같은 가짜 이름을 쓰지 않으니까요. 결코 가짜 깃발을 내걸고 정체를 속이지도 않지요. 당신은 다니엘 레비라는 이름의 해골 깃발을 당당히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야말로 당신을 여타의 좀스러운 고리대금업자들과 차별화하며, 당신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는 요소입니다. 불행히도, 그 외의 점들은 그리 명예롭지 못하군요. 남들보다 뻔뻔한 만큼 양심도 없으시더군요. 더 큰 먹잇감을 노리는 만큼, 수법 또한 더 비열해지고요. 당신이 그 분야에서 살아있는 거물일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거물급 악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거물과 맞붙게 됐어." 레비가 몸을 뒤척이며 붉게 충혈된 눈을 감으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래플스가 긴 봉투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그는 봉투 안에서 커다란 연습장을 꺼내 펼쳤다. “하지만 내 죄를 더 들먹이기 전에, 당신이 저질러 온 그 검증된 악행들도 몇 가지 상기시켜 드려야겠군요. 작년만 해도 당신이 성사시킨 거물급 거래 세 건이 법에 의해 부당하고 비양심적인 계약이라며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매년 당신은 이런 소송에 휘말리고, 기껏해야 조건이 당신의 그 비루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수정되는 선에서 끝내곤 하죠. 법정과 언론의 심판을 받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뿐이고, 당신은 대개 그 화살을 피하며 살아가는 부류 아닙니까.

당신은 재작년에 링컨셔의 한 교구 목사를 몰아세워 정신병원에 처넣었던 것처럼, 그런 부류를 아주 좋아하시더군요. 1890년부터 1894년 사이에 자살로 몰아넣은 일곱 명의 불쌍한 영혼들도 당신은 여전히 즐기고 계시겠죠. 그런 이들은 죽음이라는 빚을 갚기 전까지 마지막 한 푼까지 탈탈 털어 바치니까요! 게다가 당신은 형편이 어려워진 귀족이나 명문가 사람들에게도 아주 공을 들이더군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당신이 곁을 지켜주면, 그들은 지인들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유예를 받으려 하니까요. 당신의 그물에는 하티푸르의 왕자님부터 브롬리의 불쌍한 소규모 건축업자까지,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가릴 것이 없군요. 그 건축업자는 목을…”

"당장 그만둬!" 레비가 무력한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물론이지." 래플스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감당하기엔 참으로 고약한 짐이라는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이 즐기는 그 저질스러운 게임에서 누군가 당신을 이길 때가 되긴 했잖아."

"전부 헛소리일 뿐이야." 레비가 맞받아쳤다. "아직 나를 이긴 건 아니라고. 자네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만 말해 보게. 그러고도 그 잘난 가랜드 가문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분명 그랬겠지.”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지금 이 지경까지 몰린 건, 가랜드 가문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만은 아니야.”

"그럼,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대한 방식이지, 레비 씨."

"너 같은 저주받을 도둑놈 같으니라고!"

"하지만 난 아주 확실한 계약의 당사자고, 그 계약에 한해서만 신용을 잃은 사람일 뿐이오."

"그뿐만이 아니지!" 고리대금업자가 힘없이 조롱하며 내뱉었다.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자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반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래플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도를 넘고 있군, 침상의 죄수여. 여보세요, 재판이 재개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지. 더 이상의 법정 모독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방금 내 불행한 친구들을 언급했지? 그들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장본인들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당신 손아귀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누구든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을걸. 당신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그들을 몰아붙이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이니,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우선은 당신이 아주 곤혹스러울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말이야."

"당신이 그랬잖아!" 레비가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외쳤다. "당신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갔어. 결국 당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아니, 오히려 자네와 내가 맺은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네." 래플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자네는 만 파운드를 빌려준 대가로 받은, 만

삼천 파운드가 넘는 약속 어음을 나에게 돌려주기로 했지. 또한 이번 주에 자네가 위협했던 대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대신, 자네 소유의 자금만 오천 파운드를 적어도 1년은 더 저당 잡혀 두기로 약속도 했고 말이야. 그게 자네가 맡은 계약 내용이었네."

"글쎄요," 레비가 말했다. "제가 언제 약속을 어겼다는 말씀입니까?"

"내 역할은," 래플스가 중간에 끼어든 말을 무시하며 말을 이었다. "네가 쓴 적도 없다는 그 편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해오는 거였어.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수단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뿐이었지."

"아하!"

"어쨌든 난 그걸 손에 넣었소. 그래서 어젯밤 당신 집으로 가져갔지. 그런데 당신은 그걸 받자마자,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공격을 퍼붓더니 곧바로 없애버렸단 말이오!"

래플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쓰러진 죄수 위로 위압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이미 벌어진 가짜 재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스스로 이 끔찍한 상황에 유머를 섞어 넣었을 때의 여유조차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이 상황을 초래한 배신과 폭력에 대한 지독하리만치 생생한 분노였다.

레비 역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막대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듯했다. 그토록 사납고 잔인하던 짐승 같은 놈이 결박된 채 겁에 질려 몸을 떨

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떨릴 듯 위태로웠다.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 불쌍한 녀석이 자백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자네는 내 재산조차 믿고 맡기려 하지 않았잖아. 내 물건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술까지 들이켜니,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어.”

"결국, 술이 원인이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 맞아요! 내가 아주 술에 잔뜩 취해 있었나 보군요."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약을 먹였다고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래플스 씨. 그 퀴퀴하고 오래된 맛을 제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당신이 내려오기 전에 제가 거의 한 병은 비웠을 겁니다."

"제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셨던 덕분인가요?"

"맞아, 바로 그거야. 편지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내가 당신에게 맡기기를 주저하기 전까지는, 나를 속일 생각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단 한 순간도 그런 생각은 안 했네, 친애하는 래플스!"

래플스는 탑 꼭대기 아래, 마지막 한 뼘의 공간조차 남기지 않고 몸을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다. 그 위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먼지가 어지럽게 일렁이는 빛줄기는 그의 머리와 어깨에 부딪히며 흩어졌다. 난간에 가려져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댄 레비의 반응을 통해 그 표정이 어떤 것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레비는 처음에는 수갑을 찬 손을 들어 올리며 위선적인 항의를 내뱉더니, 이내 마치 아주 형편없는 일이라도 겪은 듯 힘없이 손을 떨구었다.

"그렇다면 왜 그랬습니까?" 래플스가 물었다. "지난 금요일 아침, 올버니에서 우리가 헤어진 직후부터 거의 곧바로 나를 감시하게 만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니!" 상대방이 진심으로 경악하며 외쳤다. "그럴 리가 있겠나? 분명 경찰이었을 거야."

"경찰은 아니었네. 그 불한당들이 경찰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말이야. 내가 워낙 양쪽 부류를 다 잘 알다 보니 속아 넘어갈 리가 없지. 자네 동료들이 로즈 경기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더군. 하지만 올버니로 돌아올 때 그들을 따돌리는 건 어렵지 않았네. 어젯밤까지는 별다른 문제도 없었어. 그런데 어젯밤, 내가 이미 말했던 그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형사 두 명으로 변장한 놈들이 그레이스 인에서 내 뒤를 밟더군."

"그것들을 그 찬란한 모습 그대로 그곳에 두었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것은 그들의 관점이라기보다, 내 관점에서 보기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레비는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자세를 고쳐 잡았다.

"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을 감시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가 물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야." 래플스가 대답했다. "확신하는 거지."

"대체 그걸 어떻게 안 거야?"

래플스는 느릿하게 미소 지으며, 그보다 더 느릿하게 고개를 저었다. "레비 씨, 저더러 모든 사람의 정체를 다 밝히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고리대금업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경악하며 맹세까지 했으나, 이내 말을 멈추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처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자네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내가 왜 사람을 붙여 자네를 감시하게 했겠나?"

"그 편지를 확실히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었겠지. 동시에 나를 해치고 내 몸에서 보물을 빼앗아 가면 비용까지 아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계획이었을 테고 말이야. 아주 교묘하고도 재미있는 발상이야. 침대에 누운 죄수 양반! 설령 그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크게 상심

할 일도 아니지. 그나저나, 당신이 부하들을 진짜 형사처럼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해주고 싶군. 만약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내 자유와 당신의 편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내가 무엇을 포기할지는 당신도 잘 알 텐데 말이야."

하지만 레비는 접어둔 깃발을 베개 삼아 뒤로 쓰러져 버렸다. 그를 덮은 레드 엔사인(Red Ensign) 깃발은 그가 무력하게 발작할 때마다 거품이 이는 듯 출렁이며 들썩였다.

"그놈들이 말했을 거야! 분명히 말했을 거라고!" 그는 이를 악물고 내뱉었다. "배신자들, 빌어먹을 배신자 놈들!"

"레비 씨, 아시다시피 이건 참 잘 옮는 병입니다." 래플스가 말했다. "특히나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은 어른들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병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그놈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라니까요!” 레비가 다시 말을 바꾸며 소리쳤다. “그놈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안 보이십니까? 제가 당신을 감시하라고 시킨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당신을 위해서였다고요.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겁니다. 그놈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지켜보라고 거기 있었던 거라고요. 이제 그놈들의 속셈이 보이시죠? 제가 그 악당들에게 어느 정도 비밀을 공유했는데, 그놈들이 우리 둘 다를 속인 겁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를 가로채서 저를 협박하려던 게 그놈들의 진짜 목적이었다고요! 당연히 편지를 훔치는 데 실패하니까 당신에게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은 겁니다. 분명히 그놈들의 수작이었어요. 래플스,

그 편지가 절대로 제 것이 될 수 없다는 건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좋은 친구로서 저를 이 상황에서 좀 빼주십시오!”

"이게 당신의 변명인가요?" 래플스가 재판관석에 다시 앉으며 물었다.

“그건 당신의 변명이기도 하지 않소?” 상대방이 물었다. 그는 이제 원망 섞인 기색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간절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그 두 녀석의 거짓말에 우리 둘 다 속아 넘어간 것 아니냔 말이오. 물론 그놈들이 하는 말을 믿은 내 잘못이 크고,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했던 것도 당연히 옳았소. 하지만 이제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 제발 나를 미친개 취급하는 건 이제 그만해 주시오.”

"그럼 정말로, 처음 약속했던 대로만 하겠다는 건가?"

"늘 그랬습니다." 붙잡힌 그가 단언했다. "다른 짓을 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젯밤 당신이 망가뜨린 것에 대한 대가로, 공정한 교환이라며 약속했던 첫 번째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가랜드 씨가 써준 약속 어음은요?”

"제 수첩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제 주머니 속에 있고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야.” 래플스가 내게 곁눈질을 슬쩍 던지며, 은밀한 속삭임처럼 중얼거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 이 빌어먹을 수갑만 당장 풀어준다면 당장이라도 다 넘겨주겠어. 이제는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래플스는 고개를 저었다.

"죄수, 아직은 자네의 그 거친 주먹이 닿는 곳에 내 몸을 두기 싫군. 하지만 내 집행관이 자네 몸을 뒤져서 그 어음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낼 걸세."

그것은 부풀어 오른 수첩 안에 들어 있었다. 래플스가 미리 챙겨온 서명 견본들과 어음에 적힌 서명을 대조하는 동안, 나는 수첩을 아무런 손상 없이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건 충분히 진짜예요." 레비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렇다는 말이군." 래플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네 계약서의 일부인 이 작은 문서에도, 방금 보여준 것만큼이나 진실한 서명이 필요하겠어."

그 작은 문서는 알고 보니 진짜 양도 증서였다. 양피지에 정성껏 적혀 있었고, 10실링짜리 인장이 찍혀 있었으며, 14세기식 대문자로 '계약서(INDENTURE)'라고 당당히 적혀 있었다. 피고인이 읽을 수 있도록 문서를 들어 올렸을 때 내가 본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 불법적이고도 합법적인 문서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문장 부호 하나 없이 '상속 재산(hereditaments)'이니 '단순 소유권(fee simple)'이니 하는 전문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고, 두 줄마다 '또한 언급된 다니엘 레비는(and whereas the said Daniel Levy)'이라는 문구가 반복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조항이 적혀 있다. '상기 기술된 계약서에 명시된 상속 재산을 담보로 하여, 해당 금액 15,000파운드를 다음의 기한까지 지급해야 한다. 기한은—' 바로 그해 여름, 텅 빈 탑 안에서 보낸 그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은 래플스가 우리 학교에 계셨다고 말했던 '꼬마 변호사' 마더 허바드가 아주 성실하고 순진하게 준비한 것이었다. 가랜드 씨가 똑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건네준 원본 저당권 증서 사본을 바탕으로 말이다. 나는 가끔 궁금해진다. 만약 그 고결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증서가 이토록 극심한 압박 속에서 서명될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순간이라도 꿈에서라도 보았더라면, 과연 뭐라고 말했을지를.

하지만 댄 레비는 결국 서명했다. 평소 그렇게나 지독하게 싸우기 좋아하던 사람치고는 예상보다 순순한 태도였다. 사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저항이 가장 적은 길뿐이었다. 그래야만 래플스를 배신했다는 혐의를 교묘하게 부인할 수 있었고, 약속을 지키려 했다는 자신의 거듭된 주장과도 앞뒤가 맞았기 때문이다. 레비로서는 당장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 즉 우리가 자신의 결백을 믿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다. 적어도 그 시점까지 레비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래플스는 레비가 얼마나 간사한 놈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는 척 숨겼다. 그는 레비가 거짓말을 거듭하며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드는 과정을 즐겼다. 나 또한 레비가 처한 이 난처한 딜레마를 지켜보며 래플스 못지않게 즐거워했다. 레비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었다. 서명하고 태연한 척을 하거나, 아니면 결백하다는 연기 자체를 포기하거나. 결국 레비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수갑을 찬 채 서명했다.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번쯤 항의해 볼 법도 했지만, 그저 기색만 살짝 비쳤을 뿐이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내가 그의 서명을 확인하자 레비가 말했다. "이제 나도 샴페인 한 잔 정도는 마실 자격이 충분한 것 같군요."

"아직 멀었네." 래플스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어젯밤 내가 자네 집에 도착했을 때쯤의 단계에 와 있을 뿐이야. 그때 자네는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낸 것에 불과하네."

레비는 침대에 몸을 뒤로 젖히고 누웠다. 어울리지 않는 장식용 깃발들이 파도처럼 그를 덮치고 있었다. 그는 입을 멍하니 벌린 채,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이글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징징거리며 투덜댔다. "제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억이 거의 안 난단 말입니다. 정말이지,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겁니다."

“분명 그랬겠지.”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한 뒤에 네가 한 짓은, 그전에 저지른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네가

저지른 배신 행위 중 마지막 조각일 뿐이지. 그래서 네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 이 죄수 놈아!”

"하지만 나머지는 다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죄수는 무력한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몸을 벌벌 떨며 외쳤다.

“그건 말이지,” 래플스가 말했다. “네 배신을 이전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자, 레비 씨! 당신이 어떤 수를 써왔는지 난 전부 알고 있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게임은 진작에 끝났단 말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로 죄만 더 무겁게 만들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어. 법원의 판결을 피해야 할 더 나은 이유라도 있는 건가?”

침울한 침묵을 깨고, 질문이 더 정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되풀이되었다. 그러자 내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레비의 두툼한 아랫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염증으로 부어오른 눈꺼풀이 괴로운 듯 파르르 경련을 일으킨 것이다.

"당신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속여주리라 마음먹었지."

“브라보!” 래플스가 외쳤다. “그게 네가 한 말 중 가장 정직한 소리구나. 격려하는 의미에서 말해주자면, 그 말 덕분에 네 형량이 25퍼센트나 줄어들었어. 하지만 네가 저지른 그 가소로운 반역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1,500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할 거다.”

어느 정도 이런 최후통첩이 날아올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중에는 나조차도 스스로가 궁색하다고 느낄 만큼 구차한 이유도 섞여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더 늦기 전에 래플스에게 이 문제를 강력히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나는 내 속마음을 최대한 숨기면서,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댄 레비의 기백을 내심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차라리 네가 뒈지는 꼴을 보고 말지!" 그가 소리쳤다. "이건 갈취야!"

"법정 모독죄에 대한 벌로, 이제 벌금은 파운드가 아니라 기니로 받겠다." 래플스가 말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심 실망감마저 들 정도로 우리 포로가 금세 다시 무너져 내렸다는 점이다. 그는 눈을 감고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낑낑거리고 신음하며 이를 갈았다. 그러고는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킬 듯 레드 엔사인(붉은 깃발)을 움켜쥐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샴페인 반 병을 얼른 집어 들었다. 래플스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곧바로 병의 와이어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아직 줄을 자르지는 마시오." 그가 레비에게 눈짓하며 덧붙였다. 그러자 레비는 즉시 눈을 크게 떴다.

"내가 낼게! 내가 다 낼게!"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하게 속삭였다. "자업자득이지. 약속할게, 반드시 다 갚겠다고!"

“좋아!” 래플스가 말했다. “여기 네 방에서 가져온 네 수표책이 있고, 여기 내 만년필도 있어.”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

"수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쾌하군요. 현금으로 주셨어야죠."

"내 사무실로 같이 가기만 해 봐, 래플스. 그럼 정말 그렇게 될 테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그럼, 내 은행으로 가자고!"

"혼자 가는 게 좋겠소. 대신 소지인 지급식 수표로 발행해 주시오. 가져가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말이오."

만년필이 수표책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레비의 손가락 사이에 펜을 쥐여주고 그 아래로 수표책을 받쳐 들고 있었기에 가능한 모습이었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어쩔 셈인가?" 그가 마지막 남은 기세를 내뿜으며 따져 물었다.

"우리는 이만 작별을 고하겠네. 오늘 밤까지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하게나."

"하루 종일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 있겠군!" 레비가 거의 혼잣말이나 다름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는 있나?” 래플스가 그에게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알아낼 방법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면, 얼굴이 시커멓게 변할 때까지 소리를 질러대도 소용없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겠지. 하지만 네가 그 행복한 무지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히 묶어둘 생각이다. 게다가 네 가련한 목소리를 아껴주기 위해 입에도 아주 꽉 틀어막아 주마."

레비는 협박이든 조롱이든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잠시 침묵하던 그가 물었다. "만약 내가 굴복해서 서명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 여기 남아 있어. 우리 중 한 명이 곁을 지켜줄 테니, 다른 한 명은 시내로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올 거야. 내가 당신에게 이 일을 막아볼 기회 따위를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아줘."

이 조건 역시 내 입장에서는 가혹하게 느껴졌다. 물론 우리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신중한 결정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나조차 당혹스러울 정도였다. 나는 레비가 혐오감을 드러내며 펜을 내던져 버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두 가지 선택지를 머릿속으로 아주 신중하게 저울질하듯 펜의 무게를 가늠할 뿐이었다. 고민에 잠긴 그의 충혈된 눈

동자는 래플스와 나를 번갈아 훑었다. 한마디로, 새로 제시된 조건은 명백한 이유로 나보다 레비 씨를 덜 괴롭히는 듯 보였다. 그에게는 분명 두 가지 악재 중 차라리 나은 쪽이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래플스의 고집대로 1,500기니짜리 수표를 작성하며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였다. 그는 수표에 단호하게 서명하더니, 마치 그 과정에서 모든 기력을 다 쏟아부은 사람처럼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래플스는 샴페인을 대접하겠다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샴페인 한 파인트(약 568ml)를 한 방울씩 정성껏 플라스크에 딸린 컵에 따랐다. 죄수는 마치 헛소리를 내뱉는 환자처럼 눈을 감은 채, 그 술을 한 모금씩 들이켰다. 술이 거의 바닥날 무렵에는 머리가 너무 무거워진 나머지, 래플스가 말아 놓은 깃발 위에서 죄수의 머리를 직접 들어 올려야 할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죄수의 더러운 손톱은 술을 더 달라는 듯 여전히 경련하며 허공을 휘저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광경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하지만 래플스의 말대로, 고작 한 파인트의 술이 대수겠는가? 어쨌든 그가 마신 술에 약을 타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나도 증언할 수 있었다. 레비의 리볼버를 쥐고 나무 계단 꼭대기에 서 있던 래플스는, 내게 플라스크를 건네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 플라스크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이다.

"아래층 방에서 드릴 말씀이 좀 있으니,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래플스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레비의 붉게 충혈된 눈꺼풀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좋아, 버니. 하지만 이제 곧 기차를 타러 가봐야 해. 9시 24분 기차를 타면 11시 전에는 은행에 도착할 수 있고, 한두 시쯤이면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거든."

"도대체 왜 은행에 가려는 거야?" 아래층 방에서 내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가 수표를 정지시키기 전에 미리 현금으로 바꿔버리려는 거지. 버니, 나 대신 네가 가볼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너무 흥분하지 말게. 자네가 둘 중에는 더 나은 곳을 차지했으니까."

"아마도 더 부드러운 쪽이겠지요."

"당연하지, 버니! 그 영감이 제 샴페인에 취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네 주머니나 손안에 그 영감의 권총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야 고작 비명을 지르는 것뿐이야. 하지만 설령 비명을 지른다 해도, 아무도 못 들을 거라고 확신해. 정원사들은 늘 큰길 건너편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배에 탄 사람들 정도가 유일한 변수겠지만, 그들조차 듣기는 힘들 거야."

"내 임무는 괜찮아." 내가 용기 있게 말했다. "정작 걱정되는 건 자네 임무라네."

"내 거야!" 래플스가 거의 웃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보게, 착한 버니. 내 몫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 말게나! 물론 은행에서 일을 좀 치러야 하긴 하겠지. 거기서 떳떳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야. 하지만 내 머리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 나를 믿어보라고."

"래플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낮게 말했다. "이건 네가 할 짓이 아니야! 은행에서 벌인 그 작은 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 모든 협박질을 말하는 거야. 이건 너답지 않아, 래플스. 이런 식이면 모든 게 다 망가진단 말이야!"

속 시원히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다행히 래플스는 나를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표정에서는 내 생각에 내심 동조하고 있다는 기색마저 느껴졌다. 그가 그 일을 곰곰이 되짚어볼수록, 그의 표정도 마음도 점점 굳어졌다.

"결국 일을 망친 건 레비야." 그는 끝까지 완강하게 대꾸했다. "그놈은 내내 나를 속여 왔어. 그러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하지만 래플스, 자네는 그에게서 뭔가 뜯어낼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잖아!"

"글쎄, 이제는 그럴 생각이야. 그리고 왜 그런지도 말했잖아. 안 될 게 뭐 있어?"

"그건 당신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설득하며 외쳤다. "그건 댄 레비라면 직접 했을 법한 짓이란 말입니다. 딱 그놈 스타일이라고요. 그런 짓을 하면 결국 당신까지 그놈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눈빛 하나로 내 말을 가로막았다. 평소 래플스가 내게 자주 보여주던 그런 눈빛이 아니었다. 그를 화나게 하거나, 경멸하게 하거나, 혹은 비통할 정도로 냉소적이거나 비꼬게 만드는 일은 내게 그리 낯선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보낸 눈빛은 고통과 수치심마저 서려 있었다. 마치 자신이 아주 낯설고도 못난 모습이라는 사실을 갑작스레 깨달은 사람처럼 말이다.

"바닥까지 내려가겠다고!" 그가 외쳤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닌, 비아냥 섞인 말투였다. "내 수준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다고 그래! 버니, 가끔은 내 도덕 관념이 자네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까지 든다니까?"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하지만 래플스 특유의 묘미이자 삶의 활력이 되어주던 그 유머러스함이, 돌연 자취를 감춘 것만 같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잘 압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구제 불능의 악당 숭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야!"

"내가 신경 쓰는 건 악당이 아니야." 나는 한 마디 한 마디에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자네도 아주 잘 알다시피, 내가 관심 있는 건 그 악당 뒤에 숨은 스포츠맨이지."

"스포츠맨의 가면 뒤에 숨은 악당이 어떤 인물인지, 난 자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네." 래플스가 웃으며 대답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었다. "그런데 자네, 지금 그놈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어가고 있군. 그러다 조만간 나를 무슨 거창한 영웅으로 미화해서 써 내려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버니. 그러다간 생석회에 묻힌 내가 무덤 속에서 돌아눕겠어! 내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말라고 이 말을 해두겠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가 내 간절한 호소에 마음을 움직였으리라 믿었다. 평소에는 무심하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선한 감정을 내가 일깨우는 데 성공했다고 내심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저 짓궂은 작별 인사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그러고는 나를 홀로 남겨둔 채 나선형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탑 아래층으로 멀어지는 그의 가벼운 발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나는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 후에는 탑 꼭대기에서, 수갑을 찬 채 묶여 잠든, 그러나 여전히 위협적인 내 죄수를 지키며 경계를 서야 했다.

제16장

감시와 경계

나무 계단을 오르기 전, 나는 못내 아쉬운 마음으로 아래층 방의 먼지와 오물들을 마지막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다음에 이곳을 다시 찾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처럼, 한참 동안이나 그 풍경을 눈

에 담았다. 세면대에는 붉은 녹 같은 얼룩이 져 있었고, 욕조에는 모래 같은 침전물이 깔려 있었다. 수도꼭지마다 푸른 녹이 슬어 있었고, 창문은 때가 끼어 뿌옇게 흐릿했다. 이런 사소한 모습들이 어째서인지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다.

창문 하나는 윗부분이 열려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열어둔 탓에 창틀 양 끝에는 거미줄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풍경은 계단을 오르는 내 마음을 애틋하게 만들었다. 햇살을 머금은 물결이 숲이 우거진 정원과 탁 트인 초원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모습, 강둑 산책로에 앉아 있는 한두 명의 낚시꾼, 강 한가운데 떠 있는 카누, 그리고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앙상한 교회까지. 그 풍경은 마치 석탄 창고 안에서 환등기로 비춘 환상처럼 눈부셨다. 나는 그 화창한 풍경을 뒤로하고, 죄수의 모습을 가까이서 마주해야 하는 불확실한 앞날로 발을 내딛기가 무척이나 망설여졌다.

하지만 감시의 첫 단계는 아주 수월한 일이었다. 덕분에 남은 시간도 별문제 없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내가 다가갔을 때 댄 레비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고 눈도 뜨지 않았다. 그는 레드 엔사인 깃발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등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그 표정은 마치 깊은 망각에 빠진 듯 평온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며, 이 남자가 가만히 있을 때가 훨씬 나아 보인다고 생각했다. 죽어서도 꽤 근사한 얼굴이 될 것 같았다. 이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고 넓었으며, 두툼한 입술도 이제야 제법 단단해 보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그 영악하고 작은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반적으로 그의 얼굴은 아침 내내 보았던 것보다 훨씬 나아졌을 뿐 아니라, 훨씬 강인하고 위협

적인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그는 포박된 채 잠이 들어 결박된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깨어나면 분명 비굴한 꼴을 보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그를 순순히 굴복시킬 방법은 내게 있었다. 일단은 내 힘을 과시할 급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사물함으로 다가가 아주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레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어찌 된 일인지 나는 그가 코를 골기라도 하길 바랐다. 차라리 그랬다면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탑 안의 정적이 곧 내 신경을 갉아먹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전한 정적은 아니었다. 사실 정적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 (언제나 그렇듯) 가장 견디기 힘든 법이다. 나무 계단에서는 몇 번이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집 안 깊숙한 곳에서는 마른 잎이 굴러가거나 창문이 덜컹거리는 듯한 희미하고 아득한 달그락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소리들이 딱히 어떤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긴장하며 이마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다 문득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정말이지 진땀을 뺐다. 바로 아래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모양인데, 갑자기 눈앞에서 윙윙거리며 나타나더니 당장이라도 레비를 공격할 기세였다. 나는 그 녀석이 내는 소음보다도 더 조용히 파리를 해치웠다. 숨이 막힐 듯한 사투 끝에 겨우 성공하고 나서야, 내가 죄수를 깨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달복달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내게는 리볼버가 있었고, 죄수는 수갑이 채워진 채 꽁꽁 묶여 있지 않은가!

이어진 긴 침묵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소리를 알아차렸다. 사실 전에도 간간이 들리긴 했지만, 탑 꼭대기까지 들려올 수밖에 없는 외부의 소음 중 하나라고 치부하며 무시해 왔던 소리였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대장간에서 망치질을 하는 듯한, 혹은 주변이 완전히 고요할 때만 겨우 들리는 기계 작동음 같은 느릿하고 규칙적인 박동이었다. 숨을 참지 않으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도 변하지도 않은 채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결국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한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앉아 있을 뿐이었다.

레비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를 쳐다보고 있지도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차분하고 정중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나는 분명히 움찔하고 말았다. 그러자 나를 한가로이 관찰하던 듯한 그 작은 눈에 악의 어린 빛이 번뜩였다. 충혈된 눈은 이전보다 조금 덜 붉어 보였으나, 큼직한 이목구비는 마치 깊은 잠에 빠졌거나 잠든 척을 하고 있을 때처럼 평온하고 강건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쏘아붙였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가 깨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보시다시피, 그 탄산음료 한 잔이 생각보다 효과가 아주 대단했거든요." 그가 설명했다. "덕분에 완전히 새사람이 됐습니다. 들으면 안타까우시겠지만 말입니다."

그 말을 믿었더라면 더 유감스러웠겠지만, 나는 차마 그렇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그 어떤 말도 내뱉을 수 없었다. 둔탁하고 아득한 박동 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러자 레비가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다시 물어왔다.

"당신은 압니까?" 내가 다그치듯 물었다.

"물론이지!" 그가 유쾌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당연히 시계 때문이야."

"무슨 시계 말입니까?"

"탑에 있는 거, 그보다 조금 아래쪽, 도로를 마주 보고 있는 거 말이야."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죠?"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이보게, 젊은이," 댄 레비가 말했다. "내 이 시계의 얼굴을 모르는 게 없어. 이 탑 안쪽 구석구석을 훤히 꿰고 있는 것만큼이나 말일세."

“그럼 당신도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있군!” 내가 소리쳤다. 내 목소리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고, 그 모습에 레비는 포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왜냐하면," 그가 말했다. "전 세입자를 차압해서 쫓아내고, 지금 사는 곳 대신 그 집을 통째로 넘겨받을 뻔했거든요. 사실 그게 제가 이 동네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계기였죠."

"왜 진작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다그치듯 물었다. 하지만 나의 격앙된 태도는 그저 그의 미소를 더 짙게 만들 뿐이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때로는 실제보다 더 갈피를 못 잡는 척하는 게 이득일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번만큼은 안 될 겁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가 아무리 엄격하게 굴고 그를 꽁꽁 묶어두었어도, 죄수는 조용하지만 보는 이를 몹시 불안하게 만드는 즐거움을 띤 채 나를 계속 응시했다.

"글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엔 오히려 이득이었던 것 같은데. 래플스가 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러 간 사이에, 네가 나를 감시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오, 그게 이득이었다 이거지!"

나는 의미심장하게 강조하며 대답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재킷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곳에는 그 노인네가 쓰던 낡은 무기의 손잡이가 손에 닿아 안도감을 주었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가 한층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대꾸했다. "당신이 그 화려한 친구보다는 훨씬 말이 통하는 사람 같다는 뜻이었어."

나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반면에,” 레비가 말을 이었다. 그는 마치 머릿속으로 우리를 정말로 비교하고 있는 듯, 한층 더 신중한 태도로 덧붙였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며 말했다. “자네는 위험을 그렇게 무모하게 감수하지는 않지. 하지만 래플스는 달라. 래플스는 워낙 위험한 짓을 일삼으니, 이번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자네 둘을 통째로 감옥에 처넣고 말 거야. 내 생각엔 이번에 이미 걸린 것 같기도 하지만 말이야. 뭐, 아직 일이 완전히 터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호들갑 떨 필요는 없겠지.”

나는 실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만만한 태도로 동의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은 못 했을까 궁금하군." 내 죄수는 마치 혼잣말이라도 하듯 말을 이었다.

"무슨 생각을?"

"시계뿐이야. 자네가 못 봤더라도 그는 분명히 봤을 거라고. 이 유괴 계획이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라고 말하진 않겠지! 모든 게 이미 치밀하게 계산되었고, 현장 답사도 마쳤을 거야. 내가 말했듯이 시계도 확인했겠지.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말이야. 그런데 우리 번뜩이는 친구님께선 시계가 일주일에 한 번은 태엽을 감아줘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하신 모양이야. 그게 무슨 요일인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았을 텐데 말이지!"

"그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이 그날이니까요!"

레비는 침대에 몸을 뒤로 젖히며 낮게 낄낄거렸다. 내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특유의 웃음소리였지만, 지금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저런 웃음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만약 내가 래플스의 처지였다면 저 웃음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속이 더 뒤틀렸다. 그래도 죄수의 진술을 단호하고도 거칠게 부정하며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만큼은 나름의 위안이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허풍이야!" 내가 내뱉은 말은 대략 이런 식이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우연이 어디 있겠어."

"확률은 고작 6대 1 정도입니다." 레비가 무심하게 말했다. "여러분 중 한 명은 눈을 똑바로 뜨고도 이 도박에 뛰어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따라 확실한 파멸로 걸어 들어가야만 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각자 자기 일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 테니 더 할 말은 없군요."

"어쨌든 말이야," 나는 으스대며 말했다. "내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고. 시계 태엽을 감으러 올 사람이 온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대로 설명해 봐. 그럼 들어는 줄 테니까."

"그 사람을 잘 아니까 아는 겁니다. 덩치는 작아도 아주 옹골찬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니까요. 겉보기엔 못 박힌 것처럼 딱딱하고 무뚝뚝해 보여도, 그 왜소한 몸집을 봐선 딱히 겁낼 상대도 못 됩니다." 레비가

아주 상세하고 공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 태도가 워낙 진지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다. “매주 화요일마다 킹스턴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옵니다. 점심시간 좀 전에 도착해서 내 시계들도 같이 봐주곤 하죠. 그래서 아는 겁니다. 뭐, 믿기 싫으면 안 믿으셔도 되지만요.”

“대체 이 시계는 어디서 태엽을 감아야 하는 겁니까? 위층을 아무리 둘러봐도 시계와 상관있어 보이는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레비가 말했다. "그는 아래층 바닥보다 더 높이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나선형 계단 꼭대기에 일종의 찬장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가깝군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사람 소리를 듣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그도 우리 소리를 듣게 되고!" 레비가 단호하게 덧붙였다.

"잘 들으세요, 레비 씨." 나는 그가 가진 리볼버를 보여주며 말했다.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의 기척이 들리면, 난 이걸 당신 머리에 겨눌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놈이 우리 소리를 듣는다면, 당신의 그 빌어먹을 머리통을 날려버릴 테니까요!"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마지막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그 충격적인 협박을 내뱉을 힘을 얻었다. 그 말에 걸맞은 목소리와, 그에 어울리는 표정까지 갖추려 애쓰며 말을 쥐어짜 냈다. 하지만 댄 레비가 나의 비극을 마치 희극이라도 되는 양 취급하자 굴욕감은 더욱 커졌다. 사실, 내가 정말로 그 말을 실행에 옮기게 만든다

면, 그것은 내 협박을 맞이하며 그가 터뜨린 그 거친 웃음소리 때문일 것이 분명했다.

"실례 좀 하겠네." 그는 붉은 깃발 끝으로 충혈된 눈을 닦아내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침묵을 지키려고 그 물건을 터뜨릴 생각을 했다니. 세상에, 자네가 냉혈한 악당 흉내를 내려고 애쓰는 꼴만큼이나 우스꽝스럽군. 바로 자네 말이야!"

"네가 나를 몰아붙인다면, 그 악당 노릇을 제대로 해 보일 거야." 나는 낮게 읊조렸다. "어젯밤에 내가 널 아주 박살을 내놓았던 걸 기억하겠지? 조금만 더 부추기면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해줄 거야. 그러니 이제 상황 파악이 됐겠지."

"그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레비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술에 취해 난투극을 벌이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난 그런 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황을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선생님이 본래 악당이나 협박범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래플스가 이번 일에 선생님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선생님이 그를 영영 용서하지 않는다 해도 전 놀랍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악당과 어울리고는 있지만, 정작 본인은 악당이 아니라는 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는 주범이고 선생님은 그저 겉치레뿐인 동행일 뿐이죠. 저 같은 사람은 그 차이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선생님의 경우엔 그게 천번만번 애석한 일이 될 겁니다!"

그는 한쪽 팔꿈치를 괴고 앉아, 마치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간곡한 태도로 열정적인 설득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그가 내뱉는 말도, 그 말이 내게 미칠 영향도, 모두 치밀하고 신중하게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일부러 슬픔과 낙담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그를 부추겼는데, 그렇게 한 목적은 그의 달라진 어조의 의미를 깨닫고서야 비로소 내게 떠오른 것이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는 이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만 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레비가 다그치듯 물었다. "너는 네 일도 아닌 일에 휘말렸어. 네 친구도 아닌 놈들을 대신해서 말이야. 게다가 이 일은 이제 중범죄로 번졌고, 한 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들통날 판인데! 왜 굳이 확실한 감옥행을 택해서 이 고생을 하겠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군."

나는 심술궂게 체념한 듯 대답했다. 하지만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한 탓에, 심장은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찾아왔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일에서 손을 떼는 게 어떻겠나?" 레비가 대담하게 제안했다.

"내가 어떻게 하겠나?" 나는 그에게 더 구체적인 제안을 끌어내기 위해 되물었다.

"일단 나부터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당신이나 얼른 여기서 나가!"

나는 마치 그 제안이 정말 괜찮은 생각이라도 되는 양 그를 바라보았다. 래플스도 나도 내키지 않는데, 나 혼자만 억지로라도 그 생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의 이런 망설임은 그의 열의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양손을 들어 올리며, 제발 수갑을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달랬다. 나는 래플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권한으로 수갑을 풀 수 없다고 말하는 대신, 전혀 다른 이유를 대며 고민하는 척했다.

"말은 좋지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저한테도 이득이 되는 일인가요?"

"물론이지!" 그가 외쳤다. "그 나쁜 자식이 떠나기 전에 자네가 친절하게도 내 주머니 속에 넣어둔 수표책을 꺼내주게. 지금 당장 100파운드짜리 수표 한 장을 써주고, 이 탑을 나서기 전에 100파운드를 더 써주겠네."

"정말 그러시겠다고요?" 나는 확답을 피하며 되물었다.

“맹세하네, 정말이라니까!” 그가 단호하게 외쳤다. 그 말만큼은 그가 지켰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여전히 믿는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가 어느 대목에서 나를 속였는지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가 속였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려줄 때가 바로 지금이었다.

"200파운드라니요." 내가 말했다. "당신 말대로 시계 태엽을 감으러 올 사람이 나타나면 공짜로 얻게 될 자유를 위해서 말입니까? 고작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아끼려고 200파운드나 쓰겠다는 건가요?"

레비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자마자 안색이 변했다. 눈에는 순식간에 분노가 서렸다. 하지만 그 외의 태도만큼은 침착했고, 위기 대처 능력 또한 놀라울 정도였다.

"시간을 아끼려던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 동네에서 체면을 차리려던 것이었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고리대금업자가 빈집에 묶인 채 수갑까지 차고 있다니! 마지막에 웃는 자가 누구든, 일단 내 체면은 바닥을 치고 말 테니까. 하지만 네 말이 맞아. 금화 200개만큼의 가치도 없는 일이었어. 마음껏 비웃으라고 해! 어차피 오늘이 가기 전에 너와 네 그 잘난 친구는 입에 쓴맛을 보게 될 테니까. 그래, 이게 전부다. 나를 죽일 생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마음 단단히 먹는 게 좋을 거야!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 했지만, 맹세컨대 이제는 네가 무릎을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될 테니까!"

그는 결박된 상태였고 나는 자유로웠다. 나는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그는 무방비 상태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그가 묘사한 내 모습—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는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해학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나조차도 처음부터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가 늘어놓은 시계 태엽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당장 석방시켜 주겠다며 제안한 거액의 뇌물과는 분명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고리대금업자가 그 두 가지 모순을 맞춘 것은 단순한 재치 그 이상의 수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그 처지였더라도 이 굴욕적인 경험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것이다. 그의 재력을 생각하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만큼의 막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었을 터였다.

반대로, 만약 그가 이미 래플스에게 건넨 거액의 수표를 취소하려는 속셈이라면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레비가 왜 이제야 나에게 접촉해 왔는지가 오히려 의아할 따름이었다.

래플스가 떠난 지 한참이 지난 것 같았다. 하지만 내 회중시계는 멈춰 있었고, 탑 위의 시계는 종을 울리지 않았다. 대체 왜 그 시계를 계속 돌리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이제 댄 레비가 굳게 다문 입술과 냉혹한 눈빛을 한 채 다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자, 시계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멀리서 들려오는 거대한 망치질처럼 초 단위로 쿵쿵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예감이 불길한 초를 예순 번 세어 한 분을 채우고 나면, 내게 몇 시간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실제로는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태양의 움직임뿐이었다. 한쪽 현창으로 들어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며, 래플스가 재판을 하던 무렵 침상에 누운 죄수를 온통 비추던 그 햇살이, 이제는 내가 사물함 위에 앉아 있으면 머리 위로 불길을 쏟아붓고, 앉아 있지 않으면 사물함의 니스칠을 끈적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불쾌한 열기와 시큼하고 정체

된 기운 때문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나빠지고 있었다. 나는 계단 꼭대기에 셔츠 차림으로 앉아, 아래층 열린 창문에서 흘러 들어오는 공기를 쐬었다.

레비는 갑자기 욕설을 내뱉으며 덮고 있던 진홍색 천을 걷어찼다.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탑 안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가 바로 그 욕설이었을 것이다. 그 외의 시간 동안 그는 수갑을 찬 두 주먹을 가슴 위에 꽉 쥔 채, 매서운 눈빛으로 침상 윗부분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그에게서는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기묘한 분위기가 풍겼다. 그것은 굴하지 않는 의지이자 극도로 날카로운 경계심이었으며, 마치 곧 불길로 타오를 듯이 속에서 이글거리는 불씨 같은 느낌을 주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이 남자가 두려웠다. 솔직히 인정하는 편이 낫겠다. 그가 나보다 덩치가 두 배나 커서가 아니었다. 나 역시 나이 면에서는 그보다 우위에 있었으니 말이다. 그가 묶은 밧줄이 약하다거나, 내가 쥔 무기가 무용지물일 것 같다는 의심이 든 것도 아니었다. 이건 물리적인 유리함이나 불리함, 혹은 단순한 신체적 공포의 문제가 아니었다. 순전히 성격의 문제였다. 그의 기백이 나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내게 승산이 있는 만큼, 한낱 내 육신이라도 언제든 그의 육신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언할 수 없는 근원적인 열등감은 가시지 않았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 아침 동안, 그 기분은 매 순간 내 신경을 갉아먹으며 커져만 갔다. 차라리 조건이 대등하더라도 좋으니, 차라리 몸으로 부딪치는 싸움이라도 해서 이 긴장을 해소하고 싶을 정도였다.

차라리 그 노련한 악당을 풀어주고 그의 리볼버를 창밖으로 던져버린 뒤, 이렇게 외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 해보자고! 네 힘과 내 나이 중 누가 더 센지 한번 겨뤄보자. 악마가 더 못한 놈을 잡아먹길 빌면서 말이야!"

하지만 나는 내 불안을 감추기 위해 그를 매섭게 노려보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영웅적인 결투에 대해 한참을 고민하던 중,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혀 다른 종류의, 영웅적이진 않지만 그만큼이나 절박한 충돌이 닥쳐왔다.

레비가 고개를 아주 살짝 들었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던 내 눈에는 충분히 보였다.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 역시 숨을 죽였다. 그때 탑 아래 깊은 곳에서, 깃털처럼 가벼운 발소리가 들린 듯했다. 아니, 들렸다고 믿고 싶었다. 잠시 후 또 다른 발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계단 아래를 뚫어지게 내려다보느라 그 짧은 순간을 보내고 말았다. 정작 내 시선을 번개처럼 다시 침대로 돌려놓은 것은 수갑이 부딪히며 낸 아주 작은 달그락 소리였다. 그곳에 레비가 있었다. 그는 두 손을 입가에 모은 채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그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내가 그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터져 나오려던 포효는 그의 목구멍 속에서 짓눌린 채 머물러 있었다.

실제로 나는 악귀가 된 것처럼 다시 한번 그에게 달려들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부끄러운 이점을 누리기도 했다. 물론 그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 짐승 같은 놈은 먼저 내 손을 물어뜯었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흉터로 남아 있다. 그러더니 제 손으로 내 목을 움켜쥐었

다. 나는 정말 죽는구나 싶었다. 놈이 목을 너무 세게 조르는 바람에 기도가 터져버릴 것 같았고, 눈알이 안와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것은 흡사 고릴라의 움켜쥠 같았다. 놈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악마가 강림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대등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나의 모든 꿈은, 놈의 초인적인 힘과 나의 무력함 앞에서 무참히 깨졌다. 나는 살기 위해 놈의 죽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다 침대 상단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질 뻔했다. 내가 옆으로 몸을 날리자 놈도 나를 따라 튀어나왔고, 수갑이 묶여 있던 고정용 못까지 통째로 뽑아버렸다. 하지만 그 덕분에 놈은 내 목을 더욱 단단히 죄어왔다. 놈은 단 한 순간도 손을 늦추지 않았다. 내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놈도 함께 몸을 일으키며 달려들었는데, 수갑이 난간에 고정되어 있었기에 놈은 난간에 매달린 채로 나를 쫓아온 것이었다.

그사이 나는 빈 주머니를 더듬으며 그의 리볼버를 찾았다. 바닥에서 뒤엉켜 싸우는 동안 리볼버가 빠져나간 모양이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자, 발길질에 채여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총이 보였다. 나는 얼른 총을 낚아채려 몸을 날렸다. 하지만 레비 역시 총을 발견했다. 그는 나를 죽일 듯이 꽉 움켜쥔 채, 발로 총을 걷어차 난간 너머로 떨어뜨려 버렸다. 나중에 생각하니, 나무 계단 위로 총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리고 내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 만큼 생생한 것은, 처음 몇 초간의 거친 숨소리 이후 단 한 마디의 말도 없이 이어지던 그 괴로운 숨소리였다.

그것은 잔혹한 격돌이었다. 밤사이 벌어졌던 일처럼 짧고 강렬한 충돌이 아니라, 끔찍할 정도로 길게 이어지는 싸움이었다. 그렇다고 이 잔혹함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폭력은 아니었다.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이 패배 속에서, 내가 받은 대가가 결코 과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적은 단 한 순간도 그 치명적인 손아귀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나를 난간 쪽으로 몰아붙였고,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합쳐진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난간이 부서져 버리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아래층 방으로 굴러떨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서서히 목이 졸려 죽는 것보다는, 비록 그것이 조금 더 나은 죽음일지라도 아래로 떨어지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다른 방도는 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던지려 애쓰며 양손을 허공에 휘둘러댔다. 바로 그때, 내 손 하나가 아래층으로 차여 나간 줄 알았던 권총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나는 정신이 나가 있었다. 그 상황이 의아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총을 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니었다. 차분하게 생각할 여유가 있었다면 했을 법한 방식으로, 나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나는 상대의 겨드랑이 밑으로 총구를 밀어 넣고 허공을 향해 발사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굉음이 울려 퍼졌다. 효과는 확실했다. 레비는 나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더니, 마치 정말로 총에 맞기라도 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 찰나, 나는 그가 들고 있던 무기를 빼앗아 그의 얼굴 앞에 휘둘렀다.

"나를 쏘려 했잖아! 나를 쏘려고 했단 말이야!"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두 번이나 내뱉었다.

"아니야, 안 그랬어!" 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겁을 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리고 아주 제대로 성공했지! 하지만 당장 네 우리로 돌아가서 얌전히 엎드려 있지 않으면, 개처럼 쏴 죽여버릴 테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은 듯했다. 입술은 이미 푸르게 질려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돌연 태도를 바꾸며, 권총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방금 했던 위협을 거두어들였다.

"거봐! 이걸 다시 보게 된다면 그건 순전히 네 잘못이야." 나는 그에게 약속했다. 나 역시 그 못지않게 숨을 헐떡이며 정신없이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

"방금 당신이 내 목을 졸라 죽일 뻔했잖아. 이제 우리 꼴이 아주 볼만하군!"

그는 침대 가장자리를 움켜쥐고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몸을 지탱했다. 천식 발작일 수도 있었고, 혹은 더 심각한 발작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장 자극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다행히 래플스가 내게 맡겨두었던 플라스크가 떠올랐다. 나는 서둘러 플라스크를 기울여 술을 넉넉히 따랐고, 다니엘 레비는 그 독한 술을 마치 물 마시듯 단숨에 들이켰다. 내가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그는 벌써 더 달라고 애원했다. 결국 나는 그에게 술을 더 주었다. 비록 그 대가로 우리

가 다시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야 할지라도, 그의 흐물흐물한 얼굴에서 납빛 안색이 가시고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드는 것을 보는 것이 내게는 훨씬 큰 안도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끝이 났다. 나를 파멸시키려 했던 그 정당하고도 뻔뻔한 시도 때문에, 그는 영혼까지 탈탈 털린 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침상으로 돌아갔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늙고 흉측해 보이던지. 내가 그의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 술을 더 따라주었고 마침내 술병이 비워지자, 그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까의 가짜 잠과는 달리 아주 진짜 같은 잠이었다.

나는 그 불쌍한 녀석을 지켜보며 파리가 꼬이지 않게 쫓아주었다. 때로는 깃발로 부채질도 해주었다. 사실 인도주의적인 마음보다는, 그가 최대한 오랫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바로 그때, 래플스가 돌아왔다. 마치 불길한 햇살처럼, 그는 어둠 속에 멈춰 있던 그 광경을 환하게 비추었다.

래플스는 런던 시내에서 나름의 모험을 겪고 있었다. 나 역시 그 대신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을 곧 다행이라 여기게 될 만큼 말이다. 래플스는 처음부터 액수가 크고 아무런 제한도 없는 수표를 내밀었을 때 은행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한 듯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첼시의 화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그림은 전혀 그리지 않으면서, 정작 모델은 한 번도 부른 적 없는 변장용 의상들만 잔뜩 쌓아두고 사는 화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후 그는 이번 사건을 위해 런던 사교계에 잘 알려진 군인을 완벽하게 흉내 내어 나타났다. 그 군인은 댄 레비의 단골손님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었다. 래플스의 말에 따르면, 은행 출납원이 그를 빤히 쳐다보긴 했지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줄 때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수표를 챙겨 마차로 돌아가던 길에 그는 래플스와 그 방탕한 군인 모두를 아는 지인을 마주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지인은 분명히 래플스가 아닌, 그 군인으로 알고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 버니.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말해야 했는데, 내 말투나 저 거지 녀석의 말투와는 전혀 딴판으로 말해야 했거든! 하지만 결과가 좋으면 된 거지. 자,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줘. 그러면 드디어 좋은 결말이 눈앞에 보인다고 자부해도 좋을 거야.”

"이제 난 어쩌면 좋지?" 나는 불안한 마음을 담아 물었다.

“버니, 여긴 얼른 나가서 시내에서 기다려. 자네도 아주 잘해주었네, 친구. 나 역시 내 방식대로 아주 완벽하게 처리했으니 말이야. 모든 게 순조로워. 내가 몸에 지닐 수 있는 최대한의 현금으로 챙겨둔 1,500기니까지 말이지. 가랜드 노인도 직접 만나서 약속 어음은 돌려주었네. 레비가 담보 대출에 대해 약속한 내용도 함께 전했어.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꽤나 힘겨운 만남이었네. 하지만 내가 노인을 위해 얼마나 압박을 가하며 애를 썼는지 그분이 꿈에서라도 알게 된다면 대체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할 정도라니까! 자, 이제 이 은밀한 무대에서 우리가 각자 퇴장하는 일만 남았네. 나는 우리 공동 투자자가 움직여줘야만 나갈

수 있지만, 버니, 자네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준다면 상황이 훨씬 단순해질 거야."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나았겠지만, 내 성미에는 영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 래플스는 이미 옷도 갈아입고 점심까지 챙겨 먹은 뒤였다. 반면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인 몰골이었다. 옷은 더러워졌고 머리칼은 헝클어졌으며, 정신적인 긴장이 풀리자마자 뱃속에서는 허기가 무섭게 몰려왔다.

래플스는 내 처지를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대낮에 내가 정문으로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탈출 경로까지 미리 짜두었다. 그가 길 건너편 정원사에게 늘어놓은 그 치밀한 이야기를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래플스는 집을 사려는 예비 구매자라고 속여 정원사의 열쇠를 빌렸다. 오후 중에 건축업자와 사업 파트너를 집으로 불러 만나야 한다는 핑계였다.

나는 건축업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건축업자로서 정원사에게 기발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래플스와 레비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곳에 머물 수 있게끔 말이다. 물론, 내가 다시 돌아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었다.

그 모든 과정은 내 눈에 무척이나 복잡해 보였다. 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가 지난밤 몰래 해치운 일보다 훨씬 단순한 것이었다. 그래도 래플스다운 방식이었기에, 나는 결국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이 모든 일을 축하하며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저녁 일곱 시에 올버니에서 다시 만나기로 말이다.

하지만 일곱 시가 되기 전까지 벌어질 일은 아주 많았고, 사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발에 묻은 버려진 탑의 먼지를 털어냈다. 내려가는 길 중 가장 어두운 곳에서 내 발 중 하나가 무언가를 밟았기 때문이다. 그 물건은 스스로 챙그랑 소리를 내며 아래층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 아래쪽 계단참에 이르러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그것을 집어 들었다.

그동안 겪었던 그 불가사의한 경험에 대해 래플스에게는 별로 말을 해두지 않은 상태였다. 권총이 난간을 뚫고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 손에 쥐어져 있었던 그 일 말이다. 래플스는 권총이 난간을 뚫고 나갔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바닥 높이에서 난간 밖으로 삐져나온 권총 손잡이를 움켜쥐었을 때, 내 몸도 난간 너머로 거의 넘어간 상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이 말로 상황이 다 정리되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무심하게 툭 내뱉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그 사건의 설명이 무엇인지, 적어도 내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그에게 말해줄 수 있었다. 일부러 다시 그 높은 곳까지 기어 올라가서, 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러다 문득, 그가 나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고 싶어 했는지가 떠올랐다.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가 기대할 놀라움을 조금 더 미뤄두기로 했다.

그사이 내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다. 길 건너편 정원사에게 황당무계한 소식을 전하고 난 뒤, 나는 가장 가까운 역으로 향하며 근처 상점들을 뒤졌다. 한 상점에서는 깨끗한 칼라를 샀고, 다른 상점에서는 칫솔

을 샀다. 역에 도착해서 내가 한 일이라곤, 역 화장실의 열악한 시설 안에서 그 물건들을 이용해 겨우 몸단장을 하는 것뿐이었다.

몇 분 뒤, 나는 길을 물어 어느 집을 찾아 나섰다. 그 집을 발견하기까지는 20분에서 25분 정도가 더 걸렸다.

제17장

비밀 요원

이 집 역시 강가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다른 두 저택에 비하면 아주 작고 초라한 벽돌집에 불과했다. 도로와 맞닿아 지어진 이 반독립 주택은 강둑을 따라 좁은 정원이 붙어 있는 형태였다. 칙칙한 회반죽 외벽과 초록색 베네치안 블라인드는 도무지 매력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일 년 중 세 계절은 단점이 될 법한 위치였다.

나무 대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나는 어느덧 지저분한 계단 꼭대기에 올라서 있었다. 부풀어 오른 페인트칠과 욕실 창문에나 어울릴 법한 깨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나는 구식 종소리의 잔향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가난한 과부가 된 레이디 로라 벨사이즈가 은둔처로 택한 이 강가의 별장은, 어딘지 모르게 답답하면서도 기묘하게 빅토리아 시대의 정취를 풍기고 있었다.

내가 찾은 사람은 레이디 로라가 아니라 벨사이즈 양이었다. 하지만 그 거의 부랑자나 다름없는 차림의 하녀는 벨사이즈 양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정원에 있을 수도 있고, 강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식이었다. 하녀는 잠시 안에서 기다려 줄 수 있겠느

냐고 물었다. 나는 그러겠노라 답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지만, 집 밖만큼이나 칙칙한 실내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1분이 훨씬 넘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곳의 풍경을 구석구석 눈에 담을 여유가 있었다. 방 안에는 유행이 한참 지나버린, 덩치만 큰 가구들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다. 소파와 강철로 된 벽난로 도구들, 그리고 수정 샹들리에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방의 절반 가까이는 낡고 거대한 브로드우드 피아노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값싼 액자에 담긴 카밀라 벨사이즈의 전신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당대 궁정 예복을 입고 화려하게 빛나는 초상화의 모습은, 주변의 초라한 풍경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온갖 비교를 불러일으킬 법했다.

나는 여전히 그 야만적이기까지 한 장신구들을 살피고 있었다. 깃털 장식과 목걸이, 그리고 돌돌 말린 긴 옷자락까지. 이 거창한 차림을 위해 대체 어떤 고귀한 친척이 도움을 준 것인지, 그리고 카밀라는 왜 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도 저토록 지루해 보이는 것인지 궁금해하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그녀가 직접 들어왔다. 옷차림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앞서 말한 것과는 달리 전혀 지루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경악과 불안,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내 눈에는 그 무엇보다도 초조하고 괴로워 보였으나, 그 감정들은 그녀의 자존심이라는 틈새 사이로 겨우 비칠 뿐이었다. 그녀가 입은 흰색 서지 코트와 스커트는 강가에서 꽤나 고생하며 입은 듯 보였는데,

나는 즉시 코트의 커다란 에나멜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지금 고백하건대, 그 순간까지 나 역시 적잖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말을 내뱉고 나니, 불안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직 벅찬 흥분만이 몰려왔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뗐다. "벨사이즈 양, 이 물건이 분명 당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사라졌던 에나멜 단추를 꺼내 보였다.

"그걸 어디서 찾으셨나요?" 벨사이즈 양이 물었다. 목소리와 눈빛에 놀라움이 아주 살짝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숨 가쁘게 덧붙였다. "그리고 그게 제 것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고요?"

"몰랐어." 내가 대답했다. "그냥 감으로 쏜 거야. 내 인생 최고의 한 발이었지!"

"하지만 그걸 어디서 찾았는지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빈집이라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다 이제야 아주 가벼운 미풍처럼 숨을 내뱉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에나멜 단추를 쥐고 있었다.

“자, 맨더스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물건을 돌려주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의례적인 감사를 되풀이하는 동안, 나는 더욱 강렬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결국 당신이었군!” 내가 말했다. 그녀가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내심 아쉬웠지만, 이내 그 카멜레온 같은 눈동자 속에서 무모한 빛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하며 번뜩이는 것을 보고는 안도했다.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그녀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물었다.

"누군가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판단할 수도 없었고요." 나는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저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에 그의 권총이 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누구의 권총이지?"

"댄 레비의 것이에요."

"좋아!" 그녀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겠군."

"내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난 당신이 그를 죽인 줄 알았단 말이야! 게다가 나까지 가담한 셈이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전혀 없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열망에 차 있었고, 대담하고도 강렬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그자를 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게 만들긴 했죠."

"당신이 그에게 한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정작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잖아요."

"그럴 리가요! 저는 오히려 얼른 자리를 피했는걸요."

“하지만 벨사이즈 양, 대체 어떻게 그곳에 계셨던 건지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전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건 당신이 나에게, 아니 당신들 모두가 직접 말해줘야 할 문제 아닌가요?"

"아, 난 누가 먼저 쏘든 상관없어!" 내가 흥분해서 외쳤다.

“그럼 제가 하죠.”

그녀는 곧장 대답하더니, 방 안쪽 끝에 놓인 그 끔찍한 소파로 나를 데려갔다. 그러고는 마치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듯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다. 빛바랜 귀족적 품격이 감도는 그 흔해 빠진 공간에서 우리가 방금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짚어갈 때,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 모든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니. 우리 뒤편 창밖으로는 띠처럼 길게 뻗은 잔디밭과 자갈길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템스강으로부터 그곳을 가려주는 버드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다. 믿기지 않는 대화가 오가는 이 장면 속에서, 눈앞의 풍경은 지나치게 사실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경기가 취소됐던 그날 말이에요." 벨사이즈 양이 말을 시작했다. "당신도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비록 나중에 밝혀진 사실들을 끝까지 듣지는 못하셨겠지만, 이제는 전부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래플스 씨가 분명히 말해줬을 테니까요. 사실, 불쌍한 갈랜드 씨가 래플스 씨에게 다 말해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느 모로 보나 정말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요. 하지만 그 지독한 고리대금업자를 상대로 대체 누가 버틸 수 있었겠어요? 래플스 씨라면 모를까, 물론 그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그를 두고 한 말 중에선 가장 못한 축에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를 두고 한 다른 말들도 몇 가지 들려주었다. 벨사이즈 양은 그 이야기를 아주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다.

"글쎄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이 일에 대해 꽤 친절하게 굴었어요. 그 점은 인정해야겠네요. 레비 씨를 꽤 잘 안다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그 말투가 꼭 사형수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는 집행관 같았다니까요! 그동안 저는 카를스바트에서 이미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그리고 그 끔찍한 인간이

우리 모두 앞에서 래플스 씨를 향해 몰아붙이며 말했을 때,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소리를 한 건지 궁금해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려 했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정말로 그 말에 무슨 숨겨진 뜻이라도 있었을까요?"

벨사이즈 양은 마치 내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막 입을 열려던 찰나, 그녀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맨더스 씨! 물론 래플스 씨에 대해선 전부 알고 계시겠지만요."

말하는 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만큼은 저라도 분명 래플스 씨 편을 들었을 테니까요. 맨더스 씨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면, 그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써 생각해보려 노력했습니다. 로즈 경기장에서 그를 뒤쫓던 그 끔찍한 자들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들에게 쫓기는 와중에 그가 홀연히 사라져 버렸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뒤로 경기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카를스바트에서 여기까지 경기를 보러 온 거였으면서 말이죠! 그는 대체 왜 거기 있었던 걸까요? 거기서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 자신이 이미 레비의 손아귀에 잡힌 상태라면, 대체 어떻게 사람을 레비로부터 구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래플스를 전혀 모르는군요." 이번에는 나도 지체 없이 대꾸했다. "그는 단 몇 분조차 누군가의 손아귀에 잡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 해도, 나는 래플스가 그 상황을 빠져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무슨 극단적인 행동이라도 저질렀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게 걱정됐어요." 벨사이즈 양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카를스바트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차례고요. 테디를 위해서라도,"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가여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나 역시 래플스가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벨사이즈 양은 그것이 바로 자신이 우려했던 점이라며 다시 한번 말했다. 래플스를 대하는 그녀의 어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는데, 그럴 만도 했다. 불운한 부자를 언급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고마움에 북받쳐 떨릴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내 말이 맞았잖아!" 그녀가 외쳤다. 그 목소리에는 내가 차마 이름 붙이기 어려운, 또 다른 종류의 감정이 실려 있었다. "토요일에 경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엔 정말이지 비참할 정도였다고——"

"테디가 정말 잘해주었는데!" 나는 바보같이 그만 참견을 하고 말았다.

"래플스 씨 생각이 자꾸 나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카밀라가 솔직한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대체 어떻

게 된 일인지 계속 궁금해하고 또 궁금해했죠. 그러다 일요일에 강가에서 그를 보았답니다."

"그가 내게 말해주지 않았어."

"그 사람이 내가 알아봤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변장을 아주 철저하게 했거든요!" 카밀라 벨사이즈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러고는 자신의 통찰력을 뽐내기라도 하듯 덧붙였다. "하지만 나를 속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벨사이즈 양, 그분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전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관할 바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자는 분명 레비 씨의 정원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보트 보관소를 뚫어지게 살펴보고 있더군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게다가 왜 변장까지 한 걸까요? 저는 그 일을 떠올리며, 카를스바트에서 있었던 사건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려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초에 무언가라도 해야 했을까요? 그게 내 알 바였냐고요? 제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을지, 그리고 그 질문에 얼마나 엉망진창인 대답들이 돌아왔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굳이 복잡한 심리 상태까지 늘어놓아 지루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뻔한 일이니까요.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게 더 급선무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아무런 진전도 없었고, 래플스 씨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사이에도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있었다면 벌써 소식이 들렸겠지요. 하지만 오히려 그 정적 때문에 저는 어젯밤에 분명 무슨 일이 터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허락된 시간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들이 자기 집에서 지낼 수 있는 마지막 일주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무언가 벌어져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였고, 래플스 씨가 분명 움직일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무엇을 할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적으로 옳아요!" 내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벨사이즈 양이 내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녀에게는 나의 격려나 찬성 따위는 전혀 필요치 않아 보였으니까. 그 오래된 빛, 그녀만의 빛, 그 무모한 빛이 그녀의 형형한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 전날 밤에는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젯밤에는 아예 침대에 들지 않는 편을 택했고요. 제가 가끔 이 교외 해안의 현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기이한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글쎄, 어젯밤인지 아니면 오늘 아주 이른 새벽인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이한 시도를 했답니다. 저한테 카누가 하나 있거든요. 요즘은 거의 거기서 살다시피 해요. 어젯밤 자정이 지나 아무도 모르게 밖으로 나갔어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나간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아, 실례합니다, 맨더스 씨?"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었어!"

"계속 말씀하시죠."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다면 어쩌시렵니까?”

물론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굳이 입을 열게 만들었다. 우리가 댄 레비를 그의 유람선에 태우려 애쓰던 중, 그의 집 앞을 스치듯 지나가던 카누 속의 희미한 흰 셔츠 차림의 형체. 그리고 그를 그곳에 내려놓으려던 순간, 텅 빈 저택 앞을 다시 한번 지나가던 그 형체. 바로 지금 내 곁에 앉아 있는 이 날렵하고 늘씬한 여인이 바로 그 형체였다. 그녀는 매번 우리를 지켜보았고, 우리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렸다. 다만 우리의 행동,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한밤중의 행위를 오해했을 뿐이다. 그녀는 끝내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 황량한 탑에 숨기려 한 것이, 한밤중에 몰래 실어 나른 시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녀가 그 끔찍한 가설만큼이나 자주, 진실에 대한 막연한 직감을 떠올렸을 것이라 짐작한다. 실제로 그녀도 그렇게 단언했다. 그녀는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레비의 저택에 주인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그를 걱정하는 이도 없다는 사실을 대담하게 확인한 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부터 보았던 그 대담함 그대로, 그녀는 잡초가 무성한 잔디밭을 가로질러 비어 있는 탑 안으로 직접 들어가 그 비밀을 파헤치려 했다.

그녀가 나선형 계단을 조심스레 밟는 소리가 들린 순간, 나는 댄 레비와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들었고, 심지어 조금은 보기도 했다. 사실 리비가 내뱉은 끔찍한 욕설만 들어도 그와 래플스, 그리고 나 사이의 상황이 어떠한지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리대금업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라면, 벨사이즈 양은 유머러스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은 몸이라, 그녀의 어머니 이웃들처럼 그런 욕설에 완전히 얼어붙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다고 말이다. 그리고 권총에 관해서라면, 총이 그녀의 발치로 떨어졌을 때 그녀는 처음에 내가 난간 너머로 총을 따라 떨어질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손을 휘두르던 내 손에 다시 총을 쥐여 주었다.

"하지만 당신이 총을 쐈을 때, 난 내가 살인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 보시다시피, 내가 당신을 두 번이나 잘못 판단했네요."

우리가 나눈 대화에 가벼운 농담이 섞여 있었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아주 미미한 정도였다고 말하고 싶다. 그건 그저 소녀가 마지막에 보여준, 씁쓸하면서도 애처로운 유머였을 뿐이다. 내 가장 혹독한 비평가라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약속할 수 있다. 나는 내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결코 가벼운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했을 뿐이다. 이토록 대담하면서도 슬프고, 그 모든 것을 다 품은 채 즐거워 보이는 눈동자는 생전 처음 본다고 말이다. 또한 그토록 조화로운 무모함과 감수성을 지닌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오직 그녀의 눈동자에서만 느꼈던 그 조화로움을 목소리에서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생각했다. 카밀라 벨사이즈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소녀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남자는 오직 A. J. 래플스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녀는 로즈 경기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래플스 때문에 내 기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다만 이번에는 작별의 순간에 그랬을 뿐이다. 그녀는 당혹스러우면서도 몹시 화가 난 상태인 나를 어스름 속으로 내몰아 버렸다.

"물론이죠." 카밀라가 정원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맨더스 씨, 제가 한 말은 절대로 어디 가서 옮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어젯밤과 오늘 있었던 그 모험들 말씀이신가요?" 내가 다소 당황하며 물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 전부를 말하는 거야!"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단 한 마디라도 밖으로 새어 나가선 안 돼. 만약 입을 놀린다면, 당신에게 말을 건 내 자신을 아주 후회하게 될 테니까."

마치 그녀가 제 발로 찾아와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당시에는 눈치챘을지 몰라도, 나는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다.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나는 안절부절못하며 말했다. “그게 그러니까…… 다만…… 별로 상관없으시겠죠?”

"그럼요! 예외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노련한 래플스조차도 아니란 말인가?"

"래플스 씨는 절대 안 돼요!" 카밀라 벨사이즈가 외쳤다. 그 당당한 눈동자에서 번뜩이는 기세가 마치 두 갈래로 갈라진 번개 같았다. "래플스 씨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실도 알아서는 안 될, 가장 부적절한 사람이라고요."

"그와 나를 그 곤경에서 완전히 구해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나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 물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조금이라도 좋게 생각해주길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카밀라의 태도만 놓고 보면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다. 래플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만 하면, 그는 평생 그녀의 노예나 다름없는 사람이 될 터였다. 하지만 지금 카밀라는 단호했다. 무언가 숨겨진 불꽃이 타오르는 듯, 그 단호함에는 격앙된 기운마저 서려 있었다.

"맨더스 씨, 이건 저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제가 흥분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으니까. 흥분한 나머지 단추 하나를 뜯어버렸을지도 모르죠. 만약 그게 제 잘못에 대한 심판이라면 모를까, 애초에 제가 맨더스 씨에게 제 속내를 들켜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저를 폭로해 버리시면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 가혹했다. 예전에도 똑같은 일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건 명백히 불공평한 처사였다. 나의 이 지긋지긋한 충성

심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곧장 그것을 하나 집어 들었다.

“로즈 경기장에서 당신의 정체를 완전히 들켰었지.” 내가 쾌활하게 말했다. “그때 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었잖아.”

"래플스 씨에게도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무심결에 튀어나온 그 말투에는 아쉬움마저 서려 있었다.

“한 마디도 안 했네.” 내가 대답했다. “래플스는 당신이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내가 그에게 경고해주길 당신이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벨사이즈 양은 화려한 눈동자에 갈등을 가득 담은 채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무언가가 그녀를 이겼다. 아마도 자존심이었으리라.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에게는 이 일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해서는 안 돼요." 그녀가 처음과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늘 변함없이 당신을 믿겠지만, 이번에 당신을 온전히 믿지 못한 점은 부디 용서해 주길 바라요."

"벨사이즈 양, 당신이 저 귀여운 래플스를 싫어하는 것만 빼면, 다른 건 무엇이든 다 용서해 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아주 간곡하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내가 핵심을 짚어 말하려던 찰나, 그녀는 내 손을 슬며시 거두어 갔다.

"그가 싫은 건 아니에요." 그녀가 묘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러더니 한층 더 기묘한 힘을 실어 덧붙였다. "그렇다고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때조차 나는 도대체 어떤 동사가 쓰여야 했을지 알 수 없었다. 벨 사이즈 양이 왜 결국 그렇게 서둘러 고개를 돌렸는지, 그리고 왜 눈길을 그보다 더 빠르게 거두어버렸는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역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눈동자를 보며 그녀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 이상의 생각은 단 한 뼘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니 그 일로 동정표를 얻을 생각은 없다. 만약 동정이 필요했다면, 지난 7월의 그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승강장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나는 다른 누군가를 보았고, 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으니까.

문제는 내가 승강장을 잘못 찾아갔다는 점이다. 육교를 건너려던 찰나, 하행 열차가 덜컹거리며 들어왔다. 열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내가 얼굴을 익힌 한 남자가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 남자는 매켄지 경위였다. 밀치스터 애비에서 만났던, 도무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고집 센 스코틀랜드 출신 형사였다. 나는 그가 그때부터 줄곧 래플스를 감시해 왔으리라 생각했다. 열차가 승강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그는 이미 플랫폼 건너편에 가 있었다. 나는 래플스라면 내 처지에서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며, 그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강가에 있는 댄 레비네 집 알지?" 그가 마부에게 일부러 말을 늘어뜨리며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거기로 좀 달려줘, 이 사람아! 악마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야!"

제18장

죄인의 죽음

나는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인가? 래플스라면 어떻게 했을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매켄지 경위보다 한발 앞서 고리대금업자를 덮쳤을 것이다. 아마도 마차를 앞지르기 위해 직접 뛰었을 테고, 댄 레비에게는 차라리 형사를 불러 나를 고발해 보라고 당당히 맞섰을 것이다. 그가 이 상황을 얼마나 즐겁게 이끌며, 특유의 솜씨로 승리를 쟁취해낼지 눈앞에 선했다.

하지만 나는 래플스가 아니었다. 게다가 나는 이미 올버니에 있는 그의 숙소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벨사이즈 양과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모양이다. 역 시계를 보니 벌써 일곱 시가 다 되어가고 있어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결국 나는 상행선 첫차를 간신히 잡아탔다. 여덟 시가 되기 전에 워털루 역에 도착했지만, 올버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 시간이나 늦은 뒤였다. 래플스는 창가에서 셔츠 차림으로 나타나, 내가 늦었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일깨워 주었다.

"버니,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어!" 래플스는 마치 내가 정말 죽었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직이 중얼거렸다. 나는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 올라가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매켄지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벌써?” 래플스가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말했다. “뭐, 다행이군. 다시 그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래플스가 옷을 갈아입긴 했지만, 정작 외출 채비를 하는 중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숨 가쁘게 몰두해 있던 터라 그 사실이 꽤나 의외였다. 하지만 접이식 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침실을 슬쩍 훑어보니 곧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침대 위에는 옷가지와 열려 있는 여행용 가방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끈이 팽팽하게 조여진 글래드스톤 백은 내용물이 가득 차 불룩하게 솟아 있었고, 말아 올릴 준비를 마친 여행용 담요도 놓여 있었다. 래플스 본인도 여행용 트위드 차림이라, 평소의 다부진 모습과 달리 운동을 쉰 사람처럼 다소 풀어져 보였다.

"떠나신다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외쳤다.

“당연하지!” 그가 스모킹 재킷을 접으며 대답했다. “자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군.”

"하지만 당신은 미처 알기도 전부터 짐을 싸고 있었잖아요!"

“제발 부탁이니 당신도 가서 똑같이 하란 말이야!” 그가 외쳤다. “지금은 묻지 마. 우리 둘 몫까지 챙기려던 참이었는데, 지금 당장 한섬 택시를 잡아타면 당신 셔츠랑 칼라 정도는 직접 챙길 시간이 있을 거야. 티켓은 내가 챙길 테니, 아홉 시 5분 전까지 승강장에서 만나자고.”

"몇 번 승강장인가, 래플스?"

"채링 크로스 역이야. 대륙행 열차를 타야 해."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원한다면 호주도 좋네! 유럽을 가로질러 달아나는 길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지."

"도망이라니!" 내가 되물었다. "래플스, 내가 자네를 떠난 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봐, 버니, 가서 짐이나 싸!"

문 쪽으로 사정없이 떠밀려 가는 내게, 험악한 얼굴에서 돌아온 대답은 그게 전부였다.

"자네, 한 시간 전에는 도착했어야 했다는 걸 알고는 있나? 내가 자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라도 했나? 그러니 대답할 시간도 없는데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말게. 기차 안에서 전부 다 말해줄 테니까, 버니."

그가 마지막에 다른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준 것, 그리고 내가 방을 나설 때 잠시 내 어깨에 손을 얹어준 것. 그뿐이었다. 그가 보여준 정말이지 공포스러운 행동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위안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채링 크로스 역에서 밤차를 타고 정말로 떠나기 전까지, 나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도 바로 그것이었다.

다행히도 그때쯤 래플스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전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추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뒤로 멀어지는 엠뱅크먼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안도하는 기색일 뿐이었다.

그가 했던 말 중 하나가 기억난다. 다 따져보면 저 불빛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라고 말하더니, 이어서 빅벤은 런던의 불빛들 중에서도 단연 코이누르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내가 겨우 끼니를 때우려 애쓰던 종이봉투를 향해 의아한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꾸짖는 듯하면서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말문이 막힌 척하며, 사실은 시내로 서둘러 올라오는 대신 강변의 어느 선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다 매켄지 경위와 마주치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어 술이 깨버렸다고 말이다.

“가엾은 버니! 더는 이 일을 파헤치지 말자고. 하지만 일곱 시에서 여덟 시 사이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야 했는지는 나도 잘 알아. 내 평생 주문한 저녁 식사 중 가장 근사한 만찬이었거든.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을 한 입도 못 먹고 나타나지도 못했다니, 정말 아쉽지 않니!”

"당신은 드셨죠?" 내가 되물었다. 래플스가 고개를 가로젓자, 죄책감은 이내 깊은 후회로 바뀌어 나를 짓눌렀다.

“걱정 마, 버니! 네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나타났을 때 내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굴었던 건 다 그 때문이었다고.”

나는 울며 불며 래플스에게 제발 종이봉투에 든 음식 좀 나눠 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하지만 래플스는 요지부동이었다. 그가 주문한 진수성찬을 샌드위치나 삶은 달걀 따위로 대신하느니, 차라리 한 끼 정도는 건강하게 굶는 편이 나을 정도였다. 무엇을 놓쳤는지 모르는 나로서는 그저 속만 쓰릴 뿐이었다. 래플스의 말에 따르면 딱히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저 영국 땅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라는 생각에, 그의 입맛보다는 내 입맛에 더 어울릴 법한 가벼운 저녁 식사를 즐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의 말과 그 말투는 나를 사건의 본질로 이끌었다. 거품처럼 가벼운 말들 이면에는, 삶이라는 와인이 그에게는 쓰디쓰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올버니에서 그가 보여준 짜증 섞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경박한 즐거움 또한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지 못했다. 그 비극적인 탑에서 우리가 헤어진 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내 소식도 없이 이토록 무모한 도주를 감행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대체 어디로 도망치려는 것인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첫 질문에 래플스가 대답했지만, 전혀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었다.

"노래 가사처럼 말이야. 불쌍한 샤일록을 친구와 친척들에게 돌려보내고 나면, 우리도 지체 없이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서 그랬지."

"하지만 그에게 서명받을 다른 서류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정말 그랬어, 버니."

"그게 뭐였는데?"

"그가 나를 시켜서 하라고 했던 일들, 그리고 그 대가로 내게 준 것들을 전부 솔직하게 적은 거야." 래플스가 마지막 남은 편안한 담배를 꺼내 술리번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내가 훔친 편지를 그가 파기한 것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지."

"그가 직접 거기에 서명까지 했단 말인가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우겼지."

"그렇다면 우린 보호받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도 도망치듯 달아나겠다는 말입니까?"

헤른 힐 역의 밝은 승강장 사이를 열차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동안, 래플스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버니, 저렇게 영악한 놈을 피할 방법은 없어. 그놈을 저세상으로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 사이에 이 세상의 거대한 장벽을 세워두지 않는 한 말이야. 지난 24시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지도 몰라.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놈이 매켄지 경위를 붙여 우리를 밤낮으로 감시하지 못할 거라는 뜻은 아니야.

우리는 감시당하면서까지 여기 머물 생각은 없어. 기분 전환도 할 겸, 세계 일주를 떠날 거야. 멀리 가기도 전에 그 샤일록 같은 놈이 제

꾀에 제가 넘어갈지도 모르지. 내 말을 믿어봐, 그 저주받을 편지가 그 놈을 궁지로 몰아넣을 유일한 증거는 아닐 테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광의 구름을 휘감고, 설리번의 구름을 내뿜으며 당당하게 돌아올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의 '세컨드 노세(secondes noces)'를 치르는 거지. 버니, 이건 두 번째 한 방을 날린다는 뜻이야. 그때가 오면 우리 팔뚝에 힘이 제대로 실리겠지!"

하지만 나는 납득할 수 없었다. 이 갑작스러운 충동과 상상도 못 할 만큼 신속한 실행 뒤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왜 그는 이 계획을 내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다. 나 스스로도 인정했듯, 레비 은행에서의 오전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애초에 계획조차 없었으니까. 하지만 래플스는 내가 만약 7시에 맞춰 나타나기만 했더라면 진작 말해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멀리 떠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애쓰며, 짐을 챙길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대우는 유치한 짓이었고,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뭐, 익숙한 일이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래플스가 나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댄 레비 말고도 무언가, 혹은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피하고 있는 듯했다. 결국 그는 내가 맞았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가 시팅본과 페버샴을 급히 지나치기도 전에, 나는 A. J. 래플스에 대해 예상했던 마지막 진실 하나를 마침내 알아내고 말았다.

"버니, 자네 정말 끈질기게 캐묻는군!"

그가 방금 집어 들었던 저녁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번 일이 나에게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걸 모르겠나? 나는 내가 꽤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왔단 말이야. 그들의 싸움은 그 어떤 내 일보다도 나를 몹시 초조하게 만들었어.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니,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감사 인사를 받는 게 겁이 날 정도라네.”

그것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다. 하지만 래플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나는 그것이 진실임을 직감했다. 1등석 객실은 당연히 우리 차지였고, 환한 조명 아래 래플스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부드러움이 감돌았다. 결연한 의지는 여전했으나, 그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 서려 있었다. A. J. 래플스에게서 후회라는 감정을 찾아보기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기에 더욱 그랬다.

"내 생각엔 말이야," 내가 말했다. "불쌍한 늙은 가랜드가 벌써 자네한테 꽤나 호된 맛을 보여준 것 같은데, 안 그래?"

"맞아, 버니. 정말 그렇더라고."

"그럴 만도 하지. 테디와 카밀라 벨사이즈도 당연히 그럴 테고!"

"하지만 그놈들에게서 그걸 받아낼 수는 없었어." 래플스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테디는 당연히 없었지. 요즘 팀이 리버풀을 상대로 치르는 그 형편없는 경기를 보러 북부로 올라갔거든. 뭐, 경기가 시시하게 끝나가고 있으니 내일이면 돌아오겠지만, 테디와 그의 카밀라를 마주할 용기가 도저히 안 나네. 우리가 다시 만날 때쯤이면 테디

는 이미 유부남이 되어 있을 거야." 래플스는 다시 저녁 신문을 집어 들며 덧붙였다.

"벌써 그렇게 빨리 이뤄지는 건가요?"

"빠를수록 좋지." 래플스가 묘한 말투로 말했다.

“별로 달갑지 않은 모양이네.”

내가 말했다. 눈치 없게 들렸을 거라는 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물었다. 이 결혼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는 언제나 나를 의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래플스가 대답했다. 스스로의 훌륭한 인품에 감탄이라도 한 듯, 그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다만 내 소원은, 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정말로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안 그래."

"그 어린 가랜드 군을 그렇게나 높게 평가하는 건가?"

"난 그 사람이 정말 좋아, 버니."

"하지만 그 사람의 결점도 알고 계신 건가요?"

"늘 봐왔지만, 그 결점들이 내 것만큼 깊디깊지는 않더라고!"

"그럼에도 그 여자가 그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충분하지 않다고? 그 여자가?”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다. 굳이 말로 내뱉지 않은 그 반전의 의미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하게 다가왔다.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다. “도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서 한 거야?”

"그건 네 생각인 줄 알았어, A. J."

“하지만 왜죠?”

"자네는 처음부터 그 약혼을 못마땅해하는 눈치더군."

"불쌍한 테디가 막다른 길에 몰려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해두지. 버니, 우리 친구 사이라면 이 정도는 괜찮은 일이겠지만, 카밀라 벨사이즈와 결혼을 꿈꾸던 그 남자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

"그렇다고 해도, 결국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게 하려고 당신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았소!"

래플스는 다시 신문을 읽으려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어째서 내가 묻는 말에 일일이 대답하며 심문하듯 몰아붙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하지만 당시 나는 막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 참이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고 싶은 갈증이 간절했다. 반면 래플스는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 만큼 절박해 보이지는 않았다.

“테디는 괜찮을 거야.” 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내뱉었다. “다시는 그런 짓을 꿈도 못 꿀 거야. 이번에 아주 뼈저린 교훈을 얻었으니까. 게다가 나도 알다시피, 한 번 시작한 일은 좀처럼 손을 놓는 법이 없거든. 버니, 그 둘을 연결해 준 건 바로 나였어. 하지만 그 관계를 다시 갈라놓는 건 내 소관이 아니었지.”

"그들을 만나게 한 게 바로 당신이었나요?" 나는 은밀하게 되물었다.

"대충 그랬어, 버니. 아마 크리켓 시즌 중이었을 거야. 2주 연속으로 경기가 열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은 이미 절친한 사이였지만, 나랑 그 여자는 첫 주가 끝나기도 전에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됐거든."

"그런데도 그를 내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이보게, 버니.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그럴 수도 있었잖아, A. J.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해냈을 텐데, 못했다고는 말하지 마.”

래플스는 대답 대신 신문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결코 경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답지 않은 겸손을 꾸며내는 성미도 아니었다.

“이기든 지든, 테디가 있든 없든, 그건 게임의 본질이 아니었어, 버니. 하지만 말이야.” 그는 사색에 잠긴 듯 솔직하게 덧붙였다. “우린 마치 불이 난 세미디태치드 주택처럼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었지! 솔직히 말하건대, 나도 손가락을 데었어. 만약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었

다면, 버니, 나도 열 손가락에 온 힘을 다 실어서, 전부를 걸고 승부를 보려 했을지도 몰라. 다 얻거나, 아니면 다 잃거나 말이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신문을 거꾸로 들여다보고 있기에,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니, 버니!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가 외쳤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저 대수롭지 않게 짜증을 내는 정도에 불과했다.

"내가 만난 여자 중 유일한 사람이야." 나는 나도 모르게 말을 이었다. "마음 쓰는 방식도, 용기도, 기질도, 너와 꼭 닮은 동료 같은 여자 말이야!"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지?" 래플스가 소리쳤다. 그는 방심한 나머지 내 죄책감이 서린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그만큼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 본 적은 없다.

"지난 목요일, 빗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많이 지켜봤는지 잊었나 보군."

"그때 내 이야기도 했어?"

"조금요."

"버니, 그녀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있던가?"

"글쎄요, 네, 조금은요!"

래플스는 초연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과, 설령 운이 나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대담함이 섞인 미소였다.

"끝까지, 버니. 내 말은 아주 끝까지 저질렀다는 거야. 그녀를 위해서 한 일이야. 어렵지도 않았고,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만 했던 일이었어. 어차피 조만간 그녀를 완전히 차단해야 했을 테니, 빠를수록 좋았지. 사람들은 말이야, 한 번 속이고, 한 번 춤을 거절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실망을 안겨주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절대로 기회를 주지 않는 법이라고! 그녀가 나한테 편지를 쓰게 만들어 놓고는, 정작 나는 답장 한 번 안 했어. 이런 기사도 정신 투철한 돼지 같은 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해외로 떠나기 전에 들르겠다고 말해놓고는, 못 가게 되어 미안하다는 전보 한 통이 전부였단 말이야. 그렇다고 다른 상황이 됐어도 다 괜찮았을 거라는 건 아냐. 하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 테디에게는 모든 게 다 괜찮게 돌아가고 있었잖아! 원래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지. 지난주 초에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어. 하지만 버니, 그 늙은 샤일록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폭로하려 들었을 때는 그녀도 눈길을 주더군. 그녀는 그 노인을 보았고, 나를 보았어. 나는 그녀가 그 노인을 바라보던 눈빛 하나와, 결코 나에게 보여줄 의도가 아니었던 또 다른 눈빛 하나를 내 이 불한당 같은 심장 속에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어!"

좁은 칸막이 너머로 보이는 래플스의 표정은 어두워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나 목소리에는 장난기라곤 전혀 없었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 즉 그녀가 내게 했던 말과 그가 무심결에 해석해 버린 그 모든 진실을 그에게 털어놓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나도 확신하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녀와 약속했다. 그 약속은 두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약속 그 자체의 무게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

"두 사람, 정말 천생연분이구먼!"

내가 한 말은 그게 전부였고, 래플스는 그저 웃기만 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며 줄행랑쳐야 한다는 거야, 버니.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기기 전에 말이지."

마침내 그는 신문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펼쳐 들었다. 기차는 불꽃을 튀기며 선로를 따라 쉴 새 없이 달려 나갔고, 창밖으로는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이제 도버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분위기를 띄워보려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한마디 던졌다. 래플스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속보란에 실린 경기 종료 점수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꽤 진지하게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어쩌면 점수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여전히 카밀라 벨사이즈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용기 있고 빛나는 눈동자가,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눈빛을 보냈던 순간을 말이다. 그러다 문득, 나는 등불 아래에서 그의 이마가 하얗게 번들거리며 땀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야, 래플스? 왜 그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뒤집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앞으로 툭 내밀었다. 그러고는 최신 뉴스 중 인쇄 상태가 불량한 네다섯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순간, 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추듯 다가온 기사는 바로 이것이었다.

유명 고리대금업자의 비극적인 죽음

금융가 다니엘 레비 씨가 오늘 오후 5시 30분경, 템스 밸리에 위치한 자택 정문 앞에서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범인은 현장에서 유유히 도주했다.

나는 소스라치게 창백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버니, 내가 그를 떠날 때는 다섯 시 반이었어!"

"당신이 그를 버려두고 온 거잖아——"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름 끼치는 얼굴을 마주한 순간, 나는 그보다 더 끔찍한 생각 하나를 떠올리고 말았다.

“자네만큼이나 멀쩡히 살아 있었지, 버니!” 래플스가 내 말을 가로채며 말을 마쳤다. “내가 설마 그를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죽게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 나는 그 생각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 의구심은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다.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를 뻔했다면, 똑같은 상황에 처한 래플

스는 어떠했겠는가? 게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급박한 도주 역시, 그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었다. 준비할 시간조차 없이 서둘러 도망쳐야 했던 상황 말이다.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졌다. 단 하나, 카밀라 벨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보여준 래플스의 얼굴과 목소리만 제외하면 말이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는 그녀를 영영 잃었다고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분명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는 상실감에 젖어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래플스의 얼굴과 목소리 역시, 이제는 쫓기는 자 특유의 광기 어린 흥분이 조금도 빠짐없이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A. J., 자네 그 집 대문 앞에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가?"

"그를 집까지 데려다줬어. 가는 길이었거든. 안 될 거라도 있나?"

"그럼, 그를 다섯 시 반에 두고 나왔다는 말입니까?"

"맹세해. 기차 시간을 확인하려고 시계를 봤는데, 내 시계는 아주 정확하다고."

"계속 가시는 동안 총성 같은 건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 서두르고 있었어. 거의 뛰다시피 했다고. 내가 뛰는 걸 분명 누군가 봤을 거야! 이제 난 ‘찰리의 고모’ 신세가 된 셈이지.” 그는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놈들이 내 다리를 붙잡을 때까지는 끝까지 버텨볼 수밖에. 이제 매켄지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겠지? 그 노련한 사냥개 놈이 벌써 내 뒤를 쫓고 있을지도 몰라.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어.”

"결백한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나처럼 결백함이 의심스러운 놈한테는 안 돼, 버니! 지난 24시간 동안 우리가 불쌍한 레비에게 저지른 짓들을 좀 생각해 보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보기에도 그는 스스로 모든 기억을 더듬고 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 서린 인간적인 연민만 보았더라도, 나의 비열한 의구심은 충분히 해소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참회하는 기색도 서려 있었다. 래플스에게서 그런 기색을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더욱 드문 것은 공포에 가까운 경악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내가 친구를 겪어온 세월을 통틀어 전례가 없는 것이었으며, 내가 알고 있는 그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사이로, 그는 이 낯선 감각들을 의식적으로 즐기는 듯한 기색을 내비쳤다. 공포라는 새로움에서 오는 짜릿한 즐거움 말이다. 나는 그것이 래플스다운 아주 특징적인 모습임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그 모습은 그가 하는 이야기와도, 혹은 나의 비열한 두려움과도 동시에 어울리는 기묘한 것이었다.

“그 일은 아무도 알 필요 없어요.”

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이미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즉 래플스만 입을 다문다면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그 가냘픈 자신감과 희망의 불씨를 단번에 꺼뜨려 버렸다.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거야, 버니. 사람들이 그가 죽기 전 마지막 몇 시간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그 처음 5분간의 기록에서 묘하게 발을 멈추겠지. 그다음엔 내가 현장에서 급히 도망쳤다고 묘사될 테고, 그다음엔 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밝혀지겠지. 그러고 나면 내가 나라를 탈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날 거야! 그다음엔 칼스바드가 나오고, 그다음엔 그와 처음 싸웠던 일, 그리고 어제의 그 거액 수표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엮이겠지. 내 덩치 큰 대역이 은행에서 신분을 도용당했다는 사실도 밝혀질 테고 말이야. 모든 게 조금씩, 하나둘씩 다 드러날 거라고. 만약 내가 붙잡히기라도 하면, 그건 살인 혐의로 올드 베일리 법정의 그 칙칙한 피고인석에 앉게 된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내가 돕겠네." 내가 말했다. "사건 전후로 자네의 공범이 되어주겠다는 뜻이야.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안 돼, 안 돼, 버니! 넌 나를 따돌리고 얼른 시내로 돌아가야 해. 배가 도버 시내를 지나며 속도를 줄일 때 내가 슬쩍 내려줄 테니까, 넌 그 길로 로드 워든 여관에 가서 하룻밤 묵도록 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몸을 숨기기에는 그런 공공장소가 딱이야, 버니. 내가 없더라도 내가 일러준 규칙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나를 두고 혼자 갈 생각은 마, A. J."

"설령 내가 그랬다 해도, 버니, 안 될까?"

"아니,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되지!"

래플스가 몸을 기울여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가 번뜩였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다정한 빛도 서려 있었다.

"자네가 분명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겼을 텐데, 차라리 내가 정말 그런 인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드는군." 래플스가 말했다. "자네가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는 걸 보니 말이야!"

그는 감상에 젖어 있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기까지 했다. 우리가 시골 역을 덜컹거리며 지나가던 참이었다. "그나저나 이제 슬슬 도버의 불빛이 보일 때가 됐는데 말이야."

플랫폼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창백해진 그의 얼굴이 내 눈을 빤히 응시했다. 평소와는 다른 그의 눈동자 속에는 마치 바다 위에서 타오르는 청색등처럼, 진정한 공포가 번뜩이고 있었다.

"세상에, 버니!" 래플스가 외쳤다. "도버가 내가 갈 수 있는 마지막일 것만 같아!"

"왜 그래?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두 칸이나 떨어진 저 칸에서 머리가 쑥 나와 있다니!"

"매켄지 경위의 것인가?"

"그렇고말고!"

그의 얼굴에서 이미 읽어낸 바 있었다.

"벌써 우리를 뒤쫓아온 건가?"

"그야 모르지! 꼭 그렇지는 않을 거야. 큰 살인 사건이라도 터지면 항구들은 다 감시하니까."

"스코틀랜드 야드의 거들먹거리는 형사들 말인가?"

래플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었다. 그는 벌써 주머니를 뒤집어 내용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 와중에 의자 위에 서는 가짜 수염 하나가 데굴데굴 굴러떨어졌다.

"그건 네 거야." 내가 그것을 집어 들자 그가 말했다. "마저 발라줄게." 그는 직사각형 거울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쿠션에 몸을 기댄 채 한창 자신을 단장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자가 쫓는 냄새가 있다 한들 아주 진한 냄새일 거야, 버니. 바로 이 기차, 이 객차까지 따라붙은 걸 보면 말이지! 하지만 처음 봤을 때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 아직 그자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그리 많지는 않을 테니까. 본국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저 우리 뒤를 밟기만 하는 거라면, 아주 손쉽게 따돌릴 수 있을 거야."

"그가 당신을 봤을 것 같습니까?"

"밖을 보고 있었냐고? 아니, 다행히도 그는 도버 쪽을 보고 있었어."

"하지만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이었나요?"

"아니, 버니. 캐넌 스트리트 역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가 배에 올라타지 않은 것 같아. 거기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던 게 기억나거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쪽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지!"

이제 블라인드는 모두 내려져 있었지만, 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미 건널목을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다. 역 입구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지나가는 우리를 보며 감탄 섞인 눈길을 보냈다. 래플스와 나는 동시에 거울에서 눈을 떼었다. 래플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내 눈에도, 거울 속의 남자는 평범한 래플스가 아니었다. 그 시절,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런던 사교계의 모든 이가 주목하던 또 다른 고결한 악동이 거기 있었다.

"익명으로 변장하는 것보다 훨씬 낫군." 래플스가 휴대용 화장 상자를 꺼내더니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내 얼굴을 만지기 시작하며 말했다. "난 항상 그 사람과 꽤 닮았거든. 어제 은행에서 그 모습으로 시험해 봤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어. 그러니 오늘 밤에도 분명히 통할 거야. 버니, 자네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수염을 턱 밑에 잔뜩 늘어뜨리면 가난한 친척이나 질 나쁜 채무자처럼 보일 수 있을 거네. 자, 이제 준비는 끝났네, 친구. 이제 스코틀랜드 야드의 매켄지 경위를 상대하러 가보자고!"

부두 승강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은 바로 그 수척한 형사였다. 뼈마디가 굵고 몸집이 뻣뻣한 그는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듯 보였다. 그는 열차가 멈추기도 전에 이미 플랫폼으로 뛰어 내려온 모양이었다. 마침 그곳에는 텔레그램을 전달하러 온 체구가 작은 소년

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형사는 한쪽 눈으로는 전보를 읽으면서도 다른 쪽 눈으로는 내리는 승객들을 살피느라 소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우리가 그를 못 본 체 지나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시도라도 해 볼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래플스는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는 쪽을 택했다. 그는 매켄지 경위에게 기분 좋은 목례를 건네며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하십니까, 경!" 스코틀랜드 남자가 영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알 것 같군.” 래플스가 말했다. 그는 법의 눈을 코앞에 두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설리번을 아주 대놓고 꺼내 보였다.

"정말입니까?" 상대방이 물었다. 그러면서도 공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방금 전의 거절을 부드럽게 무마하려 애썼다.

“그리고 내가 불쌍한 댄 레비의 살인범과 자네 사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지.”

매켄지 경위가 래플스의 뒤를 따라 나서는 것을 보고 내가 경악하자, 경위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그저 래플스에게 전보를 보여주려던 것뿐이었다. 그는 우리를 따라 배에 올라타지는 않았다.

우리의 변장 도구들은 얼굴과 함께 해협을 건너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떠나버린 깊은 밤, 갑판 위에서 래플스는 내게 수염을 벗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저 외투 안쪽으로 수염을 밀어 넣어 단추를 채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요령이었다. 그사이 래플스 자신의 콧수염과 턱수염도 조심스럽게 자취를 감기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 내게 털어놓았다. 내가 끈질기게 캐묻지 않았다면 결코 말해주지 않았을 이야기였다.

"버니, 자네가 칼레에서 곧장 되돌아가고 싶어 할까 봐 그게 걱정이라네!"

"아뇨,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나랑 같이 세계 일주를 떠나보겠나?”

"끝까지 가보는 거야, A. J.!"

"내가 아직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이제는 알겠지?"

"그래, 알고 있어. 이제 매켄지가 네게 뭐라고 했는지 말해 봐."

“그가 보내온 전보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 래플스가 말했다. “댄 레비를 죽인 범인이 경찰에 자수했다는 내용이었지!”

내 입에선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만약 훨씬 더 경건한 이들이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도, 아마 나만큼이나 거침없이 욕을 내뱉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네가 나를 의심하지만 않았어도, 진작에 다 말해줬을 텐데."

“의심한 게 아니야, 래플스. 그저 막연한 두려움이었을 뿐이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실을 믿지도 않았어. 그러니 이제 제발 말해 줘.”

래플스는 부서진 설리번의 붉은 끝단이 바다와 별들 사이를 가로질러 바람이 부는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 불쌍하고 운 없는 이방인이 문제였어. 그날 아침 저민 스트리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젯밤에도 그의 집 정원 문 근처에서 다시 나타났지. 결국 그놈은 거기서 잡힌 거야. 하지만 버니, 이건 총격 사건이 전혀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아무 소식도 못 들었던 거고. 이건 라틴 민족의 유구한 전통을 아주 잘 따르는, 아주 전형적인 칼부림 사건이었거든."

"신께서 저 불쌍한 두 놈을 모두 용서하시길!" 내가 마침내 내뱉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있지." 래플스가 말했다. "그들은 용서받아야 할 죄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니까."

제19장

변명(辨明)

지난해 중에서도 최악이었던 어느 날이었다. 바로 이튼과 해로의 경기가 열리던 첫날이었다. 나는 저민 스트리트에 있는 해먼식 목욕탕으로 발길을 돌렸다. 비에 젖은 구두를 신고는 더 이상 어느 클럽에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곳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다. 밖에서 대기하던 가짜 보석을 두른 동양인 녀석이 내 구두를 가져가 버린 탓에, 나는 양말 한쪽이 뚫렸다는 사실을 불쾌하게 의식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비를 피해 도망쳐 온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욕탕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여 무척 불편할 정도였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위층 구석진 곳에서 마음에 드는 소파를 하나 찾아냈다. 선택지는 여러 곳이었지만, 내 과거가 어떠했든 터키식 목욕탕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는 이들에 대해서만큼은 까다로운 편이다. 나는 내 옷을 어디에 걸어둘지 신중히 살핀 끝에, 방금 걸어둔 듯한 새 모닝코트와 내 것보다 주름이 훨씬 선명한 바지 바로 맞은편에 내 옷을 걸었다.

하지만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마주친 그 우연은 그만큼이나 놀라웠다.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해가는 과정에서, 나는 낯익은 붉은 안색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을 뿐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근시가 찾아왔고 비

만도 시작된 데다, 열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는 안경마저 코끝에서 자꾸 미끄러지곤 했다. 그래서 디반에 몸을 푹 파묻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내 맞은편에 앉아 근사한 옷을 차려입은, 얼굴이 훤칠하고 생기 넘치는 그 남자가 바로 E. M. 갈랜드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의 황갈색 콧수염은 태양신 포이보스의 모습과는 달리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했으나, 매끈하게 면도한 턱과 턱끝에는 은은한 금빛 기운이 감돌았다. 지적이지는 않아도 그만큼 잘생긴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호박색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고, 위켓키퍼 특유의 크고 강인한 손은 예상외로 정겨운 느낌을 주었다. 테디 역시 뒤늦게 그를 알아보고는 눈을 빛냈다.

그는 망설임이나 거리낌 없이 래플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나와 내가 쓴 래플스 관련 글들에 대해서도 마치 그 무엇 하나 결함이 없다는 듯이 말했다. 심지어 그 경건한 기록물들에 대해 아주 흡족할 만큼 해박한 지식까지 뽐내면서 말이다.

"물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건 아니에요." 테디 갈랜드가 말했다. "두 분이 그 정도로 악랄한 악당이라는 건 도저히 믿기지 않거든요. 밧줄을 타고 기어오르거나 부엌 창문으로 몸을 구겨 넣는 모습은 상상조차 안 가요. 설령 그게 재미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해도 말이죠!" 그는 뒤늦게 눈치를 보며 덧붙였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믿기 힘든 일이다. 마흔 살에 살이 좀 찐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테디 갈랜드가 아주 멋지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딱 맞았다.

"자, 이제 말이야." 그가 말을 이었다. "그저 래플스와 댄 레비 사이의 그 싸움 이야기만 들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A. J. 래플스가 나랑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치러냈던 그 처절한 혈투 말이야.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똑똑히 알 수 있게 말이지!"

"아마도 그때 우리 모두가 어떤 부류의 인간들이었는지 보여줘야 했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모범적일 만큼 정중하게 말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하지만 테디는 한동안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운동선수들에게도 나름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존심을 억누르고 의연하게 대처했다.

"맨더스," 그가 디반에서 일어나 내 디반 가장자리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그 결투에 대해, 그리고 래플스가 우리 모두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해준다면, 자네가 나나 내 명예를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떠벌리고 다녀도 좋네. 내 기꺼이 허락하지."

"어쩌면 그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냈을지도 모릅니다."

"전부 다 집어넣어."

"생각보다 훨씬 긴 결투였네. 그는 그걸 게릴라식 결투라고 부르기도 했지."

"그럼 아예 책으로 내버려."

"하지만 그 영감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쓸 말도 없어요."

"맙소사, 그럼 내가 직접 써버리고 말겠어!"

그것은 무시무시한 협박이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그럴 만한 자료가 없었기에,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그걸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덧붙였지만, 그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노골적으로 믿지 않는 기색이었다. "비가 내렸던 경기 첫날,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난 모릅니다." 내가 말했다.

갈랜드는 막 미소를 지으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내 말이 던진 뜻밖의 충격이 그에게 전달되자,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A. J.가 당신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쳤다.

"아니, 그는 자네를 밀고하지 않을 거야."

"그의 친구인 자네에게조차 말인가?"

"아니요. 당연히 궁금해서 물어봤죠. 하지만 그는 말해주길 거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야!” 테디가 속삭였다. 그 다정한 열정 어린 모습에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료로서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 자, 맨더스, 자네가 이 모든 걸 기록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쓸 수밖에 없겠군. 그러니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말해두는 게 좋겠어.”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군요."

동행은 멈췄던 미소를 다시 지어 보였다. 그는 내 얼굴을 내려다보며 넌지시 물었다. "자네라면 도저히 짐작조차 못 할 것 같은데, 어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군요."

"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은 없을걸.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방금 전까지 내가 앉아 있던 바로 이 소파에서 그날을 보냈으니까!"

맞은편에 놓인 줄무늬 디반을 바라보았다. 내 자리에 앉아 있는 테디 갈랜드를 보았다. 그의 미소에는 지나간 수치심의 잔재가 남아 있어 약간 비뚤어져 있었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는 서둘러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먹었던 그 약 기억나? 소노물이었나 그랬을 거야.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권할 만한 위험한 약이었지. 그래도 잠을 아예 못 자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A. J.의 판단이 옳았어. 정말 그랬을 거야.” 테디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난 로즈 경기장까지 가긴 했어야 했어! 그 빌어먹을 약 덕분에 잠들긴 했지만, 너무 금방 깨버렸거든! 네 시가 되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옆방에서 너희 둘이 나누는 대화 소리도 들렸어. 그러고 나니 모든 기억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 그 찰나의 기억만 아니었어도 난 다시 잠들었을 거야. 하지만

맨더스, 내가 기억해내야 했던 것들을 전부 떠올려 본다면, 내가 남은 밤 내내 미친 사람처럼 잠 못 이루고 뒤척인 것도 이해가 될 거야. 머리는 잠에 취해 몽롱했지만, 심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었으니까."

"나도 겪어본 일이야." 내가 짧게 대답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자살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낮에 두 분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래플스가 들어왔을 때는 자는 척을 했고, 두 분이 나가자마자 5분 만에 옷을 챙겨 입고 살금살금 빠져나왔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대체 무엇에 홀려 이 거리까지 내려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아마 댄 레비에게 진 빚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는 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정신을 차려보니 이 건물 맞은편이었다는 것뿐입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왔고, 목욕이라도 하면 정신이 좀 들지 않을까, 설령 더 나빠지더라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문득 A. J.가 예전에 목욕을 한 번 하고 나서 위켓 여섯 개를 잡았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왔죠.

목욕을 마치고 온실에서 차와 토스트를 좀 먹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나중에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때까진 시간도 충분하고 로즈 경기장에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크리켓에 대한 열정만 다 타버리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 저기 누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몸에서 다 타버리지 않고 남은 건 그 지독한 약물이었습니다. 그놈이 부메랑처럼 다시 저를 덮친 겁니다. 잠시 눈을 붙였을 뿐인데, 깨어나 보니 이미 오후가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테디는 말을 하던 중 갑자기 멈춰 섰다.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마치 도시의 부랑자 같은 사내를 불러 세워 위스키 소다를 주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는 몸에 수건만 두른 채, 담배와 성냥을 찾으려고 비틀거리며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 뒤로 이어진 말들은 앞뒤가 맞지 않고 횡설수설하기 일쑤였다.

"그때는 정말 면도칼을 휘두를지, 아니면 산탄총을 쏠지 고민될 정도로 정신이 없었소! 비가 오는지도 전혀 몰랐다니까요. 저 색유리 천장을 한번 보시오. 지금 비가 오는지 아닌지 도통 알 수가 없지 않소? 그 위에는 또 다른 형태의 해치(hatchway)가 달려 있거든. 게다가 저 분수가 끊임없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니, 빗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소. 안 그렇소?

세 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나는 거의 네 시가 다 될 때까지 누워 내 운명을 저주하며 시간을 보냈소. 딱히 서두를 일도 없었으니까 말이오. 그러다 문득 신문에서 내 소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지 궁금해지더군. 내 대신 누가 경기에 뛰고 있는지, 누가 토스를 이겼는지 같은 것들 말이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신문을 한 부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세상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시오? '로즈 경기장 경기 취소'—그리고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진 나의 가련한 아버님’이라니! 맨더스, 그 뒤의 이야기는 자네도 잘 알지 않소. 그로부터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우리가 만났으니까 말이오.”

“그때 자네 모습이 정말 건강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 내가 말했다. “물론 목욕을 한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푹 자고 일어난 영향도 있겠지.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자게 내버려 뒀는지 모르겠군.”

"그 사람들이 내가 뭘 하고 다녔는지 어떻게 알았겠어?" 테디가 말했다. "일주일 내내 한숨도 못 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 사람들 도리였지. 그런데 비가 내려서 나를 살려주다니. 래플스라 해도 비가 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누워 있는 동안 비가 내린 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었어. 그래서 난 아직도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걸 좋아해. 추억 때문이 아니라, 행운을 빌면서 말이야!"

술이 나왔고, 우리는 담배를 피우며 술을 홀짝였다. 테디가 예전에 즐겨 피우던 그 담배를 더는 고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다. 하지만 래플스를 향한 그의 충성심만큼은 예전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내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다.

“마음껏 우리를 고발하게나.”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정든 악마에게도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하네.”

“하지만 ‘우리’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아마 그렇지 않겠지만, 나 자신과 아내는 당신 좋을 대로 얼마든지 폭로해도 좋소."

"가랜드 부인이 정말로 개의치 않으실까요?"

"개의치 않겠냐고! 그가 그 모든 일을 저지른 건 다 그녀를 위해서였어. 자네는 모르고 있었나?"

테디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 일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걸 전부 말해야 합니까?" 내가 물었다.

"당연하죠! 카밀라와 저 모두 기뻐할 겁니다. 우리 이름만 바꾸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우리 둘 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테디 갈랜드가 말했다.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린 나를, 두 사람 모두 용서해 줄지 모르겠다.